

文學碩士 學位論文

# 慶州地域 書院의 展開過程과 特徵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材學科

김 은 희

2019年 12月



# 慶州地域 書院의 展開過程과 特徵

指導教授 오 세 덕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12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김 은 희





# 김 은 희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병모 

審査委員 조진영 김재영

審査委員 이세진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19年 12月



## 목 차

|                               |    |
|-------------------------------|----|
| I. 머리말 .....                  | 1  |
| 1. 연구 배경과 목적 .....            | 1  |
| 2. 연구 범위와 방법 .....            | 3  |
| 3. 연구사 검토 .....               | 6  |
| II. 우리나라 서원의 전개과정과 배향인물 ..... | 10 |
| 1. 서원의 전개과정 .....             | 10 |
| 2. 서원의 배향인물 .....             | 12 |
| 3. 서원의 배치 .....               | 16 |
| III. 경주지역 서원의 전개과정 .....      | 31 |
| 1. 경주지역 서원 현황 .....           | 31 |
| 2. 경주지역 서원 배치 변화 .....        | 44 |
| IV. 경주지역 서원의 특징 .....         | 60 |
| 1. 경주지역 서원 배향인물의 특징 .....     | 60 |
| 2. 경주지역 서원 배치의 특징 .....       | 68 |
| 3.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의 특징 .....    | 80 |
| V. 맺음말 .....                  | 84 |
| <참고문헌> .....                  | 88 |
| <표 목차> .....                  | 92 |
| <그림목차> .....                  | 93 |
| <국문초록> .....                  | 95 |
| <영문초록> .....                  | 97 |



## I. 머리말

###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유교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다. 372년(소수림왕 2) 고구려에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태학을 세워 귀족 자제들을 교육하여 중앙집권체제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했고, 백제는 285년(고이왕 52)에 왕인(王仁)박사가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일본에 전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유교가 이미 전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신라는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세워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sup>1)</sup>에서는 청년들의 경전연구와 유교정신의 실천자세가 담겨있다. 이후 설총은 이두를 창시하고 집대성하여 구경을 해석하는데 공을 세웠다. 최치원은 868년(경문왕 8)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귀국하여 894년(진성여왕 8)에는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를 올려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한 인물로 이름을 떨친 유학자이다. 조선시대 관학의 기능을 한 경주 향교는 언제 최초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향교자리는 682년(신문왕 2) 국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한 터이고, 고려 때 주학(州學)인 향교로 전승된 곳이다.<sup>2)</sup>

남송의 주희가 완성한 성리학은 고려후기 안향에 의해 원나라로부터 들어와 새로운 학풍을 형성하였고, 이색과 정몽주 등의 학자로 이어지며 정도전과 권근은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삼았다. 조선 초의 관학은 안정되게 발달하다가 훈구세력에 의해 사화(士禍)를 치루면서, 사풍이 무너지고, 주자 숭배사상의 만연과 중종의 송유책 등은 관학의 부진을 가져왔다.<sup>3)</sup> 관학이 쇠퇴하면서 유교원리를 연구하는 도학자들의 높은 교육열의에 의하여 사학으로 옮겨지며 중종 때에는 관학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한다. 1518년(중종 13) 경주부윤 희락당(希樂堂)김안로(金安老)가 남긴 『경주약향교제생첩(慶州約鄉校諸生帖)』에는 “경주는 영남의 거읍(鉅邑)으로 예로부터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호칭되었다.”<sup>4)</sup>고 기록하고 있다. 추로지향은 유교의 시

1) 두 명의 인물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을 담은 삼국시대 신라의 비석이다.

2)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주시사』, 경주시, 세종인쇄·출판사, 2014, p.290.

3) 경상북도역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 上』, 경북인쇄소, 1983, p.822.

4) 金安老, 『希樂堂文稿卷之五』, 慶州約鄉校諸生帖, “府官爲興學事。嶺之南最鉅諸路。而古稱鄒魯之鄉”

조인 공자와 맹자의 고향을 뜻하는 말로 오래전부터 경주가 유학이 발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경주지역 서원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서악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소수서원, 남계서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오래된 서원이다.<sup>5)</sup> 서악서원은 1561년에 시작하여 1563년에 3선생<sup>6)</sup>을 사당에 모시고, 퇴계선생이 “서악정사(西岳精舍)”라 하고 친필 편액을 달았다.<sup>7)</sup> 서악서원도 남계서원에서 유식공간<sup>8)</sup>의 개념으로 동재와 서재에 애련헌(愛蓮軒), 영매헌(詠梅軒)을 만든 것 같이 그 개념을 가져와 동재에 절차헌(切嗟軒), 서재에 조설헌(操雪軒) 이라고 이름을 짓는다.<sup>9)</sup> 이처럼 서악서원은 남계서원의 양식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서원에서 루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특징을 보인다.

경주의 두 번째로 오래된 서원은 옥산서원으로 이언적을 배향한 곳이다.<sup>10)</sup> 옥산서원 이후 안강과 그 주변지역에는 동강서원, 장산서원, 경산서원과 같은 이언적과 관련 있는 인물을 배향하고, 문중서원의 성격을 띤 서원의 건립이 이어진다. 옥산서원의 루와 부속건물 건축배치는 경주지역 다른 서원의 모본이 되고, 이후 건립한 서원은 이를 따른다. 전반적으로 서원의 흐름은 17·18세기 종래의 강학 기능을 지닌 형태에서 향사 우위의 모습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 가며<sup>11)</sup> 옥산서원 이후 건립된 경주지역 서원도 향사우위인 성격을 가진다. 대원군에 의해 서원이 철폐될 때 모두 훼손되었으나 점진적으로 복향 하면서 단을 회복한다. 1900년대는 중수·복원이 자손들과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모습이 변모하고 있다. 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배향인물의 성격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는 연구와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5) 서악서원의 건립 시점은 남계서원보다 후 이지만 완공시점은 남계서원이 보다 이른다.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건립을 시작하여 동·서재를 1564년에 완공한다.

6) 김유신, 설총, 최치원.

7) 김수정譯·이재영, 『국역 서악지』, 조명문화사, 2015, p.10.

8) 정기철, 「濫溪書院의 建築學的 의미」, 『동양예술』, 1권0호, 2000, p.414. 『예기』 학기편에서, “항상 학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를 쉽 없이 닦아야 하며 쉬 때 소요할 적에도 항상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9) 손봉균, 「사림학파의 당쟁을 통해 본 서원건축의 변화 특성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p.178.

10) 이언적은 서원이 중심이 되는 사학의 시대에 중국 성리학을 연구하고 재해석하여 우리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여 성리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서 경주지역 서원의 역사와 발전의 중심이 된다.

11) 경상북도역사편찬위원회, 위의 글, 1983, p.8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서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이른 시기에 건립한 전국의 13개 서원을 선정하여 경주지역 서원과 비교를 통해 배향인물의 성격과 서원 건축 배치의 특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경주에 현존하는 서원을 중심으로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 이전에 건립한 서원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에서 2007년 초판 발행한 『慶北書院誌』<sup>12)</sup>에는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용산서원, 직천서원, 구산서원, 운곡서원, 경산서원, 단구서원 등 10개가 있다. 2006년 안강에 복원한 장산서원은 이언적과의 관계와 서원 철폐 후에도 단을 세워 안강 옥산리에 흔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 포함하였고, 양남에 있는 나산서원<sup>13)</sup>은 2010년에 나산서원으로 승호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용산서원, 직천서원, 장산서원, 구산서원, 경산서원, 단구서원으로 표 1과 같다.

경주지역 서원의 전개과정은 현재 서원의 건축현황과 1980년 이후 도면에 나타난 배치변화를 정리하였다. 경주지역 서원의 특징은 크게 배향인물의 성격과 배치로 나눌 수 있다. 경주지역 서원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13개의 서원을 선별하여 기준이 되는 모집단을 선정하였다.<sup>14)</sup> (이하 ‘모집단’이라 하겠다.) 모집단은 서원 배향인물의 경향과 배치를 경주지역 서원과 비교 분석하였다. 모집단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II장에서는 우리나라 서원의 전반적인 전개과정과 일반적인 서원 건축배치에 대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모집단의 배향인물을 살펴보았다. 모집단은 1703년 이전 건립으로 경주지역 서원의 건립연도보다 이른 시기이기 때

12)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발행한 『慶北書院誌(개정판)』을 참고하였다.

13) 1780년 건립하고,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1936년에 중건하면서 나산사(羅山祠)라 불렀고 1999년 묘우를 복원하여 나산서당으로 향례를 행하다가 2010년에 향중 공의(公議)에 따라 나산서원으로 승호하였다.

14)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철폐되지 않은 47개의 서원 중에서 1703년 이전에 설립되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파손되거나 소실된 기록이 없는 13개의 서원으로, 숙종대에 서원의 남설과 첩설로 생긴 폐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17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을 일제히 정리하게 된다.

표 1 경주지역 서원 목록

| 분류  | 서원명  | 건립연도        | 사액          | 존속 및 훼손    | 위치         | 배향인물                                       |
|-----|------|-------------|-------------|------------|------------|--------------------------------------------|
| 초창기 | 서악서원 | 1561(명종 16) | 1623(인조1)   | 존속         | 서악동        | 1561-김유신,<br>1563-설총, 최치원                  |
| 발전기 | 옥산서원 | 1573(선조 6)  | 1574(선조7)   | 존속         | 안강읍<br>옥산리 | 이언적                                        |
| 남설기 | 구강서원 | 1692(숙종 18) | —           | 1868(고종 5) | 안강읍<br>양월리 | 이재현                                        |
|     | 동강서원 | 1695(숙종 21) | —           | 1868(고종 5) | 강동면<br>유금리 | 손중돈                                        |
|     | 용산서원 | 1699(숙종 25) | 1711(숙종 31) | 1870(고종 7) | 내남면<br>이조리 | 최진립                                        |
|     | 직천서원 | 1702(숙종 28) | —           | 1868(고종 5) | 안강읍<br>대동리 | 정사진                                        |
| 쇠퇴기 | 장산서원 | 1780(정조4)   | —           | 1868(고종 5) | 안강읍<br>옥산리 | 이전인                                        |
|     | 운곡서원 | 1785(정조9)   | —           | 1868(고종 5) | 강동면<br>왕신리 | 권행/권산해/권덕린                                 |
|     | 구산서원 | 1786(정조10)  | 1839(헌종 5)  | 1868(고종 5) | 현곡면<br>하구리 | 1786-서유<br>1848-서일원<br>1983-서필<br>1996-서사적 |
|     | 경산서원 | 1838(헌종 4)  | —           | 1870(고종 7) | 강동면<br>양동리 | 이의윤                                        |
|     | 단구서원 | 1862(철종 13) | —           | 1868(고종 5) | 강동면<br>단구리 | 이세기/이천/이종윤                                 |
|     |      |             |             |            |            |                                            |

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 배향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서원의 배치 분석은 경주지역 서원 배치의 특징을 알기위한 것으로써 연구방법과 분석은 모집단과 경주지역 서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통일 하였다.

Ⅲ장에서는 경주지역 서원의 외삼문에서부터 사당까지 있는 건축 현황과 배치를 정리하였다. 서원의 배치변화는 1984년 조사된 「전국 문화재 건조물 현황 실태조사서」와 「전국 문화재 현황 실태조사서」도면과 2007에 초판이 발행된 『慶北書院誌』의 도면, 현재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서원건물들의 배치 변화를 조사하였다.

Ⅳ장은 경주 서원의 외삼문과 강당, 내삼문과 사당을 중심으로 있는 축선에 따른 지붕 형태분석과 분류, 강학영역의 배치, 부속건물들의 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집단 서원과 경주지역 서원 배치 연구방법에 있어 축선에 따른 지붕 형태별 분류는 內·外로 나누는 三門, 樓, 講堂, 祠堂 건물 지붕의 형태를



표 2 모집단 서원 목록

| 번호 | 서원명      | 건립연도                                                           | 사액                         | 위치           | 배향인물                                                    |
|----|----------|----------------------------------------------------------------|----------------------------|--------------|---------------------------------------------------------|
| 1  | 소수<br>紹修 | 1543(중종 38)<br>백운동서원                                           | 1550(명종 5)<br>백운동 소수서원     | 경북 영주시       | 1543-안향<br>1544-안축과 안보<br>1633-주세붕                      |
| 2  | 남계<br>藍溪 | 1552(명종 7)                                                     | 1566(명종 21)                | 경남 함양군       | 정여창<br>1675-정온<br>1689- 강익,                             |
| 3  | 도동<br>道東 | 1568(선조 1)<br>비슬산기슭 雙溪書院<br>창건                                 | 1573(선조 6)                 | 대구광역시<br>달성군 | 김광필<br>1678-정구                                          |
| 4  | 금오<br>金烏 | 1570(선조 3)<br>금오산창건                                            | 1575(선조 8)                 | 경북 구미시       | 길재<br>1609 -김종직, 정봉, 박영,<br>장현광                         |
| 5  | 도산<br>陶山 | 1574(선조 7)                                                     | 1575(선조 8)                 | 경북 안동시       | 1574-이항<br>1674-조목                                      |
| 6  | 필암<br>筆巖 | 1590(선조 23)                                                    | 1662(현종 3)                 | 전남 장성군       | 김인후<br>1786-양자징                                         |
| 7  | 병산<br>屏山 | 1572(선조 5)이건- 개칭<br>1613(광해군 5)사당짓고<br>서원으로 창건                 | 1863(철종 14)                | 경북 안동시       | 유성룡<br>1629-유진                                          |
| 8  | 무성<br>武城 | 1484(성종 15) 태산사<br>재건<br>1544(중종 39)신잠의<br>생사당 건립<br>1615-5명추배 | 1696(숙종<br>22)무성서원으로<br>사액 | 전북 정읍시       | 1484-최치원<br>1544-신잠<br>1615-정극인,<br>송세립,정언충, 김약목,<br>김관 |
| 9  | 돈암<br>遯巖 | 1634(인조 12)                                                    | 1660(현종 1)                 | 충남 논산시       | 김장생<br>1658-김집,송준길,송시열                                  |
| 10 | 우저<br>牛渚 | 1648(인조 26)                                                    | 1669(현종 10)<br>1675(숙종 1)  | 경기도<br>김포시   | 조헌                                                      |
| 11 | 노강<br>魯岡 | 1675(숙종 1)                                                     | 1682(숙종 8)                 | 충남 논산시       | 윤항<br>1682-윤문거<br>1723-윤선거, 윤증                          |
| 12 | 덕봉<br>德峰 | 1695(숙종 21)                                                    | 1700(숙종 26)                | 경기도<br>안성시   | 오두인                                                     |
| 13 | 흥암<br>興巖 | 1702(숙종 28)                                                    | 1705(숙종 31)                | 경북 상주시       | 송준길                                                     |

분류하였다. 강학영역의 배치를 모집단에서는 전당후재(前堂後齋)와 전재후당(前齋後堂)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경주지역 서원은 모두 전재후당을 따르고 있어, 강학영역 안에 동·서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서원의 부속건물 책과 책판을 보관하던 보관고, 비·비각, 고직사, 전사청으로 분류하였다. 이 부속건물

의 배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당과 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축선과 내삼문을 기점으로 4분할하여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4개의 영역은 제향영역 좌·우측과 강당영역 좌·우측으로 나누어 배치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배치의 특징은 경주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에서 면밀히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위치와 배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동·서·남·북은 지도의 방향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후·좌·우는 서원의 진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방향을 설명한 것임을 일러둔다.

### 3. 연구사 검토

경주지역 서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역단체 및 국립기관에서 발행한 기초자료와 지역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자료 정도이다. 기초자료에는 이상해의 『서원』, 경상북도에서 발행한 『慶北書院誌(개정판)』, 경주향교에서 발행한 『慶州 儒敎文化 遺蹟』이 있다.

경주지역의 서원명을 비교적 많이 언급한 것은 박장승의 『경주소재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이다. 박장승은 논문에서 『루판고(鑠板考)』, 『동경잡기(東京雜記)』, 『금오승람(金鰲勝覽)』에 소개된 경주 소재지 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책판이 서원 주도하에 간행한 ‘서원판’인지 고찰하고, 1796년 이후 경주 소재 서원에서 간행한 인본을 조사하여 경주 소재 ‘서원판’을 연구하였다.<sup>15)</sup>

옥산서원과 서악서원은 역사 깊은 중요한 서원으로 역사학, 건축공학, 조경학, 교육학, 지리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송영인은 「옥산서원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옥산서원의 배치형태의 기하학 및 시지각적 특징을 파악하여 위계질서 체계를 중요시하고, 시각적 변화를 연구하였다.<sup>16)</sup> 유인호·하현정의 『옥산서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측조사와 각 건물의 영조적 분석을 통한 幾何學 및 視知覺的 분석을

15) 박장승, 「경주소재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Vol.19, 2001.

16) 송영인, 「옥산서원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연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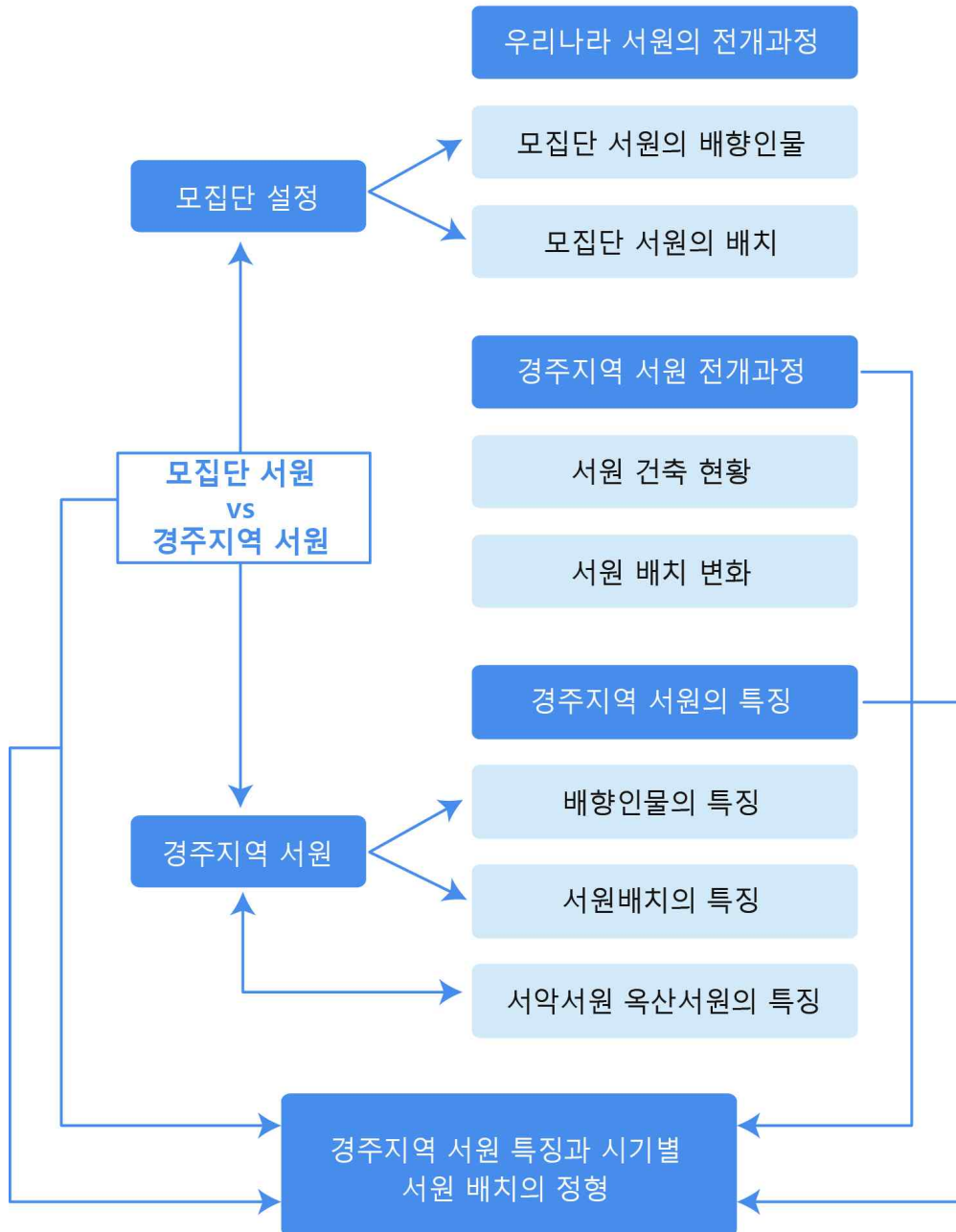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흐름도

표 3 경주지역 서원 연구사 목록

| 서원명           | 연구자              | 제목                              | 주요내용                                                                    |
|---------------|------------------|---------------------------------|-------------------------------------------------------------------------|
| 경주지역<br>서원 전반 | 박장승/신라문<br>화     | 경주 소재 서원·사에서<br>간행한 전적고         | 경주 소재 서원에서 간행한 인본을 조사하여 경주<br>소재 '서원판'의 현황연구                            |
| 옥산서원          | 송영인/금오공<br>과대학석논 | 옥산서원 배치형태에<br>관한 연구             | 옥산서원의 배치형태의 기하학 및 시지각적 특성<br>을 파악                                       |
|               | 유인호/하현정/<br>주거환경 | 옥산서원의 공간구성<br>에 관한 연구           | 실측조사와 각 건물의 영조척 분석을 통한 幾何學<br>및 視知覺의 분석을 시행하여 옥산서원의 배치형태<br>에 관한 특성을 파악 |
| 서악서원          | 황정환/경주대<br>논문집   | 경주 서악서원 조경식<br>재 계획의 방향         | 경주 서악서원의 조경현황 고찰과 올바를 조경식<br>재의 계획과 방향 제시                               |
|               | 오정국/대구카<br>톨릭대석논 | 경주 서악서원에 대한<br>연구               | 경주 서악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풍수지리적으로<br>연구                                          |
| 구강서원          | 이수환/조선시<br>대사학회  | 慶州 龜岡書院 연구                      | 구강서원 설립과정과 청액과정 중 향증과의 관계<br>에 대한 연구                                    |
| 용산서원          | 손숙경/동아대<br>석논    | 조선후기 경주의 서원과<br>사족의 지역지배<br>질서  | 지방세력이 중앙정부와의 단절에서 향촌사회의 입<br>지를 지키는 배경을 경주용산서원을 중심으로 연<br>구             |
|               | 최영기/경주문<br>화논총   | 龍山書院 未復元 滅失<br>建物 考察            | 미복원 건물 위치와 규모 추정                                                        |
| 장산서원          | 채광수/한국서<br>원학보   |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br>의 章山書院 건립과<br>운영 | 영남지역에서 노론계서원으로 건립될 수 밖에 없<br>었던 배경에 관한 연구                               |

시행하여 옥산서원의 배치형태에 관한 특징을 파악하였다.<sup>17)</sup>

서악서원은 황정환의 「경주 서악서원 조경식재 계획의 방향」에서 서악서원 내 조경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올바를 조경식재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였다.<sup>18)</sup> 오정국은 「경주 서악서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에서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sup>19)</sup>

구강서원은 이수환의 「慶州 龜岡書院 연구」에서 서원의 소장 자료를 통해 본 경주 구강서원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였다.<sup>20)</sup>

용산서원은 손숙경의 「조선후기 경주의 서원과 사족의 지역지배질서 : 경주 이조의 용산서원과 최씨 가문」에서 지방세력이 중앙 정부에 진입하지 않

17) 유인호·하현정 「옥산서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10권 2호 (통권 제 18호), 2012.

18) 황정환, 「경주 서악서원 조경식재 계획의 방향」, 『論文集, Vol.17』, 2004.

19) 오정국, 「경주 서악서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0) 이수환, 「慶州 龜岡書院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4』, 2005.

으면서 향촌 사회의 입지를 지켜가며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sup>21)</sup> 최영기는 「龍山書院 未復元 滅失建物 考察」에서 멸실되고 복원이 되지 않은 누각과 동재와 서재를 관련기록 중심으로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였다.<sup>22)</sup>

장산서원은 채광수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에서 남인계 대표서원인 도산서원과 남명학파의 조식(曹植 : 1501~1572)을 배향하는 덕천서원과의 갈등으로 노론계 서원으로 건립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sup>23)</sup>

옥산서원과 서악서원에 대한 외에 경주지역 다른 서원은 연구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

21) 손숙경, 「조선후기 경주의 서원과 사족의 지역지배질서 : 경주 이조의 용산서원과 최씨 가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2) 최영기, 「龍山書院 未復元 滅失建物 考察」, 『경주문화논총』 제21집, 2018.

23)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4권, 2017.

## II. 우리나라 서원의 전개과정과 배향인물

### 1. 서원의 전개과정

1543년(중종 38) 조선의 사회는 고려후기 중국으로부터 주자학을 도입해 온 안향을 모시는 사당인 문성공묘를 세운 것이 서원의 시초가 된다.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쇠퇴한 관학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향이 경전을 읽었던 숙수사지에 사당을 세웠다. 사당 옆으로 유생들의 강학을 위한 건물을 짓고 백운동서원이라 했다. 공자가 아닌 우리나라의 유학자를 모시는 최초의 서원이다. 이후 독자적인 서원의 보급을 주도한 것은 이황이다. 이황은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백운동서원의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고, 명종에게 서원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과 함께 사서오경과 성리학대전, 그 외에 노비를 하사받았다. 또한 그의 고향인 예안의 역동서원 등 10여 곳의 서원 건립에 참여했다.<sup>24)</sup>

서원의 발전과 전개과정은 초창기, 발전기, 남설기, 쇠퇴기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창기는 소수서원의 건립시기인 1543년(중종 38)부터 1567년(명종연대)까지이고, 발전기는 선조부터 현종까지이다. 남설기는 숙종부터 영조의 서원정비령 전까지이고, 쇠퇴기는 그 이후이다. 우리나라 서원과 사우의 건립 수는 표 4와 같다.

서원의 초창기는 향교를 대신해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시기로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영천 임고서원, 해주 문헌서원 등에 사액이 내려진다. 발전기는 200여개소의 서원이 설립되고 95개소 서원에 사액이 내려진다. 이 시기에는 서원의 건립이 경상도에서 벗어나 전라, 충청, 경기, 한강 이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남명(南冥) 조식(曹植),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계 성혼(成渾) 등의 강학활동이 활발하고 학통과 사승관계에 따라 영남학과와 기호학과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남설기는 숙종에서부터 1741년(영조 17)까지로 66년 동안 192개소의 서원이 세워지고 특히 사우가 급격히 증가한다. 영조의 서원정비령이 강화되자 명칭을 사우로 바꾸어 건립하여 서원과 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국가에서도 통칭으로 사용하기에 이른

24) 김희곤, 『정신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미술문화, 동화인쇄, 2019, p.16~19.

표 4 시대별 서원, 사우 건립 및 사액 개수

| 연대              | 서원건립수 | 사우건립수 | 사액  |
|-----------------|-------|-------|-----|
| 중종 38(1543)     | 1     | -     | -   |
| 명종(1546-1567)   | 22    | 13    | 4   |
| 선조(1567-1608)   | 63    | 21    | 21  |
| 광해군(1608-1623)  | 29    | 9     | 15  |
| 인조(1623-1649)   | 28    | 25    | 5   |
| 효종(1649-1659)   | 27    | 10    | 10  |
| 현종(1659-1674)   | 46    | 19    | 44  |
| 숙종(1674-1720)   | 166   | 174   | 131 |
| 경종(1720-1724)   | 8     | 20    | -   |
| 영조(1724-1776)   | 18    | 145   | 13  |
| 정조(1776-1800)   | 2     | 6     | 13  |
| 순조(1800-1834)이후 | 1     | 1     | 4   |
| 연대미상            | 7     | 43    | -   |
| 합계              | 418   | 486   | 260 |

다. 쇠퇴기는 1741년(영조 17)이후를 말하며 서원정비령으로 전국의 174개소가 훼손되어 서원건립이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중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서원건립이 성행한다.<sup>25)</sup>

서원의 성립에는 제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이황의 서원관(書院觀)에서 서원은 유생을 위한 강명도학기구(講明道學機構)이면서 장수처(藏修處)로서 유생이 조심히 법을 지키기 위하여 도학자를 제향 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었다. 도학자의 제향은 조선 서원의 존재가치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확립해 주고, 국가로부터 인정과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었다.<sup>26)</sup>

서원의 교육은 참된 인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참된 인성은 장수(藏修)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수는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으로써 서원을 장수의 공간으로 이용하여 번잡한 곳

25) 정만조, 「한국서원의 발자취」,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도서출판 문사철, 2014, pp.28~32.

26) 정만조, 『조선 서원의 성립과정 : 중종년간 사림을 위한 교학진흥책과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 1990, p.54.

을 떠나 산과 물이 있는 곳에 은거하고 수양하며 독서하기 적합한 곳에 입지를 정하였다.<sup>27)</sup>

서원건축에서 배치는 시기별 상황을 반영하여 초창기 소수서원과 같이 배치의 정형성이 성립되지 않다가 두 번째로 건립된 남계서원에서부터 강당중심의 건축이 성립된다. 사림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서원건축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배치형태가 정착하게 된다. 서원의 입지는 대부분 경사면으로 앞이 낮고 사당을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하는 전저후고(前低後高)를 채택하였다. 사당보다 낮은 곳에 강당을 두고, 강당 앞으로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여 건물의 위계를 설정하였으며 배치상의 축(軸)선을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남설기인 숙종대 부터 영조의 서원정비령 전까지 서원건립이 급증하여 사회적인 폐단이 일어나고 사당 중심의 서원이 건립되는 시기이다. 강학기능은 약화되고 제향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며 주공간과 부공간이 흐트러진다. 부속건물의 배치도 질서를 잃게 되며 영조의 서원 훼손 후에는 제향위주의 건축이 더욱 성행하게 된다.<sup>28)</sup>

## 2. 서원의 배향인물

서원이 세워지는 장소는 선현의 출생지, 고향, 성장한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이다.<sup>29)</sup>

모집단 서원은 지역성을 드러내는 출생지 및 본관을 두고 있는 인물을 위주로 대체적으로 배향하지만 지역과 관계성이 없고 혈연중심도 아닌 인물도 상당수 배향한다. 모집단 서원의 주 배향자는 서원이 처음 건립될 당시 서원의 성격을 말해준다. 추가 배향자는 서원이 발전하면서 전개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주 배향자는 서원이 있는 지역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추가 배향자의 경우는 지역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주 배향자와의 관계를 같이 보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돈암서원의 김장생은 서울출생이며 기호학파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충청남도 논산의 돈암서원에 배향되었다. 김장생은 본관이나 출신

27) 이상해, 『한국의 서원 사진 및 도면집』, (사)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INGCOR, 2013. pp.24~27.

28) 이상해,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서원건축」, 『서원』, 열화당, 1998. pp.346~348.

29) 이상해, 위의 글, 2013. p.27.



표 5 배향인물과 서원과의 지역 관계성이 있는 경우(22인)

| 서원명  | 서원주소                 | 배향순서 | 배향연도   | 인물명 | 서원지역과 관계성                                     |
|------|----------------------|------|--------|-----|-----------------------------------------------|
| 소수서원 | 경북 영주시<br>순흥면 내죽리    | 1    | 1543   | 안향  | 본관 : 순흥(順興)-경북 영주시 순흥면                        |
| 남계서원 | 경남 함양군<br>수동면 원평리    | 1    | 1552   | 정여창 | 출생지/경남 함양 출생                                  |
|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br>구지면 도동리 | 1    | 1568   | 김굉필 | 근거지/아내의 고향 현풍현<br>이주-이전하기 전 지역                |
| 금오서원 | 경북 구미시<br>선산읍 원리     | 1    | 1570   | 길재  | 출생지/경북 구미 출생                                  |
| 병산서원 | 경북 안동시<br>풍천면 병산리    | 1    | 1613   | 류성룡 | 본관 : 풍산(豊山)-경북 안동시 풍산읍                        |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br>황룡면 필암리    | 1    | 1590   | 김인후 | 출생지/전남 장성 출생                                  |
| 도산서원 | 경북 안동시<br>도산면 토계리    | 1    | 1574   | 이황  | 출생지/예안(禮安, 지금의 경북<br>안동시)출생                   |
| 우저서원 | 경기도 김포시<br>감정동       | 1    | 1618   | 조헌  | 출생지/경기도 김포 출생                                 |
| 노강서원 | 충남 논산시<br>광석면 오강리    | 1    | 1675   | 윤항  | 출신지/충남 논산 출신                                  |
| 소수서원 | 경북 영주시<br>순흥면 내죽리    | 2    | 1544   | 안축  | 본관 : 순흥(順興)-경북 영주시 순흥면                        |
|      |                      | 3    | 1544   | 안보  | 본관 : 순흥(順興)-경북 영주시 순흥면                        |
| 금오서원 | 경북 구미시<br>선산읍 원리     | 2    | 1609 후 | 김종직 | 본관 : 선산(善山) /경북 구미시 선산읍                       |
|      |                      | 3    | 1609 후 | 정봉  | 본관 : 선산(善山)/경북 구미시 선산읍                        |
|      |                      | 4    | 1609 후 | 박영  | 출신지:경북 구미                                     |
|      |                      | 5    | 1609 후 | 장현광 | 출신지:경북 인동에서 성장                                |
| 병산서원 | 경북 안동시<br>풍천면 병산리    | 2    | 1629   | 류진  | 본관 : 풍산(豊山)-경북 안동시 풍산읍                        |
| 무성서원 | 전북 정읍시<br>칠보면 무성리    | 7    | 1675   | 김관  | 출생지/태인 고현내(古縣內; 現 전북<br>정읍시 칠보면) 출생           |
| 돈암서원 | 충남 논산시<br>연산면 임리     | 3    | 1658   | 송준길 | 본관 : 은진(恩津) /충남 논산시 은진면<br>/ 김장생(주배향) 문인      |
|      |                      | 4    | 1658   | 송시열 | 본관: 은진(恩津) /충남 논산시 은진면<br>김장생(주배향)김집(추가배향) 문인 |
| 노강서원 | 충남 논산시<br>광석면 오강리    | 2    | 1682   | 윤문거 | 출신지/충남 논산 출신<br>윤항(주배향자)의 아들                  |
|      |                      | 3    | 1723   | 윤선거 | 출신지/충남 논산 출신<br>윤항(주배향자)의 아들                  |
|      |                      | 4    | 1723   | 윤증  | 윤항(주배향자)의 증손/윤선거의 아들                          |

등으로 위인 인물이 아니라 학문이나 학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원과 지역관계성은 없는 인물이다. 그의 아들 김집도 서울 출생으로 서원이 있는 지역과 관계성이 없는 인물로 분류했다.

먼저 주 배향자의 성격은 13개의 서원중 9개 서원의 배향자는 본관이 같거나 출생지 및 출신지이고 나머지 4개는 출신지가 아니다. 서원의 추가 배향인물 25인 중에서 13인은 서원과 같은 지역성을 가지나 12인은 본관 및 출신관계가 아니다.

주 배향자와 추가 배향자가 38인 중 서원과 지역성을 가진 인물은 표 5와 같이 22인이고, 지역성이 없는 인물은 표 6과 같이 16인이다. 이와 같이 서원이 있는 지역과의 관계가 있는 인물이 주로 배향되었으나 서원이 있는 지역과 관계성이 없는 인물도 42%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원의 본래 기능이 선현을 제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향촌사회를 운영하고 이끄는 역할이다. 서원이 건립되는 시기가 빠를수록 서원의 건립 목적이 명확했을 것이다. 모집단 서원에서 서원이 있는 지역과의 관계성이 없는 인물이 배향된 경우는 학문과 덕행이 훌륭한 선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서원이 있는 지역과 배향인물과의 관계성이 없는 16인은 더욱 의미 있는 것이다.

주 배향인물 중에서 서원이 있는 지역과의 관계성이 없는 인물 4인은 무성서원 최치원, 돈암서원 김장생, 덕봉서원 오두인, 홍암서원 송준길이다. 추가 배향인물에서 서원이 있는 지역과의 관계성이 없는 인물 12인은 소수서원의 주세붕, 남계서원 정온, 강익, 도동서원 정구, 도산서원 조목, 필암서원 양자징, 무성서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이고, 돈암서원 김집이다.

무성서원의 최치원은 경주최씨의 시조이고, 신라 6두품 출신이며 무성서원이 있는 곳에서 지방 현령을 지냈다.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시대 세운 태산사(泰山祠)와 정극인의 가숙(家塾)<sup>30)</sup>인 향학당(鄉學堂)을 결합하여 1615년 태산서원으로 창건하였고, 1696년 무성(武城)으로 사액 받았다.<sup>31)</sup> 돈암서원의 주 배향자인 김장생은 서울출생으로 기호학파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덕봉서원의 오두인은 본관이 황해도 해주이며 덕봉서원이 있는 안성과는 관계성이 없다. 홍암서원의 송준길은 본관이 ‘은진’으로 ‘은진’은 논산의 이름이다. 홍암서원이 있는 상주와는 관계성이 없고 기호학파의 영역확장으로

30) 개인이 집안에서 경영하는 글방

31) 이상해, 앞의 책, 2013, p.43.

표 6 배향인물과 서원과의 지역 관계성 없는 경우(16)

| 서원명   | 서원주소                 | 배향순서 | 배향연도 | 인물명 | 서원지역과 관계성               |
|-------|----------------------|------|------|-----|-------------------------|
| 무성서원  | 전북 정읍시 칠보면<br>무성리    | 1    | 1484 | 최치원 | 지방현령                    |
| 돈암 서원 | 충남 논산시 연산면<br>임리     | 1    | 1634 | 김장생 | —                       |
| 덕봉서원  | 경기도 안성시<br>양성면 덕봉리   | 1    | 1695 | 오두인 | —                       |
| 흥암서원  | 경북 상주시 연원동           | 1    | 1702 | 송준길 | —                       |
| 소수서원  | 경북 영주시 순흥면<br>내죽리    | 4    | 1633 | 주세붕 | 1542년 풍기군수로 안향의<br>사묘건립 |
| 남계서원  | 경남 함양군 수동면<br>원평리    | 2    | 1675 | 정온  | —                       |
|       |                      | 3    | 1689 | 강익  | 서원 건립 주도자 &출신지          |
|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br>구지면 도동리 | 2    | 1678 | 정구  | —                       |
| 도산서원  | 경북 안동시 도산면<br>토계리    | 2    | 1674 | 조목  | 이황의 문인                  |
| 필암서원  | 전남 장성군 황룡면<br>필암리    | 2    | 1786 | 양자징 | 김인후(주배향자)의 문인 및<br>사위   |
| 무성서원  | 전북 정읍시 칠보면<br>무성리    | 2    | 1544 | 신잠  | —                       |
|       |                      | 3    | 1630 | 정극인 | —                       |
|       |                      | 4    | 1630 | 송세림 | —                       |
|       |                      | 5    | 1630 | 정언충 | —                       |
|       |                      | 6    | 1630 | 김약묵 | —                       |
| 돈암서원  | 충남 논산시 연산면<br>임리     | 2    | 1658 | 김집  | 김장생(주배향)의 문인&아들         |

상주에 건립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2)</sup>

소수서원의 추가 배향자인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안향의 사묘를 건립한 인물이다. 남계서원의 추가 배향자인 정온과 강익은 주 배향인물인 정여창과의 관계정보다 남명(南冥) 조식의 문인들이다. 남계서원의 건립에 힘쓴 개암 강익은 조식을 만나고 남계서원의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완공되는 과정에서 남명학

32) 박종찬, 「전재후당형 서원건축의 특성에 관한연구」, 2010,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54.

과의 후원도 받고, 완공 후에 조식은 제자들과 함께 남계서원을 방문하고 강학을 진행하였다.<sup>33)</sup> 도동서원의 추가 배향자인 한강 정구는 본관이 청주(淸州)이고 이황과 조식의 문인이다. 아버지가 도동서원 주 배향자인 김굉필의 외증손으로 어머니 고향인 성주에서 정착하였다. 필암서원의 추가 배향자인 양자정은 김인후의 문인이다. 도산서원의 조목은 이황의 문인으로 주 배향인물인 이황을 봉향하고 100여년 후에 추가 배향되었다. 돈암서원의 추가 배향인물인 김집은 김장생의 아들로 그도 서울 출생이며 아버지 김장생의 뜻과 학문을 이어받아 송시열에게도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 3. 서원의 배치

본고에서 선정한 모집단에서 축선상 지붕의 형태를 보면 크기와 함께 나타나는 건물의 위계를 볼 수 있다. 건축에서 중심축이란 곧 질서이자 기준이며 건물 구성 원리의 근본이 된다. 서원의 주요 건물은 모두 일직선의 중심축 위에 좌우 대칭을 이루며 배치된 것이다.<sup>34)</sup>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인 소수서원의 명륜당은 동향이고, 문성공묘는 남향으로 하였으며 재사 건물들도 강당 북편으로 불규칙하게 배치하여 어디가 중심축인지 알 수 없다. 부속건물 배치도 문성공묘의 북쪽과 동쪽에 몰려 있어 서원에 필요한 요소가 있으나 배치의 정형성을 찾기에 무리가 있어 모집단에서 제외했다.

서원 건축은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선현의 학문을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제향공간, 경서의 강독을 통해 지식을 몸으로 실천할 방법을 터득하는 강학공간, 학문의 긴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며 학문에 마음을 두는 유식공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세 공간을 장수(藏修)하는 이념의 공간으로 삼았다.<sup>35)</sup> 서원의 기본적인 형태는 강학영역과 제향영역이 있고, 두 공간을 담장과 내삼문으로 분리한다. 제향영역을 강학영역보다 후면에 두고 지형을 이용하거나 축대를 쌓아 강당보다 높은 곳에 두는 전학후묘의 배치를 취한다. 서원은 대체적으로 외삼문을 지나 강당을 두고, 내삼문 통과하면 사당이 있어 일직선상 축을 이루고 동재와 서재를 마주보게 두

33) 김기주, 「藍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남명학연구』 Vol.52, 2016, p.296.

34) 이상해, 「한국의 서원 건축」, 『한국의 서원 문화』, 한국서원연합회, 도서출판 문사철, 2014, p.139.

35) 이상해, 위의 글, 2014, p.110.

어 좌우 대칭이 되는 건축배치이다.

#### 1) 축선에 따른 지붕 형태별 분류

모집단에서 서원의 중심축선은 남계서원, 도동서원, 금오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둔암서원, 우저서원, 노강서원, 덕봉서원, 홍암서원 등 10개 서원은 일직선으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은 사당이 있는 영역과 강당이 있는 영역이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축의 분화”라고 부르며 축의 분화는 시대별로 서원의 기능이 변하면서 겪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서원이 건립되는 초기에는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중기에는 교육과 제향기능의 비중이 동등하며 후기에는 제향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sup>36)</sup> 또 다른 의견은 도산서원의 주요건물인 전교당과 상덕사, 그리고 도산서당이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맥선(地脈線)을 따라 입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sup>37)</sup> 정기철은 『남계서원의 건축사적 의미』에서 강익(姜翼)의 「연보(年譜)」는 사우를 강당의 동쪽 언덕에 계획했다는 언급이 『주자가례』의 ‘정침 동쪽에 사우를 세운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38)</sup> 『남계서원지』 서원사실(書院事實) ‘신주(神廚)’항목에는 “묘우의 왼편에 있다. 2칸인데 1칸은 제기를 보관하는 곳이고 1칸은 제물을 데피는 곳이다.”라는 내용을 보아 남계서원의 신주가 가례규정을 따랐고 건축계획 원리이며 예제를 지킨 것으로써 초창기 서원 영건에는 사우를 동편에 배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9)</sup>

모집단 서원 축선에 따른 지붕의 형태는 표 7과 같다.

서원 분류에 있어서 먼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樓의 유무이고, 樓가 있는 것 중에는 외삼문을 1층에 두고 2층에 樓가 있는 형태와 외삼문과 樓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있는 형태로 나뉜다. 樓가 있으면서 외삼문과 樓가 중층으로 있는 것을 ‘가’로 정한다. 그 안에 강당이 팔작지붕인 것을 ‘가-1’하고 강당이

36) 도용호·이재현, 「사림의 성향과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1권4호, 1995, pp.131~132. “다른 축에 의해 구성되는 17세기 전후의 서원들은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 탐구라는 대립적인 요인의 공존으로 중심공간이 강당과 사당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면서 축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時代別로 書院의 기능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

37) 김연호,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입지(立地)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配置)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2008, Vol.No3, 2008, p.29.

38) 정기철, 위의 글, 2000, p.405~407.

39) 정기철, 앞의 책, 2000, p.405~407.

표 7 모집단 서원 축선 지붕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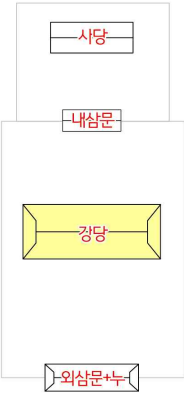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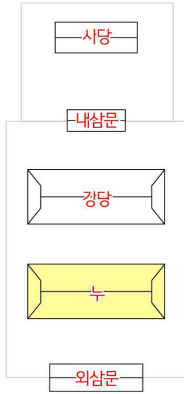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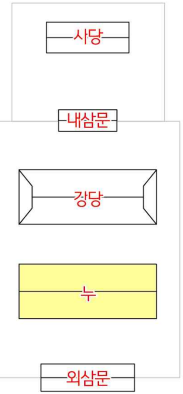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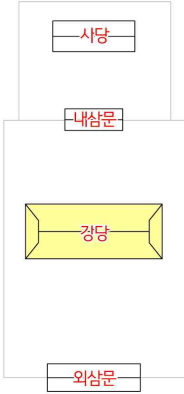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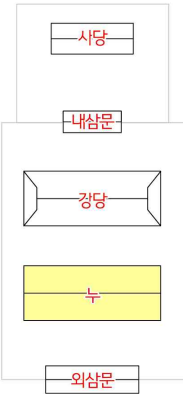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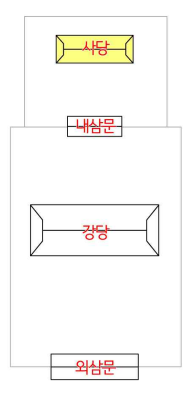
|          | 서원명      | 건립연도       | 樓+외삼문(+)/분리(-) | 외삼문 | 樓  | 강당 | 내삼문 | 사당 |
|----------|----------|------------|----------------|-----|----|----|-----|----|
| 樓가 있는 서원 | 남계<br>藍溪 | 1552(명종7)  | +              |     | 팔작 | 팔작 | 맞배  | 맞배 |
|          | 도동<br>道東 | 1568(선조1)  | +              |     | 팔작 | 맞배 | 맞배  | 맞배 |
|          | 금오<br>金烏 | 1570(선조3)  | +              |     | 팔작 | 팔작 | 맞배  | 맞배 |
|          | 필암<br>筆巖 | 1590(선조23) | +              |     | 팔작 | 맞배 | 맞배  | 맞배 |
|          | 무성<br>武城 | 1615-5명추배  | +              |     | 팔작 | 팔작 | 맞배  | 맞배 |
|          | 병산<br>屏山 | 1613(광해군5) | -              |     | 팔작 | 팔작 | 맞배  | 맞배 |
|          | 돈암<br>遯巖 | 1634(인조12) | -              |     | 맞배 | 팔작 | 맞배  | 맞배 |
| 樓가 없는 서원 | 소수<br>紹修 | 1543(중종38) | ×              | 맞배  |    | 팔작 | 맞배  | 맞배 |
|          | 도산<br>陶山 | 1574(선조7)  | ×              | 맞배  |    | 팔작 | 맞배  | 팔작 |
|          | 우저<br>牛渚 | 1648(인조26) | ×              | 맞배  |    | 팔작 | 맞배  | 맞배 |
|          | 노강<br>魯岡 | 1675(숙종1)  | ×              | 맞배  |    | 맞배 | 맞배  | 맞배 |
|          | 덕봉<br>德峰 | 1695(숙종21) | ×              | 맞배  |    | 팔작 | 맞배  | 맞배 |
|          | 흥암<br>興巖 | 1702(숙종28) | ×              | 맞배  |    | 팔작 | 맞배  | 맞배 |

맞배지붕인 것을 ‘가-2’로 분류하였다. 樓가 있으나 외삼문과 분리된 형태를 ‘나’로 하고 강당이 팔작지붕인 것을 ‘나-1’, 강당이 맞배지붕인 것은 ‘나-2’로 하였다. 樓가 없는 것을 ‘다’로 하고 강당이 팔작지붕인 것을 ‘다-1’, 강당이 맞배지붕인 것을 ‘다-2’, 강당은 팔작지붕이고 사당도 팔작지붕인 것을 ‘다-3’으로 하여 지붕형태에 따라 총7개로 표 8과 같이 분류하였다.

돈암서원의 경우는 외삼문보다 樓가 전면에 있지만 외삼문 뒤로 樓가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분류했다.

가-1은 樓와 외삼문이 2층 구조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외삼문과 樓가 함께 있는 건물은 팔작지붕이며 강당이 팔작지붕이다. 이에 속하는 서원은 남계서원, 금오서원, 무성서원이다.

표 8 모집단 서원 축선 지붕형태 분류

|          | 외삼문과 樓가 중층으로 있는 형태                                                                  |                                                                                     | 외삼문과 樓가 분리된 형태                                                                      |                                                                                       |
|----------|-------------------------------------------------------------------------------------|-------------------------------------------------------------------------------------|-------------------------------------------------------------------------------------|---------------------------------------------------------------------------------------|
|          | 강당 지붕-팔작 / 가-1                                                                      | 강당 지붕-맞배 / 가-2                                                                      | 樓 지붕-팔작 / 나-1                                                                       | 樓 지붕-맞배 / 나-2                                                                         |
| 樓가 있는 형태 |    |    |    |    |
|          | 남계(1552)<br>금오(1570)<br>무성(1615)                                                    | 도동(1568)<br>필암(1590)전당                                                              | 병산(1613)                                                                            | 돈암(1634)                                                                              |
| 樓가 없는 형태 | 강당 지붕-팔작 / 다-1                                                                      | 강당 지붕-맞배 / 다-2                                                                      | 사당 지붕-팔작 / 다-3                                                                      |                                                                                       |
|          |  |  |  |  |
|          | 우저(1648)<br>덕봉(1695)전당<br>흥암(1702)전당                                                | 노강(1675)                                                                            | 도산(1574)                                                                            |                                                                                       |

가-2는 樓와 외삼문이 2층 구조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외삼문과 樓가 함께 있는 건물은 팔작지붕이며 강당이 맞배지붕이다. 가-2에는 도동서원, 필암서원 두 곳이 있다.

나-1은 외삼문과 樓가 분리된 형태인데 樓가 팔작지붕이다. 나-1에 속하는 서원은 병산서원이다.

나-2는 외삼문과 樓가 분리되어 있고 樓가 맞배지붕이다. 나-2에 속하는 서원은 돈암서원이다.

다-1은 樓가 없고 내삼문과 사당은 맞배지붕이면서 강당이 팔작지붕이다. 다-1에 속하는 서원은 우저서원, 덕봉서원, 홍암서원이다.

다-2는 樓가 없고 사당이 맞배지붕이면서 강당이 맞배지붕이다. 다-2에 속하는 서원은 노강서원이다.

다-3은 樓가 없고, 강당과 사당이 모두 팔작지붕인 형태이다. 다-3에 속하는 서원은 도산서원이다.

서원 축선의 지붕 분류는 樓의 유무가 기준점이 된다. 소수서원을 제외한 12개의 모집단 중에서 樓가 없는 5개의 서원과 樓가 있는 7개의 서원이 있다. 樓가 있는데 문루의 형태로 있을 때는 팔작지붕이고 단독 건물로 있을 때는 팔작지붕이거나 맞배지붕이다. 강당의 지붕은 팔작지붕이 9개로 보편적이며 사당의 지붕은 맞배지붕이 확고하나 도산서원의 사당이 팔작지붕이다. 특별히 모집단에서는 도산서원의 사당과 경주지역에서는 구산서원의 사당만 팔작지붕으로 나타난다. 도산서원의 사당 팔작지붕은 軸이 分化되는 현상을 보이는 덕천(德川)서원<sup>40)</sup>, 병산(屏山)서원<sup>41)</sup>, 역동(易東)서원<sup>42)</sup>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다.

내삼문에서 특별한 배치는 논산의 두 서원인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에서 나타난다. 두 서원은 내삼문이라기 보다는 신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사당이 있는 제향영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문을 사주문으로 3개를 두고 가운데 문은 양쪽 끝에 있는 문보다 크고 높게 만들었다. 돈암서원 사당을 진입하는 3개의 문은 각 문 앞으로 계단을 두었고 노강서원은 사당이 있는 곳에 지형이 높아 진입하는 3개의 문 앞쪽으로 계단을 가파르고 길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이

40) 이상해, 위의 글, 1998, p.239 사진.

41) 이상해, 앞의 책, 1998, p.130.

42) 이상해, 앞의 책, 1998, p.311.



두 서원 사당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전면 공포는 일출목 첨차가 있고 모양은 다르지만 평방 아래로 파련형화반이 있는 공통점이 있어 보통의 사당 공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두 서원의 공통점은 논산 지역 김장생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계열의 본거지이고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주류이다. 노론계의 대표 서원은 돈암서원이고 소론계의 대표서원은 노강서원이다. 후일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지만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은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서인계 서원으로 17세기 건립 당시만 해도 당파적 갈등은 전혀 없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sup>43)</sup>

## 2) 강학영역 배치

서원의 영역에는 강당을 중심으로 강학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강학영역은 강당과 재사(齋舍)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당 앞에 재사가 있는 전재후당 형식과 강당 뒤쪽으로 재사가 있는 전당후재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12개의 모집단에서 강학영역을 중심으로 남계서원, 도동서원, 금오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 노강서원, 우저서원 등 8개의 서원은 전재후당이고, 필암서원, 덕봉서원, 홍암서원, 3곳은 전당후재이다. 우저서원이 2003년에는 서재만 있었고 당시 상황으로 전당후재로 해석하였으나<sup>44)</sup> 지금은 동재도 있고, 전재후당 배치이다.

무성서원은 강당보다 동재인 수강재가 앞쪽에 있지만 강당이 있는 영역 담장 밖으로 나가 있어서 전재후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재후당과 전당후재의 배치 형식은 학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남학파는 전면에 동·서재가 자리하고 후면에 강당이 있는 전재후당이다. 기호학파의 서원은 전면에 강당이 있고 후면에 동·서재가 있는 전당후재의 배치이다. 학파가 다른 것은 결국 제향인물에 따라 서원 건축의 배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5)</sup>

기호학파의 전형을 잘 나타내는 필암서원의 청절당은 확연루 방향에 판장문을 설치하여 차단한 반면 배면의 대청부분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였다. 홍암서원은 강당의 정면을 외삼문으로 향하게 하였다. 홍암서원은 노론

43)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제11집』, 2007, p.40.

44) 손봉균, 위의 글, 2003, pp.208~209.

45) 박종찬, 위의 글, 2010, p.21.

계 서원<sup>46)</sup>으로 기호지역이 아닌 영남 지역에 기호학과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호학과 서원의 배치 유형과 질충한 방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7)</sup>

### 3) 부속건물 위치

서원에서 부속건물은 제사를 위한 전사청과 도서 및 문서와 책판을 보관하는 장서각이나 장판각이 있고,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머무는 고직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밖에 서원의 이력과 제향자의 업적 등을 기록하여 기념하는 비·비각도 부속건물에 포함시켜 위치를 검토하였다. 碑閣이 없고 碑만 있을 때에도 건물의 지붕모양이나 용의 형태를 새긴 이수를 상부에 놓고, 하부는 단층기단이나 이중기단을 놓아 대부분의 碑는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사청은 주로 사당이 있는 주변에 놓이고 강당 근처에 서고와 장판각 등을 적절하게 두었다. 고직사는 강학영역 밖에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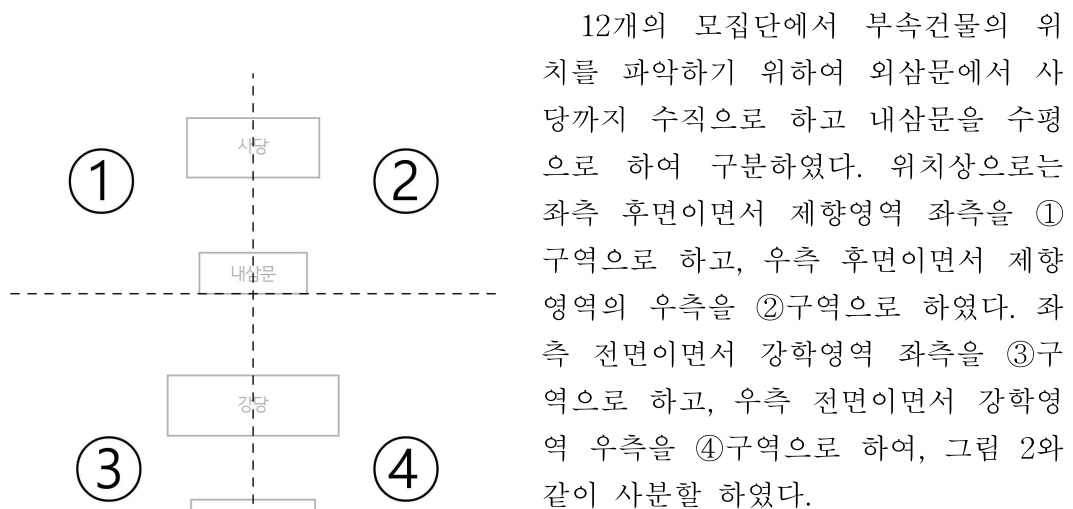


그림 2 서원영역 4분할

12개의 모집단에서 부속건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삼문에서 사당까지 수직으로 하고 내삼문을 수평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위치상으로는 좌측 후면이면서 제향영역 좌측을 ①구역으로 하고, 우측 후면이면서 제향영역의 우측을 ②구역으로 하였다. 좌측 전면이면서 강학영역 좌측을 ③구역으로 하고, 우측 전면이면서 강학영역 우측을 ④구역으로 하여, 그림 2와 같이 사분할 하였다.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은 사당영역이 강당영역보다 우측으로 축이 옮겨져 있어 강당의 세로축과 사당의 세로축이 다르다. 도산서원의 서당영역과 서

46) 경상북도, 『慶北書院誌(개정판)』, 도서출판 성심, 2009, p.356.

47) 박종찬, 앞의 책, 2010, p.54.

48) 우인수, 「한국서원의 발전 양상과 경북지역의 서원」, 『慶北書院誌(개정판)』, 도서출판 성심, 2009, p.33.

원영역은 지형으로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다.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진도문과 동·서광명실이 있는 곳부터 뒤로는 상덕사가 있는 곳까지 서원영역이다. 도산서원 부속건물의 배치는 서원영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무성서원은 불망비<sup>49)</sup>와 병오창의기적비 등 비의 개수가 총 15기이다. 1998년 도면에 보면 강당 앞쪽으로 ‘무성서원묘정비’와 ‘무성서원묘정비 창건의연방명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현가루 좌측과 우측에 비를 모아 놓았다. 무성서원 비의 위치는 현가루 좌측 첫 번째 ‘무성서원묘정비’만 碑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포함시켰다.

고직사는 같은 구역에 여러 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고직사 영역으로 묶어서 1개로 개수 하였고 보관고, 비, 전사청은 구역이 분산된 경우도 있어서 있는 숫자대로 하였다.

동·서·남·북으로 표기한 것 외에 전(앞)·후(뒤)·좌·우로 표현한 방향은 평면도를 보는 관점으로 하였고 건물의 전면을 앞으로, 건물의 배면을 뒤로 하여 서술하였다.

#### (1) 보관고의 위치

서원은 도서관이나 출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이나 책판을 보관하는 부속건물이 있기 마련이다. 장판각, 장서각, 판각, 경장각, 경판각 등을 통칭하여 보관고라 하겠다.

모집단에서의 보관고는 ①구역에 병산서원 장판각 ②구역에는 필암서원의 장판각 ③구역에는 도동서원의 장판각, 도산서원의 서광명실, 필암서원의 경장각<sup>50)</sup>, 돈암서원의 장판각, 홍암서원의 장판각이 있다. ④구역은 남계서원의 경판각, 도산서원의 장판각과 동광명실이 있다.(표 9)

표 9 모집단 서원 보관고 위치

| 보관고 없음 : 금오,무성,우저,노강,덕봉                         |   |   |                             |
|-------------------------------------------------|---|---|-----------------------------|
| 병산-장판각                                          | ① | ② | 필암-장판각                      |
| 도동-장판각<br>도산-서광명실<br>필암-경장각<br>돈암-장판각<br>홍암-장판각 | ③ | ④ | 남계-경판각<br>도산-장판각<br>도산-동광명실 |

49)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어떤 사실을 적어 세우는 비석으로 조선시대에 흔한 일이다.

50) 이상해, 앞의 책, 1998, p.94. “敬藏閣 편액은 정조의 御筆이고, 경장각 안에는 墨竹圖와 묵죽도 板이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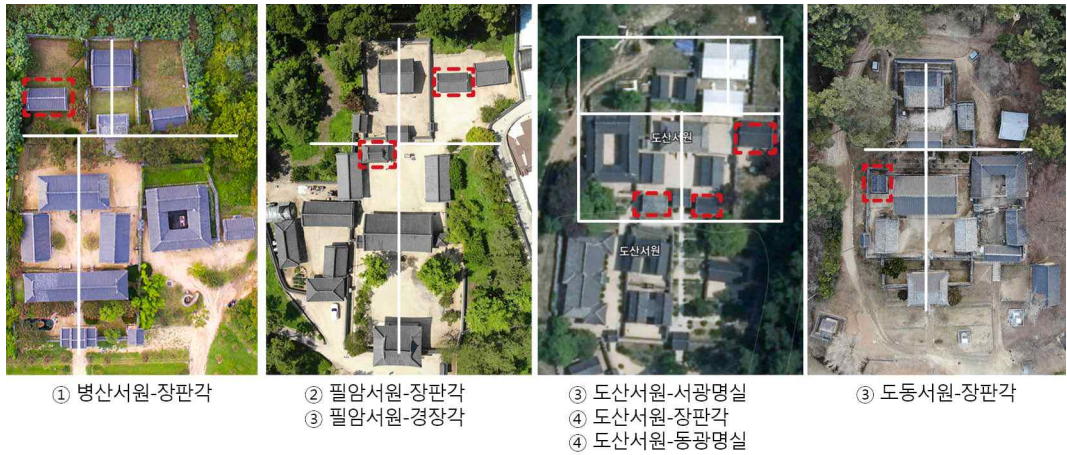


그림 3 모집단 서원 보관고 위치 /출처 : 병산서원, 도산서원 카카오키오

보관고의 위치는 서원 전체 영역에서 대체로 내삼문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강당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내삼문보다 위에 있는 병산서원의 장판각은 ①구역에 있어서 제향영역 좌측 담장 밖에 있는데 지형상 축대를 쌓아 강당위에 높게 배치되었지만 사당과는 담장이 있고 강당에서는 계단으로通行할 수 있도록 했다. ②구역에 있는 필암서원의 장판각은 제향영역과 위계를 같이하여 보편적이지 않다. 필암서원의 보관고는 내삼문 앞쪽으로 경장각이 하나 더 있는데 ②구역 사당영역 우측의 장판각은 사용빈도가 낮은 곳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은 문서를 보관하였던 장소이다.<sup>51)</sup> 도산서원의 동·서광명실은 외삼문 좌

우에 있어서 모집단에서는 유일하게 강당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긴 하나 강학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③구역 홍암서원의 장판각은 서재 좌측 담장으로 구획되었으며 ④구역에 있는 도산서원의 경판각은 강당우측 담장으로 구획 되어 강당과는 떨어진 별도의 영역을 갖는다. (그림 3)

보관고는 강학영역의 부속건물로 보아 강당 근처에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서두에 밝힌바 있다. 필암서원의 경장각, 남계서원의 경판각, 도산서원의 동·서광명실, 돈암서원의 장판각은 강학영역 안에 있고 내삼문을 넘지 않는다.

### (1) 비·비각 위치

서원의 碑는 서원의 건립에 관한 이야기 및 제향인물에 대한 공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기록하거나 왕이 내려준 어필을 기념한 碑閣 등이 있다. 碑만 세우기도 하고 석재를 보호하기 위한 閣을 세우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이동이 나타난다.

모집단 서원에서 비·비각의 위치를 보면 ①구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구역에는 우저서원<sup>53)</sup>의 碑閣이 경내에 있다. ③구역 경내에 남계서원, 노강서원이 있고 경외에 도동서원, 무성서원, 덕봉서원, 홍암서원으로 ③구역에는 6개가 분포하고 ④구역에 필암서원, 돈암서원 경내와 경외 돈암서원지비와 금오서원 송공비 등 4개가 있다.(표 10)

비·비각의 위치는 대체로 ④구역과 ③구역에 있다.

표 10 모집단 서원 비·비각 위치

| 비 또는 비각 없음 : 금오,도산,병산                  |                   |   |   |                                          |                               |
|----------------------------------------|-------------------|---|---|------------------------------------------|-------------------------------|
| 경외                                     | 경내                |   |   | 경내                                       | 경외                            |
| —                                      | —                 | ① | ② | 우저-조헌선생유허추모비                             | —                             |
| 도동-사적비<br>무성-묘정비<br>덕봉-묘정비명<br>홍암-어필비각 | 남계-묘정비각<br>노강-원정비 | ③ | ④ | 필암-계생비 <sup>52)</sup> &묘정비<br>돈암-돈암서원원정비 | 돈암-돈암서원지비<br>금오-부백김고사절송<br>공비 |

51) 박종찬, 앞의 책, 2010, p.38.

52) 이상해, 앞의 책, 1998, p.94.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

53) 조헌선생유허추모비(趙憲先生遺墟追慕碑)





② 우저서원(경내)-조현선  
생유허추모비



③ 도동서원(경외)-사적비



③ 무성서원(경외)-묘정비



③ 덕봉서원(경외)-묘정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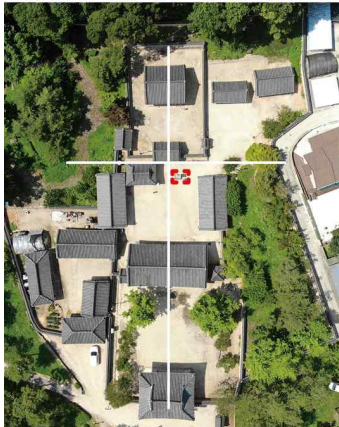
③ 흥암서원(경외)-어필비각



③ 남계서원(경내)-묘정비각



③ 노강서원(경내)-원정비



④ 필암서원(경내)-계생비&묘정비



④ 돈암서원(경내)-돈암서원지비  
④ 돈암서원(경외)-돈암서원원정비



④ 금오서원(경외)-부백김고사철송공비

그림 4 모집단 서원 비·비각 위치

비·비각은 경내와 경외에 골고루 분포하며 위치상으로 碑와 碑閣의 위치는 강당 전면을 넘지 않지만 필암서원과 같이 전당후재인 경우, 강당과 내삼문 사이의 공간이 넓어 강당 뒷면으로 있고 우저서원은 조헌선생추모비각 자체가 제향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홍암서원의 어필비각<sup>54)</sup>은 전당후재의 배치이기 때문에 위계상으로는 강당보다 위에 있지만 어필비각 영역은 서원전체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외일 수 밖에 없다.(그림 4)

이처럼 비·비각은 내삼문 전면으로 있고 더 나아가 강당 전면을 넘지 않고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 (2) 고직사 위치

고직사는 강학영역이 아닌 서원의 관리자나 서원의 일을 돕는 사람이 머물면서 생활에 필요한 창고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모집단 서원 고직사는 ①·②구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직사가 있는 9개의 서원중에 ③구역에 남계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홍암서원이 있고 ④구역에는 도동서원, 금오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이 있다. ③구역 남계서원의 고직사는 강학영역 담장 밖 좌측에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산서원은 강학영역 좌측 담장밖에 ‘口’자형으로 있다. 병산서원은 강학영역 우측에 ‘口’ 형태로 있고 서원의 진입과 같이 남향으로 출입문이 있다. 무성서원은 서원 진입하는 도로 우측에 있어 서원영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돈암서원은 외삼문과 동·서재 사이 우측 경내에 있다. 유일하게 담장으로 구획되지 않고 있지만 서원 경내에는 각 건물들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고 위계는 응도당과 같은 선에 있다.(표 11, 그림 5)

고직사는 담장으로 구획을 정하고 강학영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서원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동이 있기도 하고, 한 개의 동으로 있기

표 11 모집단 서원 고직사 위치

| 고직사 없음 : 우저,노강,덕봉,   |   |   |                            |
|----------------------|---|---|----------------------------|
| —                    | ① | ② | —                          |
| 남계<br>도산<br>필암<br>홍암 | ③ | ④ | 도동<br>금오<br>병산<br>무성<br>돈암 |

54) 1716년 숙종이 하사한 어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碑閣이다.





③ 남계서원



③ 도산서원



③ 필암서원



③ 흥암서원



④ 도동서원



④ 금오서원



④ 병산서원



④ 무성서원



④ 돈암서원

그림 5 모집단 서원 고직사 위치/출처: 병산서원, 도산서원 카카오키오



도 하다.

### (3) 전사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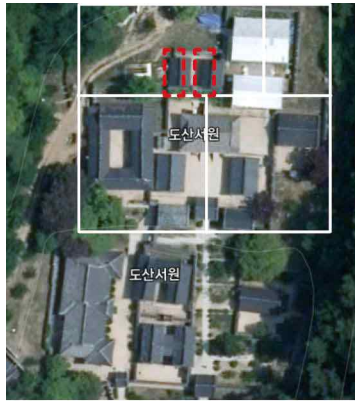
전사청은 제향을 위해 제례를 담당하고 그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모집단에서 무성서원, 우저서원, 노강서원, 덕봉서원은 전사청이 없다. 금오서원, 홍암서원은 1998년 『서원』 도면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 있다. 전사청이 있는 7곳의 서원 중 ①구역에는 도산서원의 주청과 제기고가 있고 필암서원 전사청이

있다. 도산서원의 제향영역 좌측 담장 밖으로 주청과 제기고가 2동으로 나란히 있다. 필암서원의 전사청은 제향영역 좌측 담장에 걸쳐 있다. ②구역에 남계서원, 도동서원의 증반소(蒸飯所), 금오서원, 병산서원, 홍암서원의 전사청이 있고 남계서원을 제외한 4곳은 제향영역 우측 담장 밖에 있다. 남계서원, 도동서원, 금오서원의 전사청은 사당과 직교하는 형태로 전사청 정면이 내삼문과 사당사이 마당을 바라보고 있고, 병산서원과 홍암서원은 사당과 같은 방향으로 정면이 오도록 하였다. ③구역에는 없다. ④구역에는 도동서원, 돈암서원이 있다. 도동서원의 전사청은 사당 우측에 ‘ㄷ’자 형태로 앞쪽이 열려있으며 전사청 건물이 강학영역과 구분 지어 나누어 준다. 마찬가지로 돈암서원도 강당 우측 담장 밖에 있으며 ‘ㄱ’자 형태로 건물이 있고 앞쪽으로 고직사가 있다. 고직사 영역보다 후면에 있어 제향영역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사청의 위치는 사당에서 제향을 할 때 필요한 부속건물로 사당이 전체 영역에서 후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전사청도 대체로 ①구역과 ②구역에 사당 좌측이나 우측에 있다. 도동서원과 돈암서원 같이 ④구역에 있을 때에도 고직사 보다는 위계를 높게 하여 배치하였다.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은 제향영역 담장 안쪽에 있고 그 외 서원은 제향영역 담장 바깥으로 전사청을 배치했다.

표 12 모집단 서원 전사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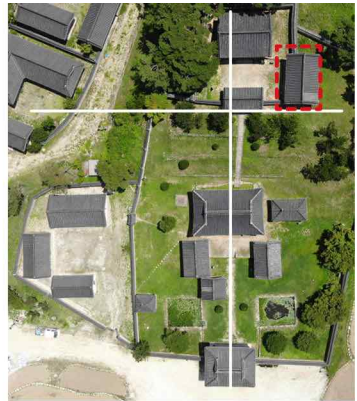
| 전사청 없음 : 무성,우저,노강,덕봉 |   |   |                                            |
|----------------------|---|---|--------------------------------------------|
| 도산-주청과 제기고 필암        | ① | ② | 남계<br>도동-증반소<br>금오-1998×<br>병산<br>홍암-1998× |
| —                    | ③ | ④ | 도동<br>돈암                                   |



① 도산서원 주청과 제기고



① 필암서원



② 남계서원



② 도동서원 증반소  
④ 도동서원 전사청



② 금오서원



② 병산서원



② 홍암서원



④ 돈암서원

그림 6 모집단 서원 전사청 위치

### III. 경주지역 서원의 전개과정

경주지역 서원의 건립연도 및 훼손연도 등 각 서원의 개요를 비롯하여 외삼문에서 사당까지 이어지는 중심 축선상의 건축물 및 齋舍 현황을 서원의 건립순서대로 서술하였다. 경주지역 서원의 배치변화는 도면 및 항공사진에서 신축되거나 도면상의 위치변화를 파악하였다. 국가기록원의 1984년 도면인 서악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용산서원, 운곡서원, 경산서원 등 6개 도면<sup>55)</sup>, 2009년 발행된 『慶北書院誌(개정판)』 도면<sup>56)</sup>, 항공사진을 비교하였다.<sup>57)</sup>

#### 1. 경주지역 서원 현황

##### 1) 초창기

##### (1) 서악서원

서악서원은 경북 경주시 서악2길 23에 있다. 1561년(명종 16)에 경주부윤 이정이 김유신을 기리기 위해 서악정사를 건립하였다. 당시 경주지역 선비들은 신라 10현(十賢)을 받들고 있는 중에 설총과 최치원도 같이 모시기를 건의하여 삼현(三賢)을 모셨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600년(선조 33)부윤 이시발에 의해 중수되고 1610년(광해군 2) 부윤 최기가 사당, 강당, 재사, 장서실 등을 중창하며 1623년(인조 1) 서악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서악서원 편액은 원진해(元振海)가 썼다. 1646년(인조 24)에 부윤 이민환(李民奭)이 영귀루를 중건하였다.<sup>58)</sup>

경내에는 외삼문인 도동문, 누각인 영귀루, 강당인 시습당, 동재와 서재, 내삼문, 사당이 있고 부윤 구암선생 비각이 있다. 그 외 전사청과 제기고가 있고 고직사에 4개동이 있으며 강당 앞으로 2기의 정료대가 있다.

55) 국가기록원 DA0219257, 문화재청, 「전국 문화재 건조물 현황 실태조사서: 서악서원18」, 1984, pp.119~124. ; 국가기록원 DA0219232, 문화재청, 「전국 문화재 현황 실태조사서:동강서원 경북 555, 경산서원 경북 556, 운곡서원 경북 557, 용산서원 경북 558, 구강서원 경북 559」, 1984, pp.1923~1946.

56) 『慶北書院誌(개정판)』는 2009년 발행이지만 2007년에 초판을 발행하여 도면의 연도는 2007년으로 하였다.

57) 배치변화에서 1984년 도면은(그림번호-1), 2007년 도면은 (그림번호-2), 항공사진은 (그림번호-3)로 표기하였다.

58) 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西岳地域地表調査報告書』, 毎日原色精版社, 1994, p.349.

외삼문인 도동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민도리계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 1단이고 초석은 팔각형이다. 전면과 후면 기둥은 원형이고 가운데 문이 달린 기둥은 방형이다.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영귀루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치석한 장대석 1단이며 초석은 방형초반과 원형초반이 섞여있고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동재와 서재는 크기가 같고 마주보며 대칭으로 있다. 정면 5칸 측면 1칸이고 민도리계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 1단 위에 장대석을 덮었고 초석은 자연석이다. 서재의 평면구성은 어칸과 좌측 협칸은 마루이고 좌측 퇴칸과 우측 협칸, 퇴칸은 방이다. 동재는 어칸과 우측 협칸이 마루이고 좌측 협칸, 퇴칸, 우측 퇴칸이 방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시습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3단이고 중앙에 계단이 있다. 초석은 방형과 원형 초반이 섞여있는 원형초석이며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측 협칸은 진수재(進修齋)와 좌측 협칸은 성경재(誠敬齋)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주칸 사이 창방위에 화반이 있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한 단과 그 위 상면은 갑석이고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다. 기둥은 원형이고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기단과 가구식 기단이 섞여있는 변형된 가구식 기단으로 기단의 좌우 끝은 우주가 있고 탕주는 없다. 전저후고의 지면위에 정면에는 3단의 장대석 위에 갑석을 덮었고 갑석은 정면과 좌우에만 있으며 후면에는 2단의 장대석만 있다. 기단 앞으로 2개의 계단이 있다.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건물초석과 석물이 서원 주변 옛 사지(寺止)터를 사용하고 부윤 구암 이정 선생비는 해방후에 새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9)</sup> 강당 마루를 오르는 디

59)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攬 中卷』, 天豐印刷株式會社, 1977, p.72. “書院內 建物礎石은 永慶(敬)寺址에 遺存하던 石물을 移動하여 主礎石으로 使用하였으며 明倫堂 앞에 石燈石 下臺

덤돌 및 동·서재의 기단과 강당 기단을 연결하는 석재는 이전에 사용한 부재를 가져왔다. 내삼문 기단의 우측 끝은 탑의 귀틀석이고, 강당·내삼문·사당의 초석들은 대부분이 통일신라의 초석을 재사용하였다.

## 2) 발전기

### (1)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에 있다. 1573년(선조 6) 회재 이언적을 기리기 위해 부윤 이제민과 이언적의 제자 권덕린 등의 힘으로 건립하여 서악서원 향현사에 있던 이언적의 위패를 모셔왔다. 1574년 ‘옥산’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아계 이산해가 편액을 썼다. 1838년(헌종 4) 화재로 구인당 소실 후에는 추사 김정희가 편액을 다시 썼다.

외삼문인 역락문, 무변루, 서재와 동재, 강당인 구인당, 내삼문인 체인문, 사당인 체인묘가 있다. 이언적 신도비가 경내에 있고, 경각과 문집판각이 있으며 고직사 영역에는 창고, 포사 등 4동이 있다. 옛 진입로에는 하마비가 있고 강당 앞에는 1기의 정료대가 있다.

외삼문인 역락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막돌 허튼쌓기이고 기단 앞에 5단의 계단이 2개가 있는데 삼문의 중앙문과 우측 문 앞에 있다. 초석은 자연석이며 기둥 전면과 후면은 원형기둥이고 가운데는 방형이다.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무변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이고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한 단이고 초석은 자연석이다.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이며 양 퇴칸 옆으로 1칸씩 보첩(補添)형식으로 누마루를 만들었다. 기둥 전면과 후면은 원형이고 가운데에는 방형이며 기둥의 굵기도 일정하지 않다.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이다.

동재인 민구재와 서재인 암수재는 같은 크기이며 마주보고 좌우 대칭으로 있다.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거칠게 치석된 자연석으로 1단이고 초석은 자연석이다. 동재는 어칸과 좌측 협칸, 우측 퇴칸은 방이고 좌측 퇴칸과 우측 협칸이 마루이다. 서재는 어칸과 우측 협칸, 좌측 퇴칸이 방이고 좌측 협칸, 우측 퇴칸이 마루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

石, 竿柱石, 上臺石 등이 있다. 解放後에 세운 李楨府尹 崇德碑가 있다.”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구인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아래 자연석이 있는 혼합기단이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다.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으로 온돌이 있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인 체인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 앞으로 5단의 계단이 2개 있는데 자연석 축대를 쌓아 좌측계단 좌측은 정렬쌓기 하고 좌측계단 우측으로는 허튼쌓기를 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인데 체인문 안쪽 두 개의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체인묘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2단을 쌓고 위에 면석과 갑석을 올렸으며 기단 앞으로 2개의 계단이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고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이다.

### 3) 남설기

#### (1) 구강서원

구강서원은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79에 있다. 1692년(숙종 18) 고려 공민왕 때 인물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1871년(고종 7)에 훼손되고 1904년에 지방 유림에 의해 복설되었다. 경각은 1961년에 중수하였고<sup>60)</sup> 현재 ‘장서각’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각’으로 하겠다. 경각 우측으로 2000년에 동재인 시술재를 중수하였다.

외삼문인 종앙문 서재인 시준재, 강당인 적취당, 내삼문, 사당인 문시묘가 있고, 전사청이 있으며 경각과 시술재가 있다. 관리사 영역에 4개동이 있다. 강당 앞에 정료대 1기와 관리사 영역에 정료대 1기가 있다.

외삼문인 종앙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막돌 정렬쌓기로 하여 계단식이고 초석은 막돌초석이며 기둥은 방형이다.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6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北部地域地表調査報告書Ⅱ』, 한독인쇄, 1997. p.20.

서재인 시준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막돌로 1단 정렬쌓기 하고 초석은 치석된 원형초석이다. 기둥은 방형이고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적취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보수된지 오래지 않은 4단의 장대석인데 상면은 앞으로 돌출하여 갑석처럼 마감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원형운두가 있는 원형 초석이다.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이다. 기둥 전면은 원형이며 후면은 방형이다.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전면 기단은 장대석 3단인데 상면은 갑석처럼 돌출됐고 후면은 1단으로 된 막돌이다. 초석은 자연석인데 전면 가운데 두 개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이며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문시묘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석·면석·갑석으로 3단이며 기단 앞으로 좌우에 계단 2개가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며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과 내삼문 사이 좌측에는 탑의 부재인 옥개석과 기단석들이 흩어져 있고, 방형초반에 원형운두가 있는 통일신라식 초석이 적취당·내삼문·문시묘에서 눈에 띈다.

## (2) 동강서원

동강서원은 경주시 강동면 유금강정길 40-25에 있다. 1695년(숙종 21) 우재(愚齋) 손중돈(孫仲墩, 1463-1529)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868년(고종 5)훼철되었다가 1870년 다시 복향하고 1925년에 활원재를 복원하였으며 1960년 사당, 강당, 신문 등을 복원하였다. 1986년 동재, 서재, 비각을 복원하고 1999년에 탁청루를 복원하였다.

경내에는 문루인 탁청루, 동재인 궁리재, 서재인 진성재, 강당인 순교당, 내삼문, 사당인 숭덕사가 있고, 활원재, 고직사, 전사청이 있으며 경각인 2칸짜리 건물이 있다. 진입로에는 하마비와 신도비각이 있으며 강당 앞에는 정료대 1기가 있다.

문루인 탁청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

단은 막돌 1단이고 초석은 자연석이며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이다.

동재인 궁리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이고 초석은 방형이며 기둥은 방형과 원형이 혼용되어 있다.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서재인 진성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 이고 초석은 방형인데 일부는 함몰되어 보이지 않는다. 기둥은 방형과 원형이 혼용되어 있고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순교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이며 상면은 전돌이 있다. 초석은 전면은 원형이고 후면은 방형이다.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이다. 기둥 전면은 원형이며 나머지는 방형이다. 공포는 직절익공이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이며 상면은 전돌을 깔았다. 초석은 자연석이며 기둥은 전면과 후면은 원형이고 가운데는 방형이다.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승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 5단을 정렬쌓기하고 기단 앞으로 좌우 계단 2개가 있다. 초석은 자연석 이며 기둥 전면과 후면은 원형이고 가운데는 방형이다. 공포는 초익공 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 (3) 용산서원

용산서원은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110-34에 있다. 1699년(숙종 25)에 잠와(潛窩) 최진립(崔震立, 1568-636)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방유림의 공의로 경주부윤 이형상(李衡祥)이 건립하여 용산서원으로 계호(揭號)하였다.<sup>61)</sup> 1871년(고종 7) 훼손되었다가 1903년 설단하여 향사를 지내고 1963년 유림들에 의하여 복원되었다.

강당이 진입하는 전면에 있고 지형을 이용하여 사당을 뒤에 높게 배치한 전학후묘를 따르고 있다. 서원 경내에는 외삼문인 식강문과 강당인 민고당이

61) 『與地圖書 下0338-4(한국자료총서 제20집) 慶尙道 慶州 壇廟』, “崇烈祠創建辛卯 賜廟額崇烈祠宇 廷 額後士林揭號日龍山書院有講堂日敏古南北兩來日興仁明義兩齋日好德遊藝門日植綱藏書閣在講堂南”.



있고, 민고당 후면으로 내삼문과 사당이 있으며 사당이 있는 제향영역 안에 전사청이 있다. 강당 우측으로 4동의 고직사 영역이 있는데 외삼문을 닫고 고직사 영역으로 출입하고 있다. 강학영역에는 동재와 서재가 없다.

외삼문인 식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5단의 계단으로 하고 초석은 자연석이다. 기둥은 방형이고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민고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4단이고 중앙에 계단이 있다. 초석 전면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며 후면은 자연석이다.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이익공이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이고 초석은 원형초반에 원형운두가 있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숭렬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이 5단인데 맨 위 상면은 갑석이고 기단 앞으로 계단 2개가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고 후면 초석은 자연석도 있다. 기둥은 원형이고, 공포는 이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 (4) 직천서원

직천서원은 경주시 안강읍 대동길 176-15에 있다. 직천서원은 수암 정사진을 배향한 곳으로 정사진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 2) 입암서원에 여헌 장현광을 독향하고 그의 문인들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영천 직천에 정사진만을 배향하였으나 1867년(고종 4)에 훼손되고 1939년 영천 임고면 우향동에 직천서당을 건립하였다. 정사진의 묘를 안강으로 옮겨 모시면서 1979년 경주의 향의에 의해 정사진의 묘소 아래 서원을 건립하고 옛 직천서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62)</sup>

내삼문인 수제문, 강당인 양정당, 강당의 동편에는 보인재<sup>63)</sup>, 내삼문인 비덕문, 사당인 숭학사가 있다. 서원의 좌측으로 고직사 한 개동과 외삼문 앞 우측으로 禊川書源廟定碑가 있다.

62) 조철제, 『慶州 儒敎文化 遺蹟』, 경주향교, 대보사, 2010, pp.99~100.

6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위의 글, 1997. p.24. “講堂 동편에는 永川에서 옮겨 온 輔仁齋가 있다.”.

외삼문인 수계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다. 기단에서 문 바깥쪽은 시멘트이고 문 안쪽으로는 자연석 1단을 치석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이고 기둥은 원형이다. 솟을대문 형식이며 좌우 문간채와 담장이 연결되어 있다.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이며 민도리게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치석된 자연석 1단이며 초석은 자연석이다. 정면 4칸이 모두 방처럼 문이 달렸는데 문 높이가 모두 다르다. 기둥은 방형이며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양정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전후퇴집이며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치석한 방형 자연석 위에 재활용 장대석과 탐부채로 1단을 더하고 중앙에 계단이 1개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다. 전면 기둥은 원형이며 후면은 방형이다. 공포는 전면이 물익공이고 후면은 민도리이며 5량가이다.

내삼문인 비덕문은 정면 3칸에 측면 1칸 민도리게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과 초석이 없으며 방형 조적식 기둥이다.

사당인 송학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다. 기단 전면은 치석한 자연석 3단이고 경사져 있어서 후면으로 가면 1단으로 줄어든다. 초석도 전면은 방형초반과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며 자연석 초석이 섞여있고 후면은 방형에 높이가 높은 장주 초석이다. 기둥 전면은 원형이고, 후면은 방형기둥이다. 공포 전면은 초익공이고 후면은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의 기단에는 탑의 면석과 탕주가 함께 있는 부채와 귀틀석이 있고 양정당과 송학사에는 방형초반에 원형운두가 있는 재활용 초석을 많이 사용하였다.

#### 4) 쇠퇴기

##### (1) 장산서원

장산서원은 안강읍 옥산서원길 377-264)에 있다. 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의 서자인 잠계(潛溪) 이전인(李全仁, 1516-1568)을 봉향하는 서원으로서 1780년

---

64) 장산서원의 위치는 정혜사지에서 북쪽으로 43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정조 4)에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sup>65)</sup>에 章山祠라는 사우를 건립했다가 1797년(정조 21) 10월 인동향교에서 승원(陞院) 발의 된 후 1798년(정조 22) 3월 1일에 개액식을 거행하고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1868년 대원군 서원철폐 때에 훼철되고 2006년 11월 30일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복원되었다.

외삼문인 초요문, 동재인 심고재(尋古齋), 서재인 지사재(志思齋)가 있다. 장산서원 편액이 걸린 지습당(智習堂)과 사당인 선계묘(善繼廟), 경각이 있다.

외삼문인 초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잘 가공된 장대석으로 2단 이고,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 초석이다. 기둥은 원형이고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동재인 심고재와 서재인 지사재는 같은 크기로 마주보고 있으며 대청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기단 1단이 있고 초석은 방형이며 기둥도 방형이다. 공포는 직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지습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에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장대석 기단이고, 상면에는 갑석처럼 앞으로 돌출시켰으며 전면에 5단의 계단이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 초석이다. 어칸과 양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이익공이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잘 치석된 장대석으로 2단이며 기단 앞으로 2단의 계단이 2개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초석이며 기둥은 원형기둥이다.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선계묘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3단이며 사당 좌우 공간은 단을 낮추어 위계를 두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 (2) 운곡서원

운곡서원은 경주시 강동면 사라길 79-19번지에 있다. 운곡서원은 안동권씨

65) 채광수, 위의 글, 2017, p.116. “1779년(정조 3) 7월 이전인의 묘소가 있는 경주부 北安面 守城洞 天章山 아래 터를 잡아 孫守九가 지은 고유문으로 廟宇開基를 하였다.”

시조인 권행(權幸)을 배향하기 위해 1784년(정조 8)에 추원사(追遠祠)로 창건하고, 참판 권산해(權山海), 군수 권덕린(權德麟)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다가 1930년 설단하여 향사를 지내고 1976년 현 위치에 복원하였다.

운곡서원은 외삼문인 견심문(見心門)과 동재인 돈교재(敦敎齋), 서재인 잠심재(潛心齋), 강당인 정의당(正懿堂)이 있고, 내삼문을 지나 사당인 경덕사(景德祠)가 있다. 제향영역 담장 좌측으로는 神道碑閣이 있다. 강학영역 담장 밖 좌측으로는 관리사 영역이 ‘ㄱ’자형으로 1개 동과 2개동이 ‘口’자 형으로 중정을 이루고 있다. 서원영역 외에 유연정과 갈산공기적비<sup>66)</sup>가 있다.

외삼문인 견심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이고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과 자연석 방형 초석이 섞여 있다. 기둥은 방형이며 공포는 직절익공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동재인 돈교재와 서재인 잠심재는 같은 크기로 마주보며 대칭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1단이고 초석은 자연석 방형이다. 어칸은 마루이고 좌우 퇴칸은 방이다. 기둥은 방형이고 공포는 직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정의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정면은 자연석 허튼쌓기 2단이고 상면은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원형운두가 있는 원형초석과 방형 초석이 섞여 있다. 어칸과 좌우 협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이다. 기둥은 원형이고 공포는 이익공이고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2단으로 1단인 계단이 2개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방형이다. 공포는 직절익공이고 측면에는 판대공이 있으며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경덕사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4단을 정렬쌓기 하였으며 양쪽에 계단이 2개 있다. 기단 좌우로 기단 폭을 줄이기 위해 공사한 흔적이 남아있다. 초석은 초반이 자연석이며 운

66) 갈산 권종락(갈산권종락, 1745~1819)은 죽림 권산해의 12세손이다. 1784년 추원사(追遠祠)를 창건한 인물이다.

두가 높은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가구는 5랑가이다. 사당지붕은 맞배지붕에 없는 층량이 있어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수리한 것을 알 수 있다.<sup>67)</sup>

운곡서원이 있는 자리는 “密谷”이라는 와편이 확인되어 문헌과 지명이 알려져 있다. 문헌상 조선후기까지 사찰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추원사 건립 시기와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다.<sup>68)</sup> 강당인 정의당(正懿堂) 양 협칸 앞쪽으로 있는 디딤돌은 턱이 있고 은장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어 재사용한 부채임을 알 수 있다. 강당 정면과 외삼문의 초석은 방형초반에 원형운두가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초석이다.

### (3) 구산서원

구산서원은 경주시 현곡면 구산서원길 71-12에 있다. 1786(정조10)년에 ‘귀산사’를 설립하고 양경공 서유의 위패를 모셨다. 1839년(헌종 5)에 ‘구산’이라고 사액되었고, 1848년에 서일원(서인원)을 추가 배향하였다. 1983년 복원하고 서필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996년에는 서사적을 추가 배향하였다. 2005년에 낡은 비각을 재정비하고 주변 조경을 보완하여 복원을 완료하였다.

현재 있는 건물은 외삼문의 위치에 회성문이 있고 서재의 자리에는 구산문화관이 있다. 강당인 재락당이 있고 숙흥재(夙興齋)·일신재(日新齋) 편액은 강당 좌우 4칸에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sup>69)</sup> 내삼문인 유의문과 사당인 상충사가 있다. 전사청, 어서각, 장서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찾아 볼 수 없다.<sup>70)</sup>

강당인 재락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고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상면도 대리석으로 깔았다. 기단 앞으로 4단의 계

67) 배병선, 「多包系 맞배집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156. 참조.

68) 밀곡사지, [http://gis-heritage.go.kr/common/gis\\_lt/gisLTView.do?lostSeid=LT10601](http://gis-heritage.go.kr/common/gis_lt/gisLTView.do?lostSeid=LT10601).

69) 경상북도, 위의 글, 2009, pp.137~138.

70) 구산서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4806&cid=46615&categoryId=46615>, 검색일 : 2019.8.25.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묘우·재락당(齋樂堂), 4칸의 숙흥재(夙興齋)·일신재(日新齋)·유의문(由義門), 3칸의 전사청(奠祀廳), 2칸의 어서각(御書閣), 3칸의 장서각(藏書閣), 신도비각(神道碑閣) 등이 있다. 묘우의 중앙에는 서유의 위패가, 오른쪽에는 서인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재락당은 강당으로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으며 원내의 여러 행사와 회합 및 학문의 토론 장소로 사용 된다. 숙흥재와 일신재는 유생들이 공부하고 거처하는 곳이며 전사청은 향례 때 제수를 마련하여 두고 제수를 보관하는 곳이다. 어서각에는 태종의 친필이 보관되어 있으며 장서각은 서적을 보관하여 두는 곳이다.”

단이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이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이다.

내삼문인 유의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대리석으로 마감하였고 기단 앞으로 9단의 계단이 2개 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초석이고 기둥은 원형이다. 공포는 초익공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사당인 상충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대리석으로 마감처리 하고 상면도 갑석처럼 대리석을 덮었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높은 원형초석이다. 기둥은 원형이고 공포는 이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외삼문 자리에 있는 회성문은 조적식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지붕의 형태가 가운데 칸을 높게 한 솟을대문형식이다. 서원 전체영역을 진입하는 곳에서 높게 하여 회성문은 2층 계단으로 오르도록 하고 1층은 문을 달아 공간을 만들었다. 문 양쪽으로는 문간채 형식이다.

서재 자리에 있는 구산문화관은 조적식 건물로 정면 7칸 측면 3칸이다. 서원의 형태로 보면 서재 자리에 있지만 서재라고 할 수 없다. 출입은 후면으로 하며 출입하는 쪽에서 보면 2층 건물이다.

경내에는 탑신과 갑석, 기단석 등 석탑부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 (4) 경산서원

경산서원은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55번으로 양동마을 안에 있다. 무첨당(無忝堂) 이의윤(李宜潤, 1564~1597)을 배향하기 위하여 1838년(헌종 4) 강동면 오금리 낙산에 건립하고 1857년(철종 8) 구경리에 이건하였다가 1870년(고종 7) 금령에 의해 훼손되었다. 1918년 강당을 중건하고 복향하였으나 1970년 안계리 댐 건설로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웠다. 구경리로 옮겨 지은 건물은 사우인데 구경춘 경산이란 산에 술현사(述賢祠)로 창건하였고 일반적으로 경산사(景山祠)라고 불렀다.<sup>71)</sup> 현재는 景山書堂 편액이 걸려있고 『慶北書院誌(개정판)』와 「전국 문화재 현황 실태조사서 : 경산서원 경북 556」는 ‘경산서원’으로 명명하고 있다. 『慶州邑誌』에는 술현묘<sup>72)</sup>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71) 조철제, 「경산서당」, 『慶州文化論叢』 제18집, 2015, p.184.

72) 백상승·김태중, 『국역 경주읍지』, 경주시·경주문화원, 세종인쇄출판사, 2003, p.233. 『국역 경주읍

지금은 사당이 없다.

경산서원은 외삼문인 구도문과 동재, 강당인 이선당이 있고 관리사 영역에는 대문채, 안채, 곳간채 3동으로 있다.

외삼문인 구도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치석한 돌로 2단을 정렬쌓기 하고 초석은 막돌이다. 기둥은 삼문 안쪽은 원형이고 바깥쪽은 방형기둥이며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치석된 돌을 3단으로 정연하게 쌓고 초석은 막돌이다. 어칸은 마루이고 양 퇴칸은 방으로 양지재, 학진재라는 편액이 있다. 기둥은 방형이며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지붕 박공 아래쪽으로 지붕을 덧 달았다.

강당인 이선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치석된 5단을 정렬쌓기 하고 그 위 상면은 장대석을 놓았다. 초석은 방형초반에 운두가 있는 원형초석이다. 기둥은 전면이 원형이고 후면은 방형이다. 공포도 정면과 후면은 이익공이고 측면은 초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이다.

#### (5) 단구서원

단구서원은 경주시 강동면 단구서원길 8-1에 있다. 단구리에 사는 후손들이 송와(松窩) 이종윤(李從允, 1431~1494)을 추모하기 위해 보원정(報遠亭)을 건립하고, 1862년(철종 13)에 모현사(慕賢祠)를 지어 향사를 지냈으나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1927년에 모현서당을 건립하고 모현사를 같이 세워 제향하였으며 1983년에 단구서원으로 승호하였다.

단구서원은 외삼문인 열호문(悅乎門), 동재인 경모재, 서재인 양진재, 강당인 송광당, 사당인 경현사가 있고, 비석 2기가 있다. 지금 서재로 있는 경모재와 동재인 양진재는 칸수가 달라 좌우대칭이 되지 않는다. 모현서당이 신광산에 있다가 옮겨올 때 서재인 양진재는 옮겨왔는데 신광산에 있을 때 제를 지내던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서재자리에 두고 사당인 경현사를 새로 신축하여 향사를 이어갔다고 전한다.

외삼문인 열호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민도리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1단이고 초석은 자연석이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

지』는 1932년에 석인본으로 간행한 『慶州邑誌』를 저본으로 국역하였다.

동재인 경모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 허튼쌓기와 흙을 혼합하였고 초석은 자연석이다. 가운데 2칸은 마루인데 문이 달려있고 좌우 양 끝칸은 방이다. 기둥은 원형이고 공포는 민도리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서재인 양진재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민도리게 홀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 허튼쌓기와 흙을 혼합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이며 가운데 2칸은 마루이고 좌우 2칸씩은 방이다. 마루에는 ‘모현서당’ 편액이 걸려있다. 기둥은 원형이며 공포는 민도리이고 가구는 3량가이다.

강당인 숭광당은 정면 4칸 측면은 1칸인데 우측 끝칸 앞으로 누마루를 내어 2칸이 되고 위에서 보면 ‘ㄱ’자형으로 꺾인 집이다. 홀처마 팔작지붕이고 기단은 자연석 3단을 정렬쌓기 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이고 5개의 활주 중 누마루 활주 2개는 사다리형 장주초석이며 3개는 자연석이다. 기둥은 방형인데 강당 정면 2칸과 3칸 사이 기둥과 누마루의 기둥만 원형이다. 공포는 민도리이고 누마루의 공포는 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내삼문인 상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 칸만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시멘트이고 초석은 치석한 방형이며 기둥도 방형이다. 공포는 가운데 칸만 민도리이고 양 끝칸은 도리에 지붕만 덮은 형태로 부연만 있다.

사당인 경현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자연석과 시멘트가 섞여있고 초석은 정면과 후면은 원형초석이고 가운데는 방형초석이다. 기둥 전면과 후면은 원형이고 가운데는 방형이다. 공포는 직절익공이며 가구는 3량가이다.

## 2. 경주지역 서원 배치변화

옥산서원은 큰 배치변화 없어 청분각의 해체만 확인 되었다. 직천서원은 영천에 있다가 1979년 이전하였고, 운곡서원도 조선시대 추원사 자리에 1976년 복원하였으며 2007년 이후 신도비각이 새로 건립되고, 관리사 구역이 새로 나타는 등의 변화가 있다. 구산서원은 초석하나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현대식 한옥을 새로 지은 건물이고, 경산서원도 1970년에 이전하여 새로 지은 건물이다. 단구서원은 1983년 사당인 경현사를 새로 건립하고 서원으로 승호하였고 1985년 발행한 『단구원지丹邱院誌』의 사진으로 碑의 위치 변화가 확



인되었다. 장산서원은 정혜사지 북쪽으로 400여미터 떨어진 곳에 2006년에 새롭게 복원하여 옛 서원의 형태는 알 수 없고 원 터전에는 장산서원유허비(章山書院遺墟碑)와 1780년 건립당시 식수한 나무 두 그루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1) 초창기

### (1) 서악서원

서악서원은 정동향<sup>73)</sup>으로, 전면에는 평지에 있는 민가가 보이며 북서쪽으로는 선도산이 있다. 외삼문과 강당, 내삼문과 사당을 중심축으로 하고 외삼문과 강당 사이에 영귀루(詠歸樓)가 있으며 영귀루 우측으로 서악서원을 세운 주역인 부윤 구암 이정 선생의 碑가 있다. 시습당 앞쪽으로 2개의 정료대가 있고 동재와 서재가 마주하고 있다. 서재로 영역을 구분하여 서재의 뒤편으로 관리사 영역이 있으며 내삼문과 사당 우측으로 전사청이 있다. 서악서원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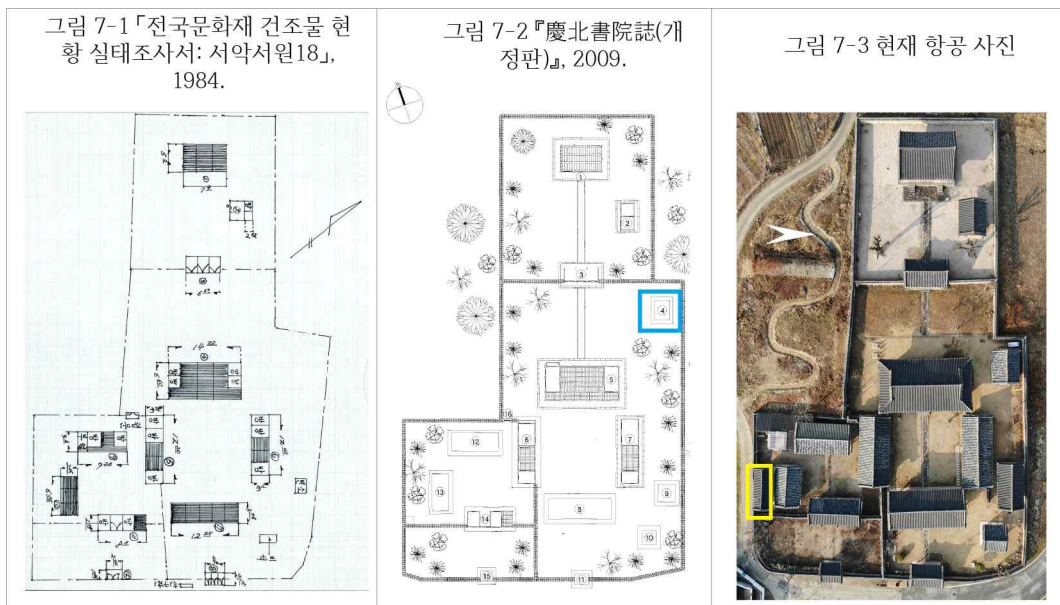


그림 7 서악서원 배치변화

73) 그림 7-1은 남동향, 그림 7-2는 남서향으로 표기되었으나 필자는 동향으로 확인 됨.

치변화는 그림 7과 같이 확인되며 1984년에서 2007년 사이 제기고를 신축하였고 2007년 이후에 관리사 영역 수장고 뒤편에 새로운 건축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발전기

### (1)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서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서쪽 멀리에 자옥산이 보이고 옥산서원 앞으로는 자계천이 흐르고 있으며 체인묘 뒤흘은 아래산 자락이 연결되어 있다. 역락문(亦樂門), 무변루(無邊樓), 구인당(求仁堂), 체인묘(體仁廟)까지 한 축을 이루고 여러 단으로 구성하여 체인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도록 했다. 축대를 쌓고 담을 놓아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좌우로도 대략 축을 맞추었는데 무변루 우측은 터를 비워 두고 구인당과 동재 서재가 있는 강학영역은 우측 민구재 뒤편으로 관리사 영역과 구분되어 있다. 구인당 앞 민구재 방향으로 1개의 정료대가 있다. 체인묘가 있는 제향영역 좌측에 神道碑閣이 있고 우측으로는 경각과 문집판각이 있다.

옥산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8과 같이 확인되며 2007년 도면(그림 8-2)에는 청분각이 담장을 둘러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항공 촬영한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청분각은 1972년 옥산서원과 독락당의 서책과 책판을 보관하기 위해 후손들이 새로 건립하였었다. 2006년부터 옥산서원 남쪽 250m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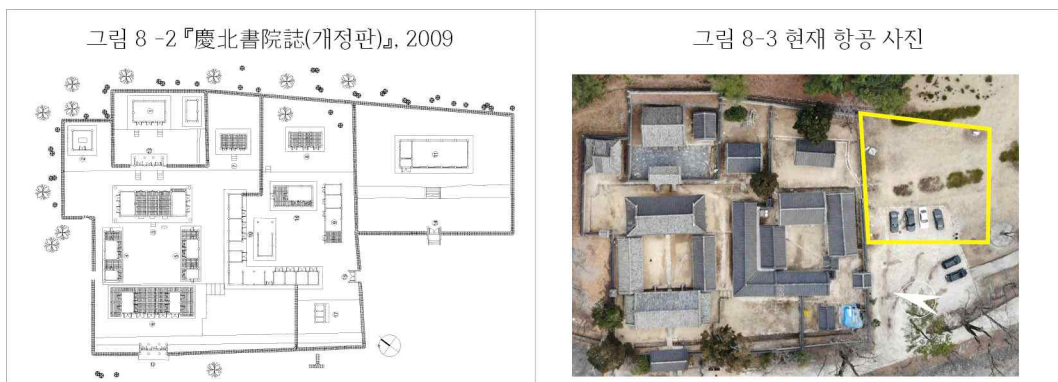


그림 8 옥산서원 배치변화

진 곳에 경주에서 유물전시관을 짓기 시작하여 2010년 준공하였다. 준공당시 청분각은 이미 해체되고 없었다.<sup>74)</sup> 그림 9,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책과 책판 보관용도였던 청분각은 유물전시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림 9 옥산서원 청분각 해체 전 모습 /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 방안』,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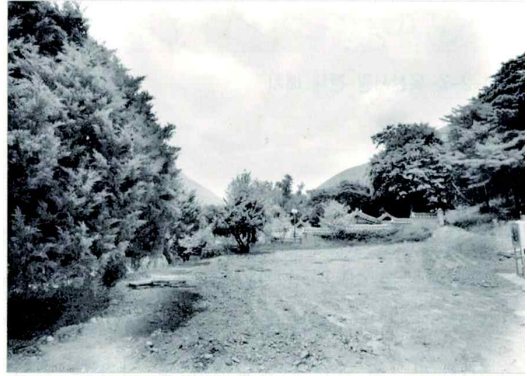


그림 10 옥산서원 남쪽 해체된 청분각 자리 /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 방안』, 2010.

옥산서원의 신도비는 처음 옥산서원 앞 개울 위에 건립되었으나 이후 서원 경내로 옮겼다.<sup>75)</sup> 옥산서원 신도비각은 1577년(선조 10) 관찰사 박소립의 노력으로 서원 서편 용추(龍湫)위에 신도비를 세웠다. 지금은 서원 경내 체인문 좌측에 있고 용추 위에 비석을 세웠던 터가 뚜렷이 남아있다. 비문은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이 지었고 글씨는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썼다.<sup>76)</sup>

### 3) 남설기

#### (1) 구강서원

74)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 방안』, 2010년 11월, p.267. “(전략) 아직 개장은 하지 않은 상태로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분각은 새로운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2010년 7월 현재 해체되었다.(후략)”

75)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병산서원·옥산서원』, 예맥, 2012, p.172. “체인묘의 서북쪽에는 서원을 세운 5년 뒤인 1577년(선조 10)에 건립된 신도비와 신도비를 보존하기 위해 지은 碑閣이 있다. 신도비는 기대승이 지었고 글씨는 이산해가 썼다. 이 신도비는 처음 옥산서원 앞 개울위에 건립되었으나 이후 서원 경내로 옮겼다.”

76) 조철제, 위의 글, 2010, p.574.

구강서원은 남동향의 배치로 북서쪽으로는 낮은 구릉과 동남쪽으로는 안강의 평야가 드넓게 자리하고 있다. 외삼문인 종양문(宗仰門), 강당인 적취당(靚醉堂), 내삼문, 사당인 문시묘(文始廟)가 한 축선상에 있으며 적취당 앞으로 서재인 시준재(是遵齋)가 있고 적취당을 마주하여 우측으로 1개의 정료대가 있다. 강학영역 우측으로 관리사 영역이 종양문보다 좀 앞으로 나와 있고 관리사 뒤쪽으로는 경각과 시술재가 있다. 내삼문과 문시묘 사이 좌측에는 전사청이 있고 종양문 앞 뜰 좌측에는 이제현승모비가 동쪽을 바라보며 있다.

구강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11과 같다. 1984년 도면(그림 11-1)과 2007년 도면(그림 11-2)의 가장 큰 변화는 서재인 시준재와 전사청이 생긴 것이다. 1984년 도면(그림 11-1)에서는 외삼문이 담장 안쪽으로 측면 칸이 들어가 있으나 2007년 도면(그림 11-2)에서는 담장을 중심으로 한 칸은 바깥으로 한 칸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내삼문과 사당(문시묘:文始廟) 위치가 외삼문과 강당(적취당:靚醉堂)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가 2007년 도면(그림 11-2)에서는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당이 일직선 상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사 영역과 경각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나오면서 5.4°정도 전위되어 있다. 관리사 영역과 경각 사이에 담장이 생기고, 문을 만들어 놓았다. 건물의 칸수는 그대로 인 것을 보면 위치를 이동하고 담장으로 영역 구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서재인 시준재(是遵齋)는 1992년 강당을 보수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복원하였다.<sup>77)</sup> 항공사진(그림 11-3)에서 경각 옆으로 새로운 건축물은 정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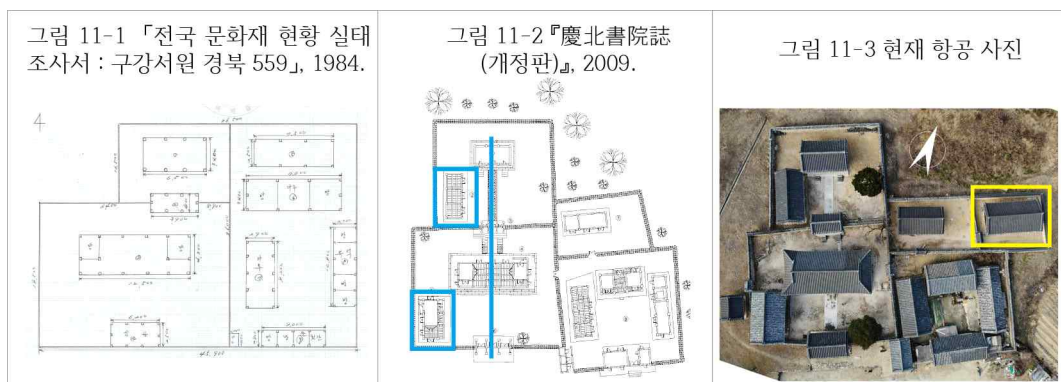


그림 11 구강서원 배치변화

77) 국가기록원 CA0017645, 문화재청, 『구강서원 보수공사 착공보고』 1992, p.249, p.277.



시술재(時述齋) 편액이 걸려있다. 시술재(時述齋)편액은 구강서원 소장자료<sup>78)</sup> 중의 하나로 동재<sup>79)</sup>의 편액인데, 2000년에 중건하고 문화재 자료 19호로 지정된 익재영정을 보관하였다.<sup>80)</sup> 현재 동재로 지어진 시술재는 동재의 자리가 아니라 경각 우측에 있다.

## (2) 동강서원

동강서원은 서향으로 동쪽으로는 제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지며 남쪽으로는 형산강이 흐른다. 진입로에서부터 언덕을 올라 서원 전체 공간까지 모두 가파른 구릉에 있다. 서원진입로는 철길을 따라 북에서 남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유도문으로 진입하지 않고 관리사가 있는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1층 외삼문인 유도문(由道門)과 그 위 탁청루(濯淸樓)가 있고 강당인 순교당(諄敎堂)과 내삼문을 지나 숭덕사(崇德祠)가 일직선상에 있다. 강당 좌우로 동재인 궁리재(窮理齋)와 서재인 진성재(盡性齋)가 마주하고 있으며 강당 앞 진성재 쪽으로 1개의 정료대가 있다. 순교당 뒤쪽으로는 축대가 있고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내삼문을 만나며 그 안쪽으로 숭덕사가 있다. 진성재 뒤편인 강학영역 뒤편으로는 활원재를 포함한 관리사 영역이 있고 그 영역



그림 12 탁청루 복원 전 유도문  
/출처 : 국가기록원 DA0272814, 문화재청,  
「동강서원 설계 승인신청 보완」, 1998.



그림 13 복원 후 1층 유도문 2층 탁청루

78) 경상북도, 앞의 책, 2009, p.118. “서원 경내에는 편액(龜岡書院·觀醉堂·文始廟·時述齋·是遵齋·宗仰門)과 비석 1기가 있다. 경북 문화재자료 제 90호로 지정된 영정과 경북 유형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된 『익재집』책판은 경주이씨 양월 문중에서 관리하다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79) 백상승·김태중, 위의 글, 2003, p.228.

80) 조철제, 『慶州 儒敎文化 遺蹟』, 경주향교, 대보사, 2010,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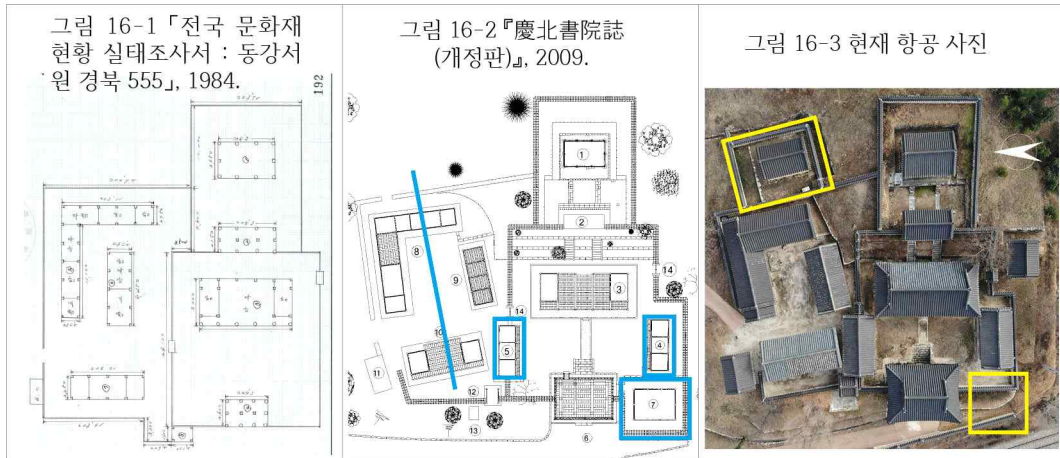


그림 14 동강서원 배치변화

담장 뒤쪽 밖으로 건물 한 채가 있다.

동강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14과 같다. 1984년 도면(그림 14-1)과 2007년 도면(그림 14-2)을 비교하여 볼 때 동재와 서재, 神道碑閣이 생겼고 활원재와 관리사 영역이 11시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1925년 활원재, 1960년에 사당, 강당, 내삼문을 다시 세웠고, 1986년에 동재와 서재, 碑閣을 복원하였다. 1999년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외삼문(유도문:由道門)을 탁청루(濯淸樓)로 고쳐 복원하였다.<sup>81)</sup>(그림 12, 13참조)

“(전략)탁청정의 유구가 남아있지 않아 규모와 위치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濯淸樓記』에(중략) 루마루 양쪽에 온돌방이 놓였던 것으로 보아 玉山書院의 무변루와 유사한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루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림 15 동강서원 경각



그림 16 동강서원 神道碑閣

(중략) 서원 남쪽 경사지에 철로가 부설되면서 서원의 남쪽 영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

81) 경상북도, 앞의 책, 2009, p.119~121.

고, 또 근년에 현존 외삼문 동측에 인접하여 신도비각이 건립되는 등으로 인하여 정면 5칸 규모의 루문이 들어설 만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중략)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루문으로 중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후략)”<sup>82)</sup>

관리사 뒤편 담장 밖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서원 입구의 종합안내의 배치에는 이 신축건물을 경각으로 표기하였는데 일반적인 보관고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대부분 문을 모두 달고 판각의 경우에는 창호가 없는 판장문으로 모두 가리고, 통풍하는 창이 있는데 반해 동강서원 경각은 2칸 중 한 칸은 마루이고 한 칸은 실(室로) 되어있다.(그림 15)

2007년 도면(그림 15-2)과 항공사진(그림 15-3)을 비교해 보면 神道碑閣은 서원 아래쪽 입구 주차장 하마비 옆으로 옮겨져 있다.(그림 16)

동강서원 신도비는 1783년(정조7)에 건립되었고 신도비명은 번암 채제공이 지었다. 전자대서의 글씨는 표함 강세황이 쓰고 소자(小字)는 조윤형이 썼다. 신도비는 근래 글씨를 복각 확대하여 새로 세웠다.<sup>83)</sup>

### (3) 용산서원

용산서원은 거의 서향에 가까운 북서향으로 동쪽은 금오산 자락을 걸치고 서쪽으로는 낮은 언덕을 지나 형산강이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용산서원을 외삼문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진입로 왼편에 神道碑閣이 있다. 외삼문인 식강문(植綱門)으로 진입하면 마당을 지나 강당인 민고당(敏古堂)이 있다. 외삼문과 강당 사이에는 동재와 서재가 없다. 민고당 뒤편으로 축대를 쌓고 계단 2개를 놓았다. 계단을 올라 내삼문을 지나면 숭렬사우(崇烈祠宇)가 있다. 내삼문과 숭렬사우(崇烈祠宇) 사이 우측으로 전사청이 있으며 강당 우측으로 작은 문을 지나면 포사·유사·주사·창고 4동으로 구성된 고직사 영역이 있다. 외삼문과 강당 내삼문과 사당은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용산서원도 동재인 흥인재(興仁齋)와 서재인 명의재(明義齋), 청풍루(淸風樓)라는 문루가 있었다.<sup>84)</sup> 청풍루는 기록과 남아있는 부재들로 7칸 규모에 양 끝에 방이 있는 건물 형식으로 추정하고 있다.<sup>85)</sup>

82) 국가기록원 DA0272814, 문화재청, 「동강서원 설계 승인신청 보완」 1998, p.9. 이 문서에서는 서원 남쪽 철로, 외삼문 동쪽에 神道碑閣 등 동재와 서재를 방향과 상관없이 동재는 전면의 우측을 가리고, 서재는 전면의 좌측을 말하는 것처럼 외삼문이 있는 방향을 무조건 남쪽으로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 동강서원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83) 조철제, 앞의 책, 2010, p.567.

84) 백상승·김태중, 앞의 책, 2003, p.229.



그림 17 용산서원 배치변화

용산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17과 같다. 2007년 도면(그림 17-2)과 항공사진(그림 17-3)과 비교해 보면 神道碑閣의 위치가 달라졌다. 2007년 도면(그림 17-2)에는 송렬사우 우측 담장밖에 있던 것이 현재는 마을에서 용산서원 진입로 왼편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碑閣으로 있다. 碑閣의 담장이 둘러진지 얼마 안 되어 보이고 碑閣의 지붕의 기와와 서까래는 새로 보수한 흔적이 있다. 기둥과 공포는 단청도 벗겨지고 틈이 갈라져 세월의 흔적이 보이며 초석은 방형 초반의 원형운두를 가진 통일신라식이며 예전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기단은 장대석을 한 단으로 쌓고 상면은 전돌을 깔았다.

『慶北書院誌』에서는 “서원의 우측에 碑閣이 있으며 고직사는 서원의 우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포사·유사실·주사·창고 등의 건물이 있다.”<sup>86)</sup>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위치가 神道碑閣의 창건당시 위치라고 말한 연구자도 있어 神道碑閣의 위치변화에 혼란이 있다.<sup>87)</sup>

용산서원 신도비각은 1711년(숙종 37) 충렬사우 사액 이후 경주 부윤과 후

85) 최영기, 위의 글, 2018, pp.336~342.

86) 경상북도, 앞의 책, 2009, p.126.

87) 최영기, 앞의 책, 2018, p.322. “(전략)신도비는 외삼문 밖 100여보 전방 서원진입로 북측에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창건당시 위치에 있다.(후략)”



손들 중심으로 건립되었다. 시작은 1716년(숙종 42)에 돌을 운반하고 1722년에 돌을 다듬기 시작하여, 1736년(영조 12)에 귀부를 만들었다. 1737년(영조 13)에 이두(螭頭)를 운반했고, 1739년(영조15) 이두와 귀부가 완성되었다. 1740년(영조 16) 사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를 지내며 신도비를 완성하였다. 비문은 대제학을 역임한 조경(趙綱)이 지었고 글씨는 부윤을 지낸 조명겸이 썼다.<sup>88)</sup>

더불어 용산서원의 위치도 『용산서원지(龍山書院誌)』, 『문루일기(門樓日記)』, 『용산서원고왕록(龍山書院考往錄)』 등의 기록으로 훼손되기 전의 위치와 현 위치가 같다고 하였다.<sup>89)</sup> 1977년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에서 발간한 『文化遺蹟總攬<中卷>』과 1984년 도면(그림 17-1) 국가기록원 DA0219232, 문화재청, 「전국 문화재 현황 실태조사서 : 용산서원 경북 558」에서는 주소가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 493번지로 되어 있고 현 위치는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59번지로 되어있어 1977년과 1984년 도면(그림 17-1) 주소는 같

지만 현 위치와는 차이가 있다.

#### (4) 직천서원

직천서원은 남동향으로 사당 뒤쪽인 북서쪽으로 낮은 산이 있고 전면으로는 평야와 맞닿아 있으며 멀리 나지막한 산이 보이는 입지이다. 서원 전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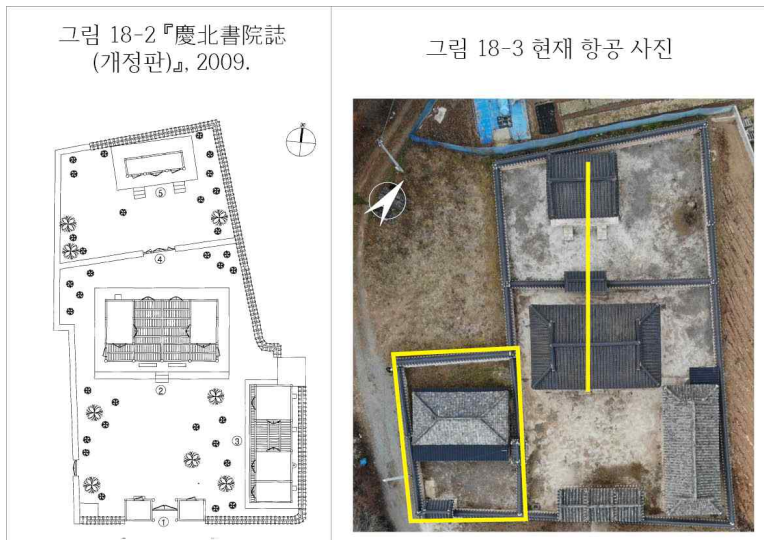


그림 18 직천서원 배치변화

8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精密學術調查報告書』, 2004, 528~529. “경신년(A.D.1740) 4월 10일에 신도비를 세웠다.” 神道碑豎立文件『門樓日記』. : 조철제, 앞의 책, 2010, pp.575~576.

89) 최영기, 2018, 앞의 책, pp.314~315. ‘서원은 훼손하였으나 고직사는 본래 위치에 그대로 존치, 고왕록에 기록된 나무들과 식재한 조경관련 내용 일치, 묘우와 강당 등 현재 중창된 건물의 좌향(卯坐酉向)과 위치 및 규모도 고왕록의 기록과 일치, 1903년 복향하면서 훼손되기 전 설단한 지석의 위치와 묘우의 위치를 찾음’

산자락에 있고 외삼문(수제문:修齊門)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碑가 세워져있다.

직천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18과 같다. 2007년 도면(그림 18-2)과 항공사진(그림 18-3)과 비교해 보면 서원 좌측으로 관리사 한 동이 생기고 내삼문(비덕문:備德門)을 포함한 사당 영역의 축이 강당과 일직선 상으로 맞춰진 것과 담장의 위치변화 정도만 확인 할 수 있다. 내삼문 담장을 기준으로  $-8.2^{\circ}$  돌려서 외삼문과 강당 내삼문과 사당이 정 중앙은 아니지만 축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을 하나의 축으로 돌려놓았다.

#### 4) 쇄퇴기

##### (1) 장산서원

장산서원은 옛 터에 章山書院遺墟碑를 옥산문중회에서 세웠다. 옛터는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851번지로, 유허비 외에 1780년 장산서원 건립 시 기념식수 하였던 은행나무와 향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남아있다.(그림 19, 20, 21)

현재 장산서원은 남향으로 서쪽으로는 도덕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래산이 있는 계곡에 있다. 정혜사지 삼층석탑에서 북쪽으로 길 따라 570여미터 떨어져 있고 독락당에서는 870여미터, 옥산서원에서는 서북쪽으로 1.5킬로미터 정



그림 19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851번지 장산서원 옛터 유허비



그림 20 장산서원 옛터 1780년 식재한 향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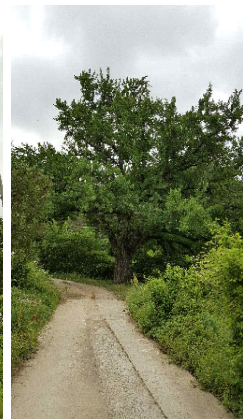


그림 21 장산서원 옛터 1780년 식재한 은행나무

도 떨어진 곳에 있다.

장산서원이 2006년 복원되기 전에도 경주 안강에 서원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 1998년 발행한 『서원』의 서원일람표에는 장산서원이 목록에 있으며 소재지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로 되어있으며<sup>90)</sup>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에 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http://waks.aks.ac.kr/>)

사우는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경내 건물로는 8칸의 강당, 신문(神門), 전사청(典祀廳), 포사(庵舍) 등이 있다. 강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장소로 쓰이고 있다. 전사청은 향사 때 제수(祭需)를 마련하여두는 곳이고, 포사는 고자(庫子)들이 거처하며 큰 행사 때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는 곳이다. 유물로는 문집이 보관되어 있으며 재산으로는 밭 1,800평, 대지 1,000평 등이 있다.<sup>91)</sup>

복원된 안강읍에는 외삼문인 초요문(招邀門)을 지나 동재인 심고재(尋古齋)와 서재인 지사재(志思齋)가 마주보고 있고 강당인 지습당(知習堂)이 있다. 강당 뒤로는 내삼문을 지나 선계묘(善繼廟)가 있다. 선계묘 좌측으로 경각이 있고 선계묘 우측으로는 건물은 없고 정사각형의 기단만 있다.

## (2) 운곡서원

운곡서원은 정서향을 하고 해발 100미터쯤 올라가 있는 산지에 위치해 있다. 외삼문인 견심문(見心門)을 지나 동재인 돈교재(敦教齋)와 서재인 잠심재(潛心齋)가 있고, 강당인 정의당(正懿堂)이 있으며 강당 뒤쪽으로 내삼문을 지나 사당인 경덕사(景德祠)가 나타난다. 경덕사의 기단은 좌우로 축소하여 수리한 흔적이 있다. 제향영역 북쪽 담장 밖으로 神道碑閣이 있고, 좁은 길을 지나 관리사 영역이 있다. 운곡서원 남쪽으로는 갈산공기적비가 있고, 유연정이 있다.

운곡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22와 같다. 운곡서원도 강학영역과 제향공간의 큰 변화는 없으나 1984년 도면(그림 22-1))과 2007년 도면(22-2) 사이의 변화는 외삼문인 견심문(見心門)이 담장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담장과 맞게 바깥쪽으로 조금 나왔다. 항공사진(그림 22-3)에서는 神道碑閣의

90) 이상해, 앞의 책, 1998, p.386.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이고 “1780년 祠로 창건. 1797년 서원으로 승격, 1868년 韓契, 1927년 壇所만 설립.”

91) 장산서원(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qType=0&secType=&sType=&sWord=%ec%9e%a5%ec%82%b0%ec%84%9c%ec%9b%90&dataID=E0048514@AKS-2013-CKD-1240002\\_DIC](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qType=0&secType=&sType=&sWord=%ec%9e%a5%ec%82%b0%ec%84%9c%ec%9b%90&dataID=E0048514@AKS-2013-CKD-1240002_DIC), 검색일 : 2019.8.25.



그림 22 운곡서원 배치변화

신축과 서원의 주 공간과 길을 사이에 두고 북쪽 방향으로 관리사 영역으로 보이는 공간이 ‘口’중정형태로 ‘ㄱ’건물 1개동과 문간채 한동, 재사와 대청이 있는 한 동이 모여있다. 운곡 추원사 중건 설계 평면도<sup>92)</sup>에는 현재 신도비각 자리에 담장 안쪽으로 강당과 직교하여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전사청이 있었다.

신도비는 1972년 능동(凌洞)에 구 신도비각을 세웠으며 운곡서원 안내지에 의하면 2005년에 구 신도비의 전면을 탁본하여 새로 만들었다. 재일교포 제족이 운곡의 추원사를 중건하기로 정하였고 1976년에 내삼문, 강당, 견심문을 중건하였다. 강당은 영보당(永報堂)에서 정의당(正懿堂)으로 개칭하였고, 추원사는 운곡서원으로 승격하여 복원하였다.<sup>93)</sup>

### (3) 구산서원

구산서원은 동향을 하고 진입하는 동쪽에서 외삼문인 희성문(希聖門)을 2층으로 하여 서원 전체영역에 돌과 흙으로 축대를 쌓아서 지형을 높게 복원하였다. 서쪽으로는 약간의 평지가 있긴 하지만 산자락으로 만나고 진입하는 동쪽과 남쪽 북쪽은 담장이 없이 나무를 심어 영역을 구분하였다. 외삼문, 강당인 재락당(齋樂堂)과 내삼문인 유의문(由義門), 사당인 상충사(象忠祠)가 일직

92) 권갑현·권기덕, 『雲谷書院誌』, 도서출판 대보사, 2011, p.30.

93) 권갑현·권기덕, 위의 글, 2011,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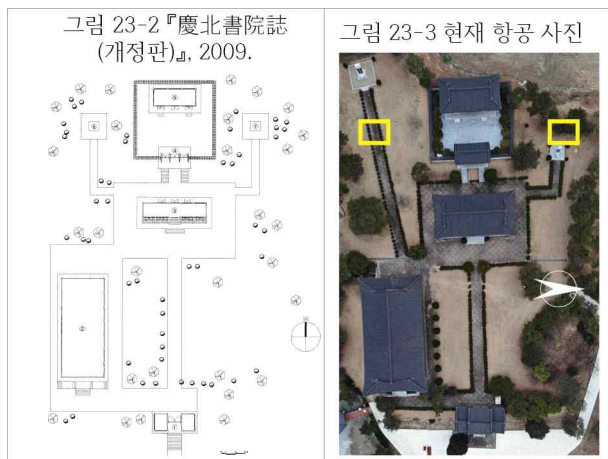


그림 23 구산서원 배치변화

선을 이루고 있고 서재의 자리에 구산문화관이 있다. 사당과 강당은 목조건축을 하였으나 구산문화관과 회성문은 콘크리트로 지붕과 공포를 만들고 기와만 덮었다. 상충사 좌우에 가로축선이 다른 2개의 碑가 각각 세워져 있다.

구산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23과 같다. 구산서원의 변화는 현재 항공사진(그림 23-3)에서 보면 비석의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 2007년 도면(그림 23-2)에는 상충사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나란히 碑가 서 있다. 상충사를 바라보고 좌측 碑는 더 뒤로 가고 우측 碑는 유의문 담장 위치까지 앞으로 나와 있다. 2007년 도면(그림 23-2)에는 碑閣으로 표기 되어 있지만 현재 閣은 없고 碑의 영역으로 장대석을 구획하고 그 안쪽으로 자갈을 채워 중앙에 碑가 세워져 있다.

#### (4) 경산서원

경산서원은 양동마을 안 서북쪽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배치하였다. 양동마을 전체가 구릉에 흩어져 있어서 경산서원도 양동마을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 외삼문인 구도문(求道門)과 강당인 이선당(李善堂)이 일직선상에 있고 강당 기단도 다듬은 돌 4단과 장대석까지 5단을 쌓아 올렸는데 강당 뒤편은 돌로 담장을 상당한 높이로 쌓아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재의 양쪽 협실에는 각각 양지재(兩止齋), 학진재(學眞齋)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외삼문 남쪽 방향으로 관리사 영역이 자리하고 있다.

경산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24와 같다. 1984년 도면(그림 24-1)에는 관리사 영역이 삼문을 포함 3동이 있다가 2007년 도면(그림 24-2)에는 관리사 영역이 아예 사라지고 항공사진(그림 24-3)에서는 축이 약간 틀어진 상태로 있다.



그림 24-1 「전국 문화재 현황 실태조사서: 경산서원 경북 556」,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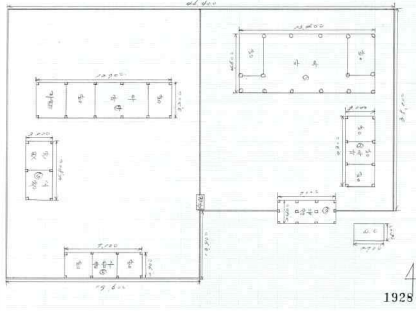


그림 24-2 『慶北書院誌 (개정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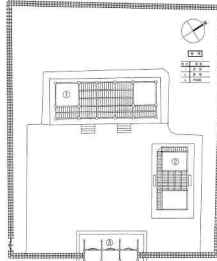


그림 24-3 현재 항공 사진



그림 24 경산서원 배치변화

#### (5) 단구서원

단구서원은 남서향으로 전면에는 평야가 펼쳐지고 사당뒤쪽인 북동쪽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강학영역과 제향공간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나란하지도 않다. 외삼문인 열호문(悅乎門) 앞 진입하는 곳에 좌측에 2개의 碑가 서 있다. 외삼문과 강당이 한축을 이루고 내삼문과 사당이 한 축을 이루는데 두 공간의 각도가 다르다.

단구서원의 배치변화는 그림 25와 같다. 2007년 도면(그림 25-2)은 강학영역과 제향공간이 거의 나란한 두 축이지만 항공사진(그림 25-3)은 경현사와 내삼문을 포함한 사당 영역이 12°가량 돌아가 있다. 현재는 외삼문인 열호문(悅乎門)을 담장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碑가 2개 쌍으로 있는데 1985년 발행한 『단구원지(丹邱院誌)』 사진에서는 강당인 숭광당 樓 앞쪽으로 碑가 1기 있고, 전경 사진에서는 碑가 보이지 않아 1985년 이후 어느 시점에 碑가 외삼문 바

그림 25-2 『慶北書院誌 (개정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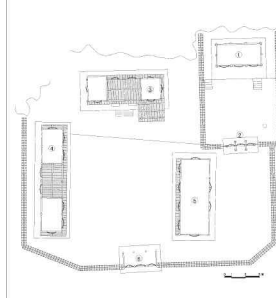


그림 25-3 현재 항공 사진



그림 25 단구서원 배치변화



그림 26 단구서원 강당 앞 碑/출처:『丹邱院誌』,1985.



그림 27 단구서원 강당 앞



그림 28 단구서원 전경/출처:『丹邱院誌』,1985.



그림 29 단구서원 외삼문 앞 전경

깔으로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26,27,28,29)

경주지역 서원에서 배치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비·비각의 이전이다. 옥산서원은 도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옥산서원 앞 개울 위에 있다가 경내로 들어왔고 동강서원은 지금의 탁청루를 바라보고 우측에 위치하였다가 현재는 주차장 하마비 옆으로 옮겨졌으며 용산서원 碑閣도 승렬사우 남쪽 담장 바깥에 위치하였다가 용산서원 진입로로 옮겼다. 구산서원의 碑는 경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배치상의 변화가 있었고 단구서원도 강당 앞에 있다가 현재는 담장 밖 입구로 자리를 옮겼다. 그 외에도 옥산서원에서는 청분각의 해체가 있었고 구강서원의 전사청과 동·서재가 복원되었는데 동·서재가 좌우대칭이 아닌 형태였다. 동강서원의 비각과 동서재가 복원된 큰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 IV. 경주지역 서원의 특징

경주지역 서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경주지역 서원의 배향인물의 성격과 배치에서 앞에 설정한 모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경주지역만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특징은 초창기와 발전기에 건립되어 경주지역 서원의 모본이 된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 1. 경주지역 서원 배향인물의 특징

경주지역 서원의 배향인물은 총 20명으로 11개의 서원에서 단독으로 배향하는 곳은 옥산서원의 이언적, 구강서원의 이제현, 동강서원의 손중돈, 용산서원의 최진립, 직천서원의 정사진, 장산서원의 이전인, 경산서원의 이의운 7개소이다. 서악서원에서 김유신, 설총, 최치원 3인을 배향하고, 구산서원에서 서유, 서일원, 서필, 서사적 4명을 배향하고 있다. 운곡서원에서 권행, 권산해, 권덕린 3인을 배향하며 단구서원에서 이세기, 이천, 이종운 3인은 배향하고 있다.

경주지역 서원은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이언적과 관련된 인물들을 배향한 서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경주 孫氏, 경주 崔氏, 경주 李氏가 있어 지역성이 두드러진 경주에 적을 둔 인물을 배향한 특징을 가진다. 옥산서원의 이언적은 성리학에 공헌이 큰 선현을 배향하고 교육하는 의미가 분명할 수 있지만 구강서원부터는 이미 그 의미는 퇴색되어진 문중의 일들로 변화되는 성격을 갖는다. 경주지역 서원을 건립연대 순으로 봤을 때 옥산서원 다음은 구강서원이다. 옥산서원의 건립은 1573년(선조 6)이고 구강서원의 건립은 1692(숙종 18)으로 그 간극이 120년 나고 구강서원이 건립된 숙종연대에는 이미 많은 수의 서원이 남설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학의 의미는 퇴색되고 제향위주이면서 문중서원의 성격을 갖는 시대 흐름을 따르고 있다.

경주에서 가장먼저 건립한 서악서원의 성격을 보면 당쟁이나 정치성향을 찾기는 어렵다. 단지 경주지역에 그 이전에 신라의 중심이었던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상징하고 업적이 큰 인물 김유신·최치원·설총을 배향하고 있다.



### 1) 회재 이언적과의 관계성

경주지역의 서원은 안강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경주부의 사족사회를 대표하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경주지역 서원의 배향인물은 옥산서원에 배향된 이언적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은 선조 즉위 후 사림정치(士林政治)시대의 개막과 함께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황과 더불어 동방오현으로 추존되었다. 삼현이 남기지 못한 학문적 저술을 남김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였다.<sup>94)</sup> 1504년(연산군 10) 14세 때 정혜사에 머물면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는데 당시 정혜사(淨惠寺)를 독서의 장소로 활용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조선후기에는 순유(純儒)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였다면 조선 전기에는 유불(儒佛)상보적인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시대적 분위기 속에 유서 깊은 정혜사를 자주 출입하며 독서의 장소로 활용하였고 승려들과도 친분이 깊었다.<sup>95)</sup> 정혜사는 옥산서원 창건당시 경주부윤 이제민이 서원에 소속시킨 서원중의 하나이며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담당하였다.

서악서원은 옥산서원 건립 이전에 이언적의 위패를 서악서원 향현사(鄉賢祠)라는 별도의 공간에 봉안하고 있었다. 서악서원은 경주부 내에 처음으로 건립된 서원이었고 옥산서원 건립 전에 향사가 필요했던 것이다.<sup>96)</sup> 옥산서원 건립에 힘쓴 향중사림 13명중에는 운곡서원의 배향인물인 권덕린(權德麟)이 있다.<sup>97)</sup> 그는 이언적의 문인이며 위함을 무릅쓰고 옥산서원을 세워 그를 배향한다.<sup>98)</sup> 장산서원의 배향인물인 이진인(李全仁)은 이언적의 서자이며 이진인의 아들 이준(李俊)과 이순(李淳)도 옥산서원 건립에 힘쓴다. 이진인이 1568년(선조 2) 사망하자 그의 묘지(墓誌)는 손중돈(孫仲墩)의 손자이자 옥산서원 원장이었던 손엽(孫曄)이 지어 추모한다.<sup>99)</sup> 손중돈은 이언적의 외삼촌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윈 이언적에게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94) 이수환,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예문서원, 2011, p.62.

95) 이수환, 「옥산서원과 정혜사-유불의 오묘한 동거」, 『옥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p.72.

96)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글, 2012, p.154.

97)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2, p.153.

98) 경상북도, 앞의 책, 2009, p.794.

99) 채광수, 앞의 책, 2017, p.107.

### (1) 이언적의 외삼촌 손중돈

경주 손씨는 외조부 손소가 이시애(李施愛)의 난에서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오르고, 둘째 아들 우재(愚齋) 손중돈(孫仲墩)이 우참찬(右參贊)을 지내며 청백리에 오르면서 집안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sup>100)</sup> 이언적의 아버지 이번(李蕃)은 양동마을의 여강이씨 입향조로 양동마을에 먼저 정착한 손소의 사위가 됨으로써 그와 그 후손들이 양동마을에 거하게 된다.<sup>101)</sup> 이언적과 손중돈은 태어난 곳이 양동마을 안 서백당<sup>102)</sup>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학문적 영향관계 뿐 아니라 아들을 잃은 손중돈의 장례를 맡아 담당하는 긴밀한 관계였다. 뒷날 이언적은 손중돈의 제문(祭文)을 쓰면서 외숙이 자신을 자식처럼 대했지만 자신이 아버지처럼 대하지 못했음을 한스러워했다.<sup>103)</sup>

『중종실록』에는 손중돈이 졸하였을 때에도 백성으로부터 받는 칭송과 그의 청렴함을 말하고 있다.<sup>104)</sup> 손중돈은 후에 자질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바름은, 백년이 지난 후세에도 알 수 있음을 강조하여 동강서원의 사액을 청하였지만 사액되지 않았다.<sup>105)</sup>

### (2) 이언적의 서자 이전인

옥산서원의 실질적인 주도세력은 손씨와 이씨 가문이었다. 이언적 이후 손씨와 이씨 가문과 옥산과의 이전인 부자는 이언적의 신원과 현양 사업을 벌인

100) 김교빈, 『한국 성리학을 뿌리내린 철학자 이언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p.37.

101) 이수환, 『한집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예문서원, 2011, p.79.

102)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민가로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보통 사대부 상류 저택은 오랑가 인데 비해 서백당은 삼랑가 이고, 홀처마이며 사각기둥과 납도리를 이용하여 소박하고 양반주택의 절제성을 나타내는 건물이다.

103) 김교빈, 위의 글, 2011, p.44.

104) 『중종실록(中宗實錄)17 집』 110 면, 중종 24년 기축(1529) 4월 10일(을해) “손중돈은 계천군(雞川君) 손소(孫昭)의 아들인데, 대대로 청검(淸儉)을 지켜 시종 변치 않았다. 여러 번 남쪽 고을에 보임 되고 네 번 방면(方面)을 맡았는데 다 성적(聲績)이 있었고, 상주(尙州)의 백성은 지금까지도 추모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낸다. 늘 직무 이외의 일에는 방문하는 것을 일삼지 않으므로 관아의 일이 파하면 곧 바로 제집으로 돌아갔고, 정병(政柄)을 잡았어도 뇌물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문정(門庭)이 고요하였다. 만년에는 권세에 빌붙는다는 비방이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

105) 『정조실록(正祖實錄)46 집』 90 면, 정조 14년 경술(1790) 2월 13일(갑자) “숙묘(肅廟) 을해년에 도내의 많은 선비들이 동강(東江) 가에 서원(書院)을 지었으니, 그곳은 바로 중돈이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껏 나라에서 사액(賜額)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성세(聖世)의 결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대궐 앞에 엎드려 청하는 까닭이니, 삼가 바라건대 해사(該司)에 특별히 명하시어 사액하는 규례를 거행토록 함으로써 사문(斯文)을 빛나게 하소서.”

다. 『회재집』을 발간하고 옥산서원을 설립하여 이언적의 학통 계승에 힘을 기울인다. 이들은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의 문하를 출입하며 지역문물을 정비하는데도 앞장선다. 이 가문들은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분당이후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지역 남인을 대표하는 남인의 총본산으로 자리하고 있었다.<sup>106)</sup>

장산서원의 배향인물인 이전인(李全仁)은 옥산파의 파조이다. 회재가 양재 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sup>107)</sup>에 연루되어 함경도 강계부에 위배당시 시봉하면서 학문을 전수받았다. 이전인은 이언적이 26세 때에 태어났지만 정작 이언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전인이 소식을 통해 이언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배지 강계로 찾아가 알게 되었다.<sup>108)</sup> 아버지 이언적의 마지막을 지키며 효를 다하고, 회재의 사후에는 옥산별업<sup>109)</sup>을 상속받았으며 이언적의 현양사업에 매진하는데, 1566년(명종 21) 8월에 『진수팔규(進修八規)』를 올려 이언적은 복권된다. 그해 10월에 회재 유고를 가지고 퇴계 이황에게 가서 질정하고 아울러 행장(行狀)을 청하여 받으면서 잠계(潛溪)라는 호를 퇴계가 지어준다. 그의 아들 이준(李俊)과 이순(李淳)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권덕린과 함께 경상감사 허엽(許曄)에게 『옥산서원기』 수령 등 옥산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전인을 배향한 장산서원이 건립되기까지 서파(庶派)라는 신분적 한계와 적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결국 옥산파는 노론과 손잡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전인이 회재의 학통을 계승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1665년(현종 4)에 『관서문답록』을 노론계 이단상(李端相)에게 발문을 받아 간행하고 반포한다. 『관서문답록』은 이언적과 이전인이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손중돈의 6대손 원장 손여옥과 양동 수졸당 이의장의 종손 제임 이덕기의 주도하에 『관서문답록』을 엮판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1722년(경종 2)에는 독락당 내 계정을 옥산서원에 귀속시키려 압박하

106) 이수환·이상해·옥영정, 「옥산서원」, 『한국의 서원유산1』, 한국서원연합회, 도서출판 문사철, 2014, pp.157~158.

107) 1547년(명종 2) 9월에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尹元衡)세력이 반대파 인물들을 숙청한 사건이며, 정미사화라고도 불린다.

108) 김교빈, 앞의 책, 2011, p.42.

109) 이수환, 위의 글, 2011, p.28. "양동마을에서 8km떨어진 옥산리에 위치한 계곡을 중심으로 회재 이언적의 유적인 독락당과 옥산서원이 있는 곳이다."

고, 『관서문답록』에 조식(曹植)을 편협한 인물로 묘사했다하여 비판을 받으며 덕천서원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767년(영조43) 이준이 노수신에게 보낸 편지에 이황 무함 혐의를 적용하면서 도산서원과도 갈등을 맞게 되었다.

18세기 장산서원의 건립 당시 문중서원이 남설되면서 도내에 16개의 노론 계서원이 창건되었고, 그 중 하나인 노론으로 좌정한 옥산과도 이 흐름에 조응하여 장산서원이 건립된 것이다.<sup>110)</sup>

후인들이 이전인의 성효와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1984년 잠재공기적비각(潛溪公紀績碑閣)을 건립하였다.<sup>111)</sup>

### (3) 이언적의 손자 이의윤

경산서원의 배향인물인 무침당(無忝堂)이의윤(李宜潤 1564~1597)은 이언적의 손자로 아버지는 이용인이다. 『시경』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욕됨 없이 살아라(無忝爾所生)”라는 말을 취해 스스로 호를 “무침당”이라 하였다. 무침당은 이언적의 아버지 이번(李蕃)이 살던 집으로 지금은 여주이씨 회재 이언적의 종가 제청으로, 이의윤의 호를 당호로 취하였다. 안채 뒤편에는 부조묘(不祧廟)<sup>112)</sup>가 있다.<sup>113)</sup>

영남을 대표하는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문인이 되었고,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정유재란 때 군량미를 모집하는데 힘쓰다가 병으로 죽었으며 그의 문집 『무침당집』을 전하고 있다.

그의 묘지명에는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밝히고 있는데, 고조할머니는 구강서원의 배향자인 이제현의 자손이고, 증조할머니, 곧 이언적의 어머니가 손소의 딸인 것을 밝히고 있어, 동강서원의 배향자인 손중돈과도 혈연적 관련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114)</sup>

110) 채광수, 앞의 책, pp.107~114.

111) 조철제, 앞의 책, 2010, p.645.

112) 불천위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둔 사당.

113) 조철제, 앞의 책, 2010, p.417~418.

114) 「이의윤의 묘지명(墓誌銘)」, 『국조인물고 권41 사자(士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7013&cid=62132&categoryId=62132>. “고조

할아버지 이수회(李壽會)가 경주(慶州)로 옮겼고, 고조할머니 증 정부인(貞夫人)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이고 생원(生員) 이점(李點)의 딸이다. 증조

이번(李蕃)은 생원이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증조할머니 증 정경 부인(貞敬夫人)

손씨(孫氏)는 계천군(鷄川君) 손소(孫昭)의 딸이다. 할아버지 이언적(李彦迪)의 호는 회재(晦齋)이고

시호(諡號)는 문원(文元)인데, 벼슬은 좌찬성에 이르렀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할머니

정경 부인 박씨(朴氏)는 선무랑(宣務郎) 박승부(朴崇阜)의 딸이고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

#### (4) 이언적의 제자 권덕린

권덕린(權德麟 1529~1573)은 『옥산서원기』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sup>115)</sup> 『옥산서원기』를 써 달라고 허엽에게 먼저 요청하고, 허엽이 병마로 바로 초안을 잡지 못하고 지체하자 그 사이 권덕린은 사망한다. 그 소식을 이전인의 아들 이준이 소식을 전했다는 내용이다.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회재 문인으로 귀봉 권덕린 한 사람을 기록하였다. 회재의 명성은 그의 후손들과 향유들 중심으로 회재의 『태극문변(太極問辨)』과 『원조오잠(元朝五箴)』 등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찬과 논구가 계속 이어져 왔다.<sup>116)</sup> 명망에 비해 많은 문인을 양성하지 못한 이언적에게 권덕린은 그의 이름 옆에 꼭 따라가는 1인의 제자였다. 1572년(선조 5)에 합천군수로 부임하면서 고을을 순화시켜 그 곳 사람들이 유애비(遺愛碑)를 세워 공덕을 찬미하였다. 안강읍 양월리 구성 밑에 귀봉서사를 세워 강학장소로 사용하였는데, 1651년 후손들이 귀봉정사(龜峯精舍)로 개칭하였다. 1963년 안강에 건립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sup>117)</sup> 1738년(영조 14)에 권덕린의 후손들이 귀봉을 받드는 사우를 창건하려고 하자 옥산서원을 비롯한 일대의 유림들이 이언적의 동생인 이언괄과 함께 운천서원(雲泉書院)을 세웠다.<sup>118)</sup> 운천서원은 1745년(영조 25)에 금령으로 훼손되었고,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서원이 자리했던 곳은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운곡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19)</sup>

#### 2) 경주와 관련된 인물을 배향

경주지역 배향인물들 중 경주에 본관(本貫)을 두고 있는 배향자와 서원을

---

박성양(朴成陽)의 증손이다.”

115)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 『회재집』, 합천 군수(陝川郡守) 권덕린(權德麟) 공은 회재(晦齋) 이 선생(李先生)의 제자이다. 용경(隆慶) 6년(1572) 9월에 내게 편지를 보내 “선생을 위해 서원(書院)을 세웠으니, 그 시말(始末)을 기록해 주고 재사(齋舍)의 명칭도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편지를 받아서 간직해 두고도 병을 앓느라고 즉시 초안을 잡지 못하였다. 만력(萬曆) 계유년(1573, 선조 6) 겨울에 선생의 손자인 이준(李浚)이 찾아와서 권군(權君)이 이미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놀라 애도하였다. (후략)

116) 경주시사편찬위원회, 위의 글, 2014, pp.326~327.

117) 조철제, 앞의 책, 2010, pp.222~223.

118) 권갑현·권기덕, 앞의 책, 2011, p.33.

119) 조철제, 앞의 책, 2010, p.197.

보면 이리하다. 경주孫氏인 손중돈을 배향한 동강서원, 경주李氏인 이제현을 배향한 구강서원과 이세기, 이천, 이종윤을 배향한 단구서원이 있다. 경주최씨의 시조인 최치원과 조선시대 3개의 전란에 참전한 최진립 장군을 각각 서악서원과 용산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다.

구산서원, 운곡서원, 단구서원의 경우에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중의 시조이거나 비교적 가문에서 높은 관직에 나아갔던 인물을 배향하고 있어 문중서원의 성격을 가진다.

### (1) 경주본관과 문중서원의 성격

서악서원에 배향된 최치원은 경주 崔氏의 시조이며 용산서원에 배향된 최진립도 경주 崔氏로서 경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 구강서원과 단구서원은 경주 李氏 문중으로 구강서원에 이제현, 단구서원에 이세기, 이천, 이종윤을 배향하고 있다. 이제현은 고려말기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고 이세기는 고려 충렬왕 때 명신으로 문장이 능한 사람이었다. 이천은 이세기의 장자이고 이종윤은 조선 전기 문신이면서 1490(성종 21)년에 제주목사로 교육을 장려하고 풍속을 순화하며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이다.<sup>120)</sup> 이들 네 사람은 본관을 경주에 두고 있으며 단구서원의 배향인물은 학문의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 보다는 고려시대를 포함하여 조선전기 까지 문중의 인물을 모시고 있다.

동강서원에 배향된 손중돈도 경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표 13)

운곡서원에는 안동 권씨 3인(권행, 권산해, 권덕린)을 배향하고 있다. 운곡서원에 배향된 권행(權幸)은 고려 전기의 공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안동권씨의 시조이다. 원래는 김(金)씨였는데, 공을 세워 태조로부터 권씨성을 하사받고 대상(大相)에 올랐다. 권산해(權山海 1403~1456)는 단종이 양위하자 관직을 사퇴하고 성삼문 등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탄로되어 국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 다락 위에 올라가 투신자살하였다. 권덕린은 이언적의 문인으로 앞에 이언적의 관련인물에 있다.

구산서원에는 이천 徐氏의 4인(서유, 서일원, 서필, 서사적)을 배향하고 있어, 단구서원, 운곡서원과 함께 문중서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산서원에서 배향한 서사적은 임진왜란 시에 부친과 형이 전사하자 의병을 일으켜 경주성 전투와 형산강 전투에 참여하고, 정유재란 시에는 광재우를 따라 화왕산성에

120) 단구서원 배향인물 이세기, 이천, 이종윤의 업적은 단구서원 안내문을 참조하였다.

표 13 경주지역 서원 배향인물 본관별 현황

| 번호 | 서원명  | 배향 인물 | 연대                        | 본관        | 연관관계               |
|----|------|-------|---------------------------|-----------|--------------------|
| 1  | 서악서원 | 설총    | 654~660추정                 | —         |                    |
| 2  | 동강서원 | 손중돈   | 1463(세조 9)~1529(중종 24)    | 경주孫       | 김종직 문하<br>이언적 외삼촌  |
| 3  | 구강서원 | 이제현   | 1287(충렬왕 13)~1367(공민왕 16) | 경주李       |                    |
| 4  | 단구서원 | 이세기   | —                         | 경주李       |                    |
| 5  | 단구서원 | 이천    | —                         | 경주李       |                    |
| 6  | 단구서원 | 이종윤   | 1431(세종 13)~1495(연산군 1)   | 경주李       |                    |
| 7  | 용산서원 | 최진립   | 1568(선조 1)~1636(인조 14)    | 경주崔       |                    |
| 8  | 서악서원 | 최치원   | 857(문성왕 19~)              | 경주崔<br>시조 |                    |
| 9  | 서악서원 | 김유신   | 595(진평왕 17)~673(문무왕 13)   | 김해金       |                    |
| 10 | 운곡서원 | 권산해   | ?~1456(세조 2)              | 안동權       |                    |
| 11 | 운곡서원 | 권덕린   | 1529(중종 24)~1573(선조 6)    | 안동權       | 이언적 문인             |
| 12 | 운곡서원 | 권행    | —                         | 안동權<br>시조 |                    |
| 13 | 옥산서원 | 이언적   | 1491(성종 22)~1553(명종 8)    | 여주李       |                    |
| 14 | 장산서원 | 이전인   | 1516(중종 11)~1568(선조 1)    | 여주李       | 이언적 서자             |
| 15 | 경산서원 | 이의윤   | 1564(명종 19)~1597(선조 30)   | 여주李       | 한강 정구 문인<br>이언적 손자 |
| 16 | 직천서원 | 정사진   | 1567(명종 22)~1616(광해군 8)   | 영일鄭       | 여헌 장현광 문하          |
| 17 | 구산서원 | 서필    | 901(효공왕 5)~965(광종 16)     | 이천徐       |                    |
| 18 | 구산서원 | 서유    | 1356(공민왕 5)~1411(태종 11)   | 이천徐       |                    |
| 20 | 구산서원 | 서일원   | 1595(선조 28)~1652(효종 3)    | 이천徐       | 여헌 장현광 문하          |
| 19 | 구산서원 | 서사적   | 1556(명종 11)~1630(인조 8)    | 이천徐       |                    |

서 활동 하였다. 같은 서원의 서일원은 여헌 장현광의 문하이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거느리고 참전한 인물이다.

용산서원의 최진립은 무신으로 서원에 배향된 인물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용인 험천에서 전사하였다.

## (2) 경주의 특수성을 갖는 인물을 배향

경주지역 서원중에 가장 먼저 건립된 서악서원은 조선의 어떤 당쟁이나 정

치적인 성향을 찾기는 어렵다. 1559년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구암 이정은 2년 만인 1561년(명종 16)에 서악서원 건립을 시작하고 1563년(명종 18)에는 건립 시 배향한 김유신 외에도 지방유림들의 의견에 따라 퇴계와 협의하여 홍유후(弘儒侯) 설충(薛聰)과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등 신라시대의 학자들만을 연이어 배향한다.<sup>121)</sup> 신라의 본거지라는 특수성(特殊性)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악서원은 사림세력이라는 정치적 특색과 성리학이라는 관념체계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sup>122)</sup>

최치원(崔致遠, 857~?)의 자는 고운(孤雲)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6년 후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885년 현강왕 11년에 귀국하여 관직에 있다가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를 상소하여 아찬이 되었다. 후에 명승지를 유람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생을 마감했다. 1020년 고려 현종 때 내사령에 추봉하고 문묘에 종사하였다. 1023년에는 문창후(文昌侯)로 추봉되었다.

신라 말 상서한 장소를 기념하여 경주시 인왕동에 상서장(上書莊)이 세워졌다. 이곳은 조선 중기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1871년(고종 8)에 후손들이 비각 1칸과 화수정 4칸을 건립하고 최세학(1822~1899)이 ‘상서장화수정기’를 지으면서 시작되어, 현재 경내에는 강당, 재사, 추모문, 유허비각등이 있다.<sup>123)</sup>

배향인물에서 드러나는 서원의 특징을 보기 위해 모집단 서원은 서원이 있는 지역 출신과 학문의 업적만으로만 배향된 인물인지 두 분류로 나누었다. 경주지역의 서원 배향인물은 이연적과 관련된 인물, 경주 지역과 관련하여 본관을 경주에 두고 있거나 문중서원의 성격을 띤 인물 및 경주지역의 특수성을 갖는 인물로 분류하여 보았다.

## 2. 경주지역 서원 배치의 특징

### 1) 축선에 따른 지붕 형태별 분류

경주지역 11개 서원 중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용산서원, 직천서원, 장산서원, 운곡서원, 구산서원 등 9개는 한 개의 축선을 가지고 있

121) 이상해, 앞의 책, 1998, p.216.

122) 손봉균, 앞의 책, pp.175~176.

123) 조철제, 앞의 책, 2010, pp.152~153.



표 14 경주지역 서원 축선 지붕형태

| 서원명 | 건립연도        | 樓+외삼문(+)/분리(-) | 외삼문 | 樓  | 강당 | 내삼문 | 사당 |
|-----|-------------|----------------|-----|----|----|-----|----|
| 서악  | 1561(명종 16) | —              | 맞배  | 맞배 | 팔작 | 맞배  | 맞배 |
| 옥산  | 1573(선조 6)  | —              | 맞배  | 맞배 | 팔작 | 맞배  | 맞배 |
| 구강원 | 1692(숙종 18)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맞배 |
| 동강  | 1695(숙종 21) | +              | —   | 팔작 | 팔작 | 맞배  | 맞배 |
| 용산  | 1699(숙종 25)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맞배 |
| 직천  | 1702(숙종 28)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맞배 |
| 장산  | 1780(정조 4)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맞배 |
| 운곡  | 1785(정조 9)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맞배 |
| 구산  | 1786(정조 10)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팔작 |
| 경산  | 1838(헌종 4)  | ×              | 맞배  | —  | 팔작 | —   | —  |
| 단구  | 1862(철종 13) | +              | 맞배  | —  | 팔작 | 맞배  | 맞배 |

다. 경산서원도 한 개의 축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사당이 없고, 외삼문과 강당만 일직선상에 있다. 단구서원은 외삼문과 강당이 한 축선상에 있고, 내삼문과 사당이 강당의 동서측에서 12°가량 떨어져 있다.

경주지역 서원의 지붕형태를 보면 표 14와 같다.

경주지역 서원의 지붕형태를 모집단 서원 분류와 비교해 보면 표 15와 같다. 樓와 외삼문이 2층 구조로 되어있고 강당이 팔작지붕인 가-1 형태에 동강서원이 있다. 맞배지붕인 가-2는 없다. 樓와 외삼문이 분리되어 있고 樓가 팔작지붕인 나-1은 없고 樓의 지붕이 맞배지붕인 나-2는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이 있다. 樓가 없는 형태에 사당이 맞배지붕이면서 강당이 팔작지붕인 다-1은 구강서원, 용산서원, 직천서원, 장산서원, 운곡서원, 단구서원 등 6개소이다. 단구서원은 강당 정면 1칸을 앞으로 돌출된 형태로 樓를 만들어 놓아 보통의 강당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樓가 없고 사당이 맞배지붕이면서 강당이 맞배지붕인 다-2는 없다. 樓가 없고 강당과 사당이 모두 팔작지붕인 다-3은 구산서원이 있다.

경주지역 서원은 樓가 없고 강당이 팔작지붕이며 사당이 맞배지붕인 형태

표 15 경주지역 서원 축선 지붕형태 분류

|          | 외삼문과 樓가 중층으로 있는 형태                                                   |                | 외삼문과 樓가 분리된 형태 |                      |
|----------|----------------------------------------------------------------------|----------------|----------------|----------------------|
|          | 강당 지붕-팔작 / 가-1                                                       | 강당 지붕-맞배 / 가-2 | 樓 지붕-팔작 / 나-1  | 樓 지붕-맞배 / 나-2        |
| 樓가 있는 형태 |                                                                      |                |                |                      |
|          | 동강(1695)                                                             | —              | —              | 서악(1561)<br>옥산(1573) |
| 樓가 없는 형태 | 강당 지붕-팔작 / 다-1                                                       | 강당 지붕-맞배 / 다-2 | 사당 지붕-팔작 / 다-3 |                      |
|          |                                                                      |                |                |                      |
|          | 구강(1692)<br>용산(1699)<br>직천(1702)<br>장산(1780)<br>운곡(1785)<br>단구(1862) | —              | 구산(1786)       | 기타 : 경산(1838)        |

가 11개 서원중에 6개로 가장 보편적이다.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은 樓가 단독으로 있고 맞배지붕이다. 병산서원의 건립연도가 1613년 이므로 서악서원의 영귀루가 연도상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樓임을 알 수 있다. 樓에 대한 것은 3장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였다.

외삼문과 樓가 중층으로 함께 있을 때에는 팔작지붕이면서 정면 3칸인 공통점이 있다. 남계서원 風詠樓, 금오서원 邑淸樓, 무성서원 絃歌樓, 도동서원 水月樓, 필암서원 廓然樓가 이러하고, 경주지역에서는 동강서원의 탁청루가 이와 같다. 樓가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병산서원 晩對樓만 팔작지붕고, 돈암서원 山仰樓, 경주지역의 서악서원 詠歸樓, 옥산서원 無邊樓 모두 맞배지붕이다. 4개의 서원은 정면 5칸 이상이다.

외삼문은 모두 맞배지붕인데 삼문의 지붕 높이를 다르게 하여 지붕의 마루가 보이게 하거나 양쪽에 문간채가 있어서 가운데를 높혀 솟을대문 형식을 하기도 한다. 모집단에서는 병산서원, 돈암서원, 우저서원이 이러하고, 경주지역 서원에서는 직천서원과 구산서원이 문간채가 있고, 외삼문 위로 지붕의 단차를 두었다.

강당은 서원에서 가장 큰 공간으로 대체로 팔작지붕이다. 모집단에서 강당에 맞배지붕을 사용한 곳은 도동서원, 필암서원, 노강서원 뿐이다. 강학영역을 상징하는 강당은 서원의 권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팔작지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팔작지붕은 조선시대 권위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지붕형태이다. 위계질서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중심건물은 팔작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24)</sup>

제향영역인 내삼문과 사당은 맞배지붕이다. 구산서원은 지방유림에 의해 복원하면서 사당(상충사:象忠祠)을 팔작지붕으로 복원한 것으로 생각한다.<sup>125)</sup> 경주지역의 서원에서는 사당이 없는 경산서원과 팔작지붕으로 복원한 구산서원 외에는 사당은 모두 맞배지붕이다. 규모가 크지 않거나 길고 측면 단칸 건물에서 맞배지붕을 즐겨 쓰지만 사당은 규모와 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맞배지붕을 즐겨 썼다.<sup>126)</sup>

124)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2007, p186.

125) 경상북도, 앞의 책, 2009, p.135. 예서는 1983년 복원 ; 조철제, 앞의 책, 2010, p106. 예서는 2005년 5월에 복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26) 김왕직, 위의 글, 2007, p184.

## 2) 강학영역 배치

경주지역 11개 서원은 모두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동재와 서재가 있는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나 동재와 서재 중 한 개 재 만 있기도 하고, 둘 다 없는 경우도 있다. 동재와 서재가 모두 있는 곳은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운곡서원, 단구서원, 장산서원까지 7 개소이지만 구강서원의 동재는 동재 자리의 자리가 아니고, 경각 옆에 있어 동재로 인식하기 어렵다. 동재만 있는 곳은 직천서원과 경산서원이 있고, 동재와 서재가 모두 없는 곳은 용산서원, 구산서원이 있다.

남설기는 숙종연대 시작인 1675년부터 1741(영조 17)까지 서원의 급격한 증설로 강학기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제향기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서원의 주공간과 부공간의 뚜렷한 분화가 사라지고, 전사청과 장서각 등 부속 공간의 배치 질서가 흐트러진다. 서원의 남설은 봉당의 폐단이 드러나고 교육 기능을 넘어 사람들의 본거지로 이용된다.<sup>127)</sup>

경주지역 서원의 건립연대는 서악서원과 옥산서원 외에 남설기와 쇠퇴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동·서재도 모두 갖추지 못한 형태로 남겨져 있다.

『慶州邑誌』에는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용산서원, 운곡서원만 동·서재를 기록하고 있다.

## 3) 부속건물 위치

표 16 경주지역 서원 보관고 위치

| 보관고 없음 : 서악,용산,직천,운곡,구산,경산,단구 |   |     |                  |
|-------------------------------|---|-----|------------------|
| 동강-경각<br>장산-경각                | ① | ②   | 옥산-경각<br>옥산-문집판각 |
| —                             | ③ | ②&④ | 구강-경각            |

### (1) 보관고 위치

경주지역 서원에서는 ①구역에 동강서원과 장산서원의 경각이 있고, ②구역에 옥산서원 경각과 문집판각이 있으며 ②구역과 ④구역에 걸쳐서 구강서원의 경각이 있다.(표 16)

보관고는 강학영역의 부속건물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영역을 갖기도 하며 위계로는 강당보다 높게 배치

127) 이상해, 앞의 책, 1998, pp.347~348.



그림 30 경주지역 서원 보관고 위치

되어 있다.

경주지역 서원에서 ①구역에 있는 동강서원의 경각은 사당 좌측 담장 밖에 11시 방향으로 관리사 영역 위쪽에 있으며 장산서원의 경각은 제향영역 담장 좌측에 있어 위계는 강당보다 높지만 강당과는 담장이 없고 제향영역과는 담장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②구역에 있는 옥산서원의 경각과 문집판각은 체인묘와 축대 높이의 단차는 있고 제향영역 우측 담장 바깥에 있다. 경각 우측으로 담장을 두고 문집판각이 있는데 문집판각은 고직사 영역으로 진입해야만 한다. ①구역과 ③구역 중간에 걸쳐있는 구강서원의 경각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획하여 사방으로 담장이 있고 강학영역과 제향영역 사이 우측담장 밖으로 있다.(그림 30)

경주지역의 보관고는 4개의 서원에만 있지만 장산서원의 경각과 옥산서원의 경각, 문집판각은 제향영역 우측으로 담장과 분리되어 있어, 강학영역의 부속건물이지만 제향영역과 위계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옥산서원의 문집판각, 동강서원의 경각, 구강서원의 경각은 도산서원의 장판각과 같이 강학영역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성을 갖고 있다.

## (2) 비·비각 위치

경주지역 서원에서 장산서원은 옛터에 유허비가 있어서, 2006년 복원된 장산서원과의 위치관계를 알 수 없고, 경산서원에는 碑가 없다.

①구역 경내에는 옥산서원 碑閣과 구산서원 碑가 있다. 옥산서원은 文元公晦齋 李彦迪 神道碑가 제향영역 좌측 담장 밖에 있는데 제향영역의 축대높이 보다는 조금 낮게 있으며 위계상으로는 제향영역과 같다. 구산서원 서필선생

표 17 경주지역 서원 비·비각 위치

| 비 또는 비각 없음 : 장산(옛터-유허비),경산          |                                   |   |   |                   |                   |
|-------------------------------------|-----------------------------------|---|---|-------------------|-------------------|
| 경외                                  | 경내                                |   |   | 경내                | 경외                |
| 운곡-태사공<br>신도비각                      | 옥산-회재 이언적<br>신도비각<br>구산-서필 선생 사적비 | ① | ② | 구산-서유신도비          | —                 |
| 구강-이제현 송모비<br>동강-신도비각<br>단구-묘정비외 1개 | —                                 | ③ | ④ | 서악-부윤 구암 선생<br>비각 | 용산-신도비각<br>직천-묘정비 |

사적비 있고 ②구역 경내에 碑가 하나 더 있다. 운곡서원은 ①구역 경외에 태사공신비각이 있고 위치는 제향영역 좌측 담장 밖이다.

③구역 경외에는 구강서원, 동강서원, 단구서원의 碑가 있다. 구강서원의 碑는 외삼문 밖 좌측 두었다. 동강서원은 진입로 좌측에 碑閣으로 있다. 단구서원은 외삼문 밖 좌측에 2개를 나란히 세웠다.

④구역 경내에는 서악서원의 碑閣이 있는데 경주부윤 구암선생 비각이며 외삼문과 영귀루 사이 우측으로 있다. ④구역 경외에는 용산서원의 碑閣과 직천서원의 碑가 있는데, 용산서원 神道碑閣은 서원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직천서원은 외삼문 밖 우측에 있다. (표 17, 그림 31)

경주지역 비·비각은 11개의 碑 중에 7개가 외삼문 밖으로 나가 있어 경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고직사 위치

경주지역 서원 고직사도 강학영역을 중심으로 구획을 정하고 좌측이나 우측에 배치한다. 동강서원과 운곡서원의 위계가 내삼문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삼문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강당과 동·서재를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한다.

경주지역 서원의 고직사는 구산서원, 단구서원은 없다. ①구역에는 장산서원이 있고 2006년 복원하면서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고,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다. ①구역과 ③구역에 걸쳐서 있는 동강

표 18 경주지역 서원 고직사 위치

| 고직사 없음 : 구산,단구 |     |   |                |
|----------------|-----|---|----------------|
| 장산             | ①   | ② | —              |
| 동강<br>운곡       | ①&③ |   |                |
| 서악<br>직천<br>경산 | ③   | ④ | 옥산<br>구강<br>용산 |





① 운곡서원(경외)-태사공신도비각



① 옥산서원(경내)-이연적신도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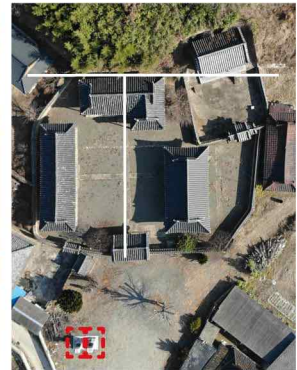
① 구산서원(경내)-서필선생사적비  
② 구산서원(경내)-서유신도비



③ 구강서원(경외)-이제현승모비



③ 동강서원(경외)-신도비각



③ 단구서원(경외)-묘정비 외1



④ 서악서원(경내)-부윤구암선생비각



④ 용산서원(경외)-신도비각



④ 직천서원(경외)-묘정비

그림 31 경주지역 서원 비 또는 비각 위치 / 출처 : 용산서원 카카오 지도





① 장산서원



①&③ 동강서원



①&③ 운곡서원



③ 서악서원



③ 직천서원



③ 경산서원



④ 옥산서원



④ 구강서원



④ 용산서원

그림 32 경주지역 서원 고직사 위치



서원과 운곡서원이 있다. 동강서원은 고직사와 전사청이 있는 영역이 강학영역과 제향공간의 세로축에서 틀어져 있긴 하지만 고직사를 포함한 담장은 내삼문 담장 위쪽으로 올라가 맞닿아 있다. ‘ㄱ’자형 꺾인 형태의 고직사는 강당 전면에서 내삼문을 조금 넘어가는 좌측 담장 밖에 있다. 운곡서원의 고직사 영역은 강학영역과 제향영역 사이 좌측 담장 밖으로 ‘ㄱ’형 중정 형태로 넓고 크게 있다.<sup>128)</sup>

③구역에는 서악서원, 직천서원, 경산서원이 있다. 서악서원은 외삼문과 서재 좌측으로 고직사와 수장고 문간채, 수장고 뒤편에 새로 생긴 건물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삼문에서 서재까지는 담장이 있고, 서재가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여 서재 측면 일부는 고직사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 직천서원은 외삼문과 강당 좌측 담장 밖으로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산서원은 외삼문보다 전면으로 많이 나와 있고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구역에는 옥산서원, 구강서원, 용산서원이 있다. 옥산서원 고직사 영역은 포사, 마구간을 포함하고, 동재와 강당 우측 담장 바깥쪽으로 있다. 구강서원의 고직사는 강학영역 우측 담장 밖에 있으며 문간채를 포함한 4개동이 중정을 바라보는 형태로 있다. 내삼문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 후면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담장은 강당의 후면과 가로축이 일치한다. 용산서원의 고직사는 강학영역 우측 담장 바깥쪽으로 있고, 외삼문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 후면은 강당보다 앞쪽에 있다.(표 18, 그림 31)

## (2) 전사청 위치

경주지역 서원의 전사청은 담장으로 구획되지 않고 제향영역 안에 같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주 11개의 서원중에 전사청은 직천서원, 장산서원, 운곡서원, 구산서원, 경산서원, 단구서원은 없다. ①구역에는 구강서원이 있고, 제향영역 안에 있으며 제향영역 좌측에 사당과

표 19 경주지역 서원 전사청 위치

| 전사청 없음 : 직천,장산,운곡,구산,경산,단구 |   |   |                |
|----------------------------|---|---|----------------|
| 구강                         | ① | ② | 서악<br>옥산<br>용산 |
| 동강                         | ③ | ④ | 서악-제기고         |

128) 128) 권갑현·권기덕, 앞의 책, 2011 p.29. 운곡서원은 전사청과 재실, 고직사 등으로 방을 나누어 한 공간에 있다.



그림 33 경주지역 서원 전사청 위치

직교하는 형태로 있다. ②구역에는 서악서원, 옥산서원, 용산서원이 있다. 제향 영역 안에 있으며 내삼문과 사당 사이 우측에 사당과 직교하는 형태로 있다. ③구역에는 동강서원이 있고, 활원재를 바라보고 ‘ㄷ’ 형태로 고직사와 전사청이 있다. 고직사가 ‘ㄱ’형태로 있고, 전사청은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고직사를 바라보고 있다. ④구역에는 서악서원의 제기고가 있다. 강당의 우측으로 강당과 직교하는 형태로 강당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 있다.(표 19, 그림 33)

경주지역 서원 부속건물의 배치에서 모집단과 비교하여 경주지역 서원 부속건물의 위치는 표 20과 같다. 모집단과 다른 경주지역 서원만의 특징은 보관고의 위치를 제향영역 좌측이나 우측으로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게 나타난다. 모집단 서원은 ③·④구역에 80%가 있고, 경주지역 서원은 ①·②구

표 20 모집단 서원과 경주지역 서원 부속건물 위치 비교

| 부속건물   | 모집단 서원 |                       |        | 경주지역 서원 |                       |        |
|--------|--------|-----------------------|--------|---------|-----------------------|--------|
|        | 구역     | 구역개수/총개수(<br>碑-경내/경외) | 점유율(%) | 구역      | 구역개수/총개수(<br>碑-경내/경외) | 점유율(%) |
| 보관고    | ③      | 5/10                  | 50     | ①       | 2/5                   | 40     |
|        | ④      | 3/10                  | 30     | ②       | 2/5                   | 40     |
|        | ①      | 1/10                  | 10     | ②&④     | 1/5                   | 20     |
|        | ②      | 1/10                  | 10     | -       | -                     | -      |
| 비or 비각 | ③      | 6/11(2/4)             | 55     | ③       | 4/11(0/4)             | 36.4   |
|        | ④      | 4/11(2/2)             | 36     | ④       | 3/11(2/1)             | 27.3   |
|        | ②      | 1/11(1/0)             | 9      | ①       | 3/11(1/2)             | 27.3   |
|        | ①      | -                     | -      | ②       | 1/11(1/0)             | 9      |
| 고직사    | ④      | 5/9                   | 56     | ③       | 3/9                   | 33.3   |
|        | ③      | 4/9                   | 44     | ④       | 3/9                   | 33.3   |
|        | ①      | -                     | -      | ①&③     | 2/9                   | 22.3   |
|        | ②      | -                     | -      | ①       | 1/9                   | 11.1   |
| 전사청    | ②      | 5/10                  | 50     | ②       | 3/6                   | 50     |
|        | ①      | 3/10                  | 30     | ①       | 1/6                   | 16.7   |
|        | ④      | 2/10                  | 20     | ③       | 1/6                   | 16.7   |
|        | ③      | -                     | -      | ④       | 1/6                   | 16.6   |

역에 80%가 있다. 비·비각, 고직사는 모집단과 경주지역 서원 공통적으로 강학영역 좌측이나 우측에 있고 비·비각은 경외에 있는 수가 더 많다. 경주지역 서원에서 옥산서원의 문집판각, 구강서원의 경각, 동강서원의 경각은 강학영역과 담장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사청은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용산서원이 제향영역 담장 안쪽에 있다.

축선상 지붕의 형태 분류에서는 외삼문과 루가 분리된 단독의 루가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부속건물의 배치에서 위계가 높은 곳에 배치한 보관고는 옥산서원이 가장 이른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는 서악서원의 영귀루와 옥산서원의 무변루가 가진 의미와 경주지역 서원

보관고의 시원인 옥산서원 2개의 보관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의 특징

학문의 긴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며 학문에 마음을 두는 유식의 개념을 서원 건축에 처음 도입한 곳은 남계서원이다. 齋舍의 마루에 별도로 軒이라는 편액을 달아 室과 구분하여 軒에서 연당 및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서악서원의 진입공간에 樓가 생기면서 樓는 유식의 개념을 대표하는 공간이 되었다. 서악서원에서 본격적으로 樓가 등장하고 옥산서원에서 외삼문과 樓가 분리된 단독의 樓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부속건물 배치에서 경주지역 서원만의 특징적인 것은 보관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고 강학영역에서 별도로 영역을 구분하여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 특징의 원형은 옥산서원에서 처음 나타나고 다른 경주지역 서원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樓가 등장한 서악서원 영귀루, 독립된 루의 시작인 옥산서원 무변루, 경주지역에서 보관고의 원형인 옥산서원의 경각과 문집판각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귀루와 무변루

서악서원의 영귀루는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우리나라 서원중에서 처음 나타나는 루이다. 서원의 시작인 소수서원은 건축적 요소는 갖추었으나 배치가 확립되지 않아 두 번째로 건립된 남계서원에서 배치의 정형을 찾고 있다.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건립을 시작으로 강당은 8년이 더 소요되고 2년 후에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1564년 동·서재를 완공한다.<sup>129)</sup> 남계서원의 동·서재가 완료되기 전인 1561년에 서악서원을 영건하며 영귀루도 함께 건설하여 서악서원은 서원 건립시기부터 루가 있었던 최초의 서원이다.<sup>130)</sup>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외삼문이 없는 단독의 루로서 가장 이른 예가 된다. 외삼문과 루가 중층으로 있는 남계서원의 風詠樓가 누마루 형식으로 변경된 것은 『풍영루중수기』에 의하면 19세기 중엽이다.<sup>131)</sup>

129) 정기철, 앞의 책, 2000, p.402.

130) 김수정譯·이재영, 위의 글, 2015, p.22. “퇴계선생이 당과 재실 이름을 서악정사라 짓고 당은 시습, 재는 성경, 진수, 현은 조설 누는 영귀라 하고 중방에 선생이 친필로 쓴 현판을 걸었으나 모두 임진왜란에 불타버렸다.”

우리나라 서원의 루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영귀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1646년(인조 24)에 부윤 이민환(李民奐)에 의해 중건 되어 외삼문과 분리된 단독의 루였는지, 다른 형태의 루였는지 알 수 가 없다.

옥산서원은 1573년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과 회재의 문인 권덕린(權德麟)에 의해 건립되었다. 두 서원은 경주 부윤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건립되고 중수되므로 건축계획이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영귀루의 구조를 따라 무변루를 만들고 무변루는 영귀루의 형식을 변형하여 확장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sup>132)</sup>

하지만 영귀루의 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외삼문과 분리된 단독의 루 형태는 무변루가 먼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영귀루와 무변루는 이후 건립한 동강서원의 탁청루와 용산서원의 청풍루에도 영향을 끼쳐 모두 5칸 이상 규모로, 무변루와 같이 좌우 협실이 있는 형태로 추정하고 있다.<sup>133)</sup>

## 2) 옥산서원의 경각과 문집판각

일반적으로 장서각, 장판각 등의 건물이 있는 서원은 그만큼 많은 서적을 소장하고 출판을 해 왔던 곳들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서원에서만 이러한 시설을 갖추 수 있었다.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의 소수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을 포함하여 경주의 옥산서원이 그 예이다.<sup>134)</sup>

옥산서원의 서적들이 대여로 인하여 분실사건이 생기면서 옥산서원 책은 서원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書院書冊不出門外라는 편액을 경각과 독락당 어서각 앞에 걸어두었다. (그림 34) 옥산서원의 도서 관리 규범으로 내용은 이

131) 정기철, 앞의 책, 2000, p.401. “대문은 풍영(風詠)이란 편액의 루마루로서, 창건당시 ‘존도(遵道)’란 편액의 대문과는 그 형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데, 후대의 「풍영루중수기(風詠樓重修記)」에 근거해 보면 이는 대문에서 루마루 형식으로 변경된 19세기 중엽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2) 최미경, 「영남지방 서원루의 건축계획:자연경관 해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논문, 2002, p.37.p.81. “무변루의 평면형식은 서악서원 영귀루의 형식을 변형 확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 변형에 향교루의 구조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무변루의 구조는 서악서원 영귀루의 구조와 유사했으리라 짐작한다. 현재 남아있는 영귀루는 영귀루 중건기에 따라 1646년에 건립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서악서원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인 1561년 건립당시 영귀루가 같이 건립되었던 기록이 있으므로 무변루의 건립 때 영귀루를 참조했을 것이고 서악서원의 건립에도 역시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경주부윤이 설립을 도왔기 때문에 두 건물 사이의 유사점은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33) 본 논문 52~54쪽에 각 서원의 배치변화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34) 이병훈, 「옥산문고, 사림의 지식 문화를 선도하다」, 『옥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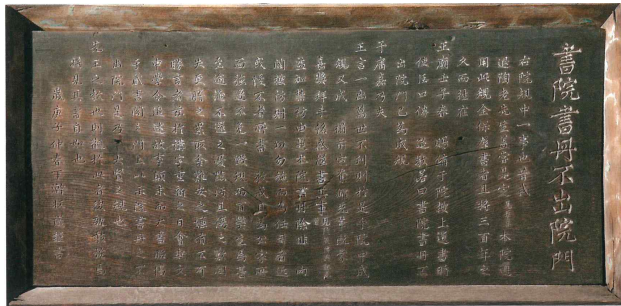


그림 34  
‘서원서책불출문외’ /  
출처 : 이해준, 『한국의  
서원 현판과 기문』,  
(사)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황이 처음 정한 규정과 300년 후 정조가 이에 대하여 내린 명령이 함께 쓰여 있다.<sup>135)</sup> 많은 책과 유품이 보존되었고, 고서 중 경각에 보관하던 『삼국사기』는 1970년 12월 30일 보물 제525호 지정된 후 2018년 2월 22일 국보 제322-1호로 승격되었다.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경주지역 유림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유생들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유림들의 공부를 위한 도서관적 역할 및 유생교육을 위한 교재·문집 등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며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136)</sup>

옥산서원의 경각은 이언적의 서자 이전인이 1554년에 건립하여 서원의 유품, 퇴계수필 및 전적, 세자였던 인종의 친필 서찰 등<sup>137)</sup>과 임금이 하사한 책들을 보관하였다. 경각 우측으로는 담을 사이에 두고 또 하나의 보관고인 문집판각이 있다. 문집판각은 정혜사가 1834(순조 34)년 전소되어 1835(헌종 1)년에 문집판각을 신축하여 책판을 이곳으로 옮겼다.<sup>138)</sup> 정혜사는 옥산서원에 소속된 이래 이언적의 수서유적(手書遺跡) 및 『구인록』, 『구경연의』, 『대학장구보유』 등 문집 판각의 보관과 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sup>139)</sup>

옥산서원에 책이 하사된 기록은 16세기에 집중되고 이후에는 1794(정조 18)년 부터이다. 국난의 후유증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웠고, 당쟁의 심화로 인하여 사액서원이 증가하여 문묘 종사 대현을 모신 일부 서원만 내려주었기 때

135) 이해준, 『한국의 서원 현판과 기문』, (사)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주)우일인쇄공사, 2014, p.70.

13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2, p.159.

137) 김희곤, 위의 글, 2019, p.198.

138) 이병훈, 위의 글, 2018, p.262.

139) 이수환, 위의 글, 2018, p.80.

문이다. 정조는 『대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결유된 부분을 보완하여 『대학장구보유』를 다시 편한 이언적을 주 목하면서 옥산서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정조는 회재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옥산서원에 관리를 보내 치제(致祭)<sup>140)</sup>토록 하였다.<sup>141)</sup> 서원에 대한 치제도 서적의 하사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이후로 조정에서 간행되는 서적의 하사가 이어졌다.<sup>142)</sup>

조선 후기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 확산과 교육을 위한 문집 발간 및 문고 역할의 중심에 옥산서원이 있고, 자료의 관리 및 대여 보관 등의 중심에는 옥산서원 경각과 문집판각이 있다. 건물의 낡아 1972년 새로 세운 청분각으로 서적과 책판 등을 이전하면서, 경각과 문집판각은 옥산서원 문고의 상징성만 남게 된다. 제향영역 우측에 있는 경각과 문집판각의 위치는 후에 건립되는 경주지역 서원 보관고 위치에 영향을 주어 경주지역 서원의 보관고는 상대적으로 위계를 높게 조성하게 된다. 또한 문집판각은 담장으로 강학영역과 구획되어 있어, 구강서원의 경각과 최근에 복원한 동강서원의 경각도, 담장으로 영역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경주지역 서원은 옥산서원을 효시로 하여 이후 건립된 경주지역 서원의 전형이 되며 경주지역 서원 전반적인 위치와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140)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14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2, p.156.

142) 이병훈, 앞의 책, 2018, pp.251~253.



## V.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서원의 발생과 쇠퇴의 큰 흐름 보고, 경주 지역 서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배향인물의 성격과 배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서원의 흐름과 경주지역 서원을 비교하고 경주지역 서원의 현황과 배치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첫째, 경주지역 서원에서 나타나는 배향인물의 성격은 이연적과 관련 있는 인물이며<sup>143)</sup> 경주지역에 본관을 둔 경주 李氏, 경주 崔氏, 경주 孫氏를 배향하고 있다.<sup>144)</sup> 시조를 포함한 가문의 인물을 배향하는 문중서원의 성격을 띤 안동 權氏와 이천 徐氏의 서원이 있고<sup>145)</sup> 서악서원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신라 때의 유학자를 배향하는 경주지역만의 성격을 보여준다.

둘째, 경주지역 서원 배치의 특징은 중심축 선상의 지붕의 형태, 강학영역의 배치, 부속건물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부속건물의 위치는 보관고와 전사청에서만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중심축 선상의 지붕 형태에서 경주지역 서원은 2가지 분류로 나뉜다. 樓가 없을 때, 지붕의 형태는 맞배[외삼문]-팔작[강당]-맞배[내삼문]-맞배[사당]이다.<sup>146)</sup> 이 형태 속하는 서원은 구강서원, 용산서원, 직천서원, 장산서원, 운곡서원, 단구서원 등 6개 이다. 동강서원도 탁청루 복원 전에는 이와 같았다. 樓가 단독으로 있을 때 맞배[외삼문]-맞배[樓]-팔작[강당]-맞배[내삼문]-맞배[사당]<sup>147)</sup>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이 이에 속한다. 단독의 루는 모집단 서원인 돈암서원과 병산서원보다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의 초창연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주지역에서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다.

경주지역 서원의 강학영역 배치는 모두 전채후당이고, 서악서원과 옥산서원 외의 서원은 남설기 이후에 건립되어 강학기능이 약화되는 시기로 동·서재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구강서원은 1992년 서재인 시준재를 복원하고, 2000년에 동재를 중수하였는데 동·서재가 좌우대칭이 아니다. 일반적인 서원

143) 장산서원의 배향자 이연인은 이연적의 서자, 동강서원의 손중돈은 이연적의 외삼촌, 경산서원의 이익윤은 이연적의 손자이며 운곡서원의 권덕린은 이연적의 문인이다.

144) 경주이씨의 서원은 구강서원의 이제현, 단구서원의 이세기, 이천, 이종윤, 경주최씨는 용산서원의 최진립과 서악서원의 최치원, 경주손씨에는 동강서원의 손중돈이다.

145) 운곡서원의 권행, 권산해, 권덕린, 구산서원의 서유, 서필, 서사적, 서일원이 있다.

146) [표15]에서 '다-1'로 분류,

147) [표15]에서 '나-2'로 분류

건축에서 齋舍가 하나만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 있으나 구강서원 같이 동·서재가 모두 있으면서 좌우대칭을 벗어난 경우는 없다. 동강서원은 1986년에 동·서재를 복원하였고 『慶州邑誌』에서 동·서재를 언급하지 않아 동·서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설기에 건립된 구강서원, 동강서원, 용산서원은 이미 제향위주의 서원이 건립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동·서재는 서원의 필수적인 건축요소가 아니다.

경주지역 서원에서 부속건물 중 고직사의 위치는 모집단 서원과 경주지역 서원 모두 강당 좌측이나 우측에 강학영역과 고직사 영역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비·비각은 빈번한 위치 이동으로 경내·외 자유롭게 배치하고 있어 일정한 위치를 정하기 어렵다. 비·비각은 고직사와 함께 내삼문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경내보다는 경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서원에서 보관고는 강학영역의 부속건물로 인식하여 모집단 서원에서 내삼문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강당 전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배치한다. 경주지역 서원의 보관고는 제향영역 좌측이나 우측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곳에 있다. 옥산서원의 문집판각, 구강서원의 경각, 동강서원의 경각은 담장으로 구획하여 강학영역과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전사청 위치는 모집단 서원에서 내삼문 위쪽으로 있으나 제향영역과 담장으로 구분하여 있다. 경주지역 서원의 전사청은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용산서원 4개 서원이 제향영역 담장 안쪽에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단 서원중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의 전사청도 제향영역 안에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 서원에서 나타나는 배치형식으로 보인다.<sup>148)</sup>

셋째,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의 전개과정에서 각각 초창기와 발전기에 건립된 서원으로 주목된다. 이 두서원의 전형적인 서원 배치의 형태는 이후 건립된 경주지역 서원의 모본이 된다. 경주 서악서원은 훼손되지 않은 서원중에서 최초의 루가 있고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문루형식이 아닌 단독의 樓로 최초의 사례이며 이러한 樓 형식은 경주지역 서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두 서원의 樓는 경주지역 서원 樓의 전형이 될 뿐 아니라 병산서원과 돈암서원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강서원의 탁청루는 1999년에 문루로 복원한 것인데 원래 규모가 무변루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용산서원의 청풍루로 무변루와 같은 5칸 이상의 규

148) 남계서원 1552년(명종 7), 필암서원 1590년(선조 23) 건립

모로 추정하고 있다. 옥산서원은 조선후기 경주의 문고 및 유림의 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경각으로는 서적과 책판의 보관이 어려워지자 문집판각을 건립한다. 이 두 보관고는 제향영역 우측에 배치하고 특히 문집판각은 담장으로 강학영역과 구분한 특징이 있다.

구강서원의 경각은 1961년 중수하면서 내삼문과 같은 선상에 두고, 강학영역과 분리하였으며 최근 복원한 동강서원의 경각도 담장으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다.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의 특징이 경주지역 다른 서원 건축에 나타나고 있어 두 서원은 경주지역 서원건축의 전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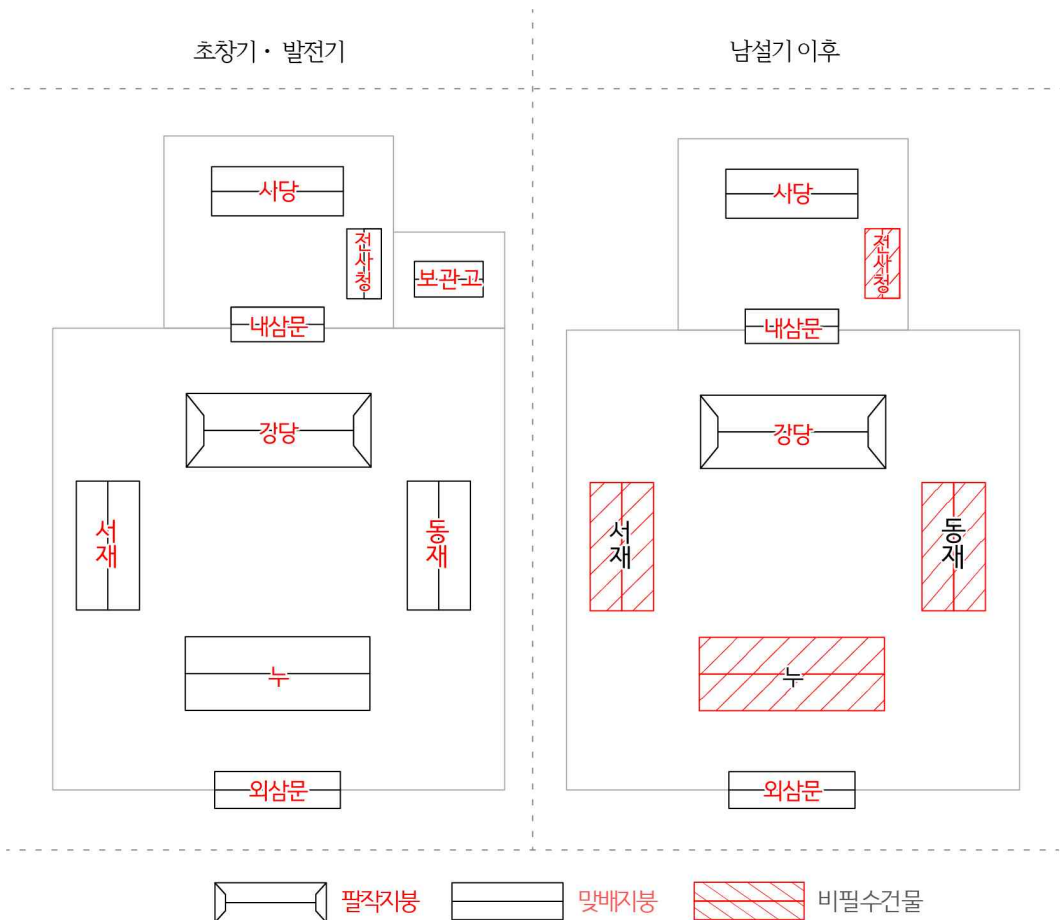


그림 35 경주지역 서원 초창기·발전기와 남설기 이후 배치

경주지역에서 초창기와 발전기 서원의 정형은 서악서원과 옥산서원 배치와 같은 외삼문을 지나 단독의 樓가 있고 강학영역은 강당 앞쪽 좌우에 동·서재가 대칭으로 있으며 내삼문과 사당 사이 공간에 전사청이 있다. 보관고는 제향영역 좌측이나 우측에 있고, 담장으로 영역이 구획되어 있는 배치이다. 지붕의 형태는 사당, 재사, 삼문 등은 모두 맞배지붕이고 강당만 팔작지붕이며 樓는 맞배지붕이다. 남설기 이후의 배치는 강당과 사당이 축선상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제향기능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므로 樓와 재사건물, 보관고가 필수 건축에서 제외되고 제향을 위한 전사청은 제향영역 안으로 배치한다. 경주지역 서원의 배치변화와 모집단을 비교한 축선 지붕 형태 및 강학영역과 부속건물의 배치 등을 종합해서 보면 그림 35와 같은 배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대원군의 서원 훼철 이후 경주지역의 서원은 존속한 2개의 서원을 제외하면 그 원형을 알 수 없다. 훼철이후 하나 둘 씩 복향하면서 서원의 건물을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중수와 복원은 매우 중요하다.

## <참고문헌>

### 1. 사료

『중종실록(中宗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金安老, 『希樂堂文稿卷之五』  
與地圖書 下0338-4(한국자료총소 제20집).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 『회재집』

### 2. 단행본

권감현·권기덕, 『雲谷書院誌』, 도서출판 대보사, 2011.  
경상북도, 『慶北書院誌(개정판)』, 도서출판 성심, 2009.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주시사』, 경주시, 세종인쇄·출판사, 2014.  
경상북도역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 上』, 경북인쇄소, 1983.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병산서원·옥산서원』, 예맥, 2012.  
김교빈, 『한국 성리학을 뿌리내린 철학자 이언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김수정譯·이재영, 『국역 서악지』, 조명문화사, 2015.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2007.  
김희곤, 『정신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미술문화, 동화인쇄, 2019.  
백상승·김태중, 『국역 경주읍지』, 경주시·경주문화원, 세종인쇄출판사, 2003.  
우인수, 「한국서원의 발전 양상과 경북지역의 서원」, 『慶北書院誌(개정판)』, 도서출판 성심, 2009.  
이규석·이규삼, 『丹邱院誌』, 단구서원, 보전출판사, 1985.  
이병훈, 「옥산문고, 사람의 지식 문화를 선도하다」, 『옥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 ,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서원건축」, 『서원』, 열화당, 1998.
- , 『한국의 서원 사진 및 도면집』, (사)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INGCOR, 2013.
- , 「한국의 서원 건축」, 『한국의 서원 문화』, 한국서원연합회, 도서출판 문사철, 2014.
- 이수환,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예문서원, 2011.
- , 「옥산서원과 정혜사\_유불의 오묘한 동거」, 『옥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이수환·이상해·옥영정, 「옥산서원」, 『한국의 서원유산1』, 한국서원연합회, 도서출판 문사철, 2014.
- 이해준, 『한국의 서원 현판과 기문』, (사)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주)우일인쇄공사, 2014.
- 정만조, 『조선 서원의 성립과정 : 중종년간 사림을 위한 교학진흥책과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 1990.
- , 「한국서원의 발자취」,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도서출판 문사철, 2014.
- 조철제, 『慶州 儒敎文化 遺蹟』, 경주향교, 대보사, 2010.

### 3. 학위논문

- 박종찬, 「전재후당형 서원건축의 특성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손봉균, 「사림학파의 당쟁을 통해 본 서원건축의 변화 특성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손숙경, 「조선후기 경주의 서원과 사족의 지역지배질서 : 경주 이조의 용산서원과 최씨 가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오정국, 「경주 서악서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미경, 「영남지방 서원루의 건축계획:자연경관 해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논문, 2002.

#### 4. 학술논문

김기주, 「藍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남명학연구』 Vol.52, 2016.

김연호, 「도산서당(陶山書堂)의 입지(立地)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배치(配置)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집』 2008, Vol.No3. 2008.

도용호·이재현, 「사림의 성향과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4호, 1995.

박장승, 「경주소재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Vol.19, 2001.

유인호·하헌정, 「옥산서원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10권 2호(통권 제 18호), 2012.

이수환, 「慶州 龜岡書院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4』, 2005.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제11집』, 2007.

정기철, 「濫溪書院의 建築學的 의미」, 『동양예술』, 1권0호, 2000.

조철제, 「경산서당」, 『慶州文化論叢』 제18집, 2015.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4권, 2017.

최영기, 「龍山書院 未復元 滅失建物 考察」, 『경주문화논총』 제21집, 2018.

황정환, 「경주 서악서원 조경식재 계획의 방향」, 『論文集, Vol.17』, 2004.

#### 4. 보고서

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西岳地域地表調査報告書』, 毎日原色精版社,



199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北部地域地表調査報告書Ⅱ』, 한독인쇄,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 방안』, 2010년 11월.

국가기록원 DA0219232, 문화재청, 「전국 문화재 현황 실태조사서:동강서원 경북555, 경산서원 경북 556, 운곡서원 경북 557, 용산서원 경북 558, 구강서원 경북 559」, 1984.

국가기록원 DA0219257, 문화재청, 「전국 문화재 건조물 현황 실태조사서: 서악서원18」, 1984.

국가기록원 DA0272814, 문화재청, 「동강서원 설계 승인신청 보완」 1998.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 中卷』, 天豐印刷株式會社, 1977.

## 5. 웹사이트

밀곡사지, [http://gis-heritage.go.kr/common/gis\\_lt/gisLTView.do?lostSeid=LT10601](http://gis-heritage.go.kr/common/gis_lt/gisLTView.do?lostSeid=LT10601).

구산서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4806&cid=46615&categoryId=46615>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http://waks.aks.ac.kr/>이의윤의묘지명(墓誌銘), 국조인물고권41사자(士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7013&cid=62132&categoryId=62132>

카카오지도

## 6. 항공사진 촬영 : 김태형(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 <표 목차>

|                                         |    |
|-----------------------------------------|----|
| 표 1 경주지역 서원 목록 .....                    | 4  |
| 표 2 모집단 서원 목록 .....                     | 5  |
| 표 3 경주지역 서원 연구사 목록 .....                | 8  |
| 표 4 시대별 서원, 사우 건립 및 사액 개수 .....         | 11 |
| 표 5 배향인물과 서원과의 지역 관계성이 있는 경우(22인) ..... | 13 |
| 표 6 배향인물과 서원과의 지역 관계성 없는 경우(16) .....   | 15 |
| 표 7 모집단 서원 축선 지붕형태 .....                | 18 |
| 표 8 모집단 서원 축선 지붕형태 분류 .....             | 19 |
| 표 9 모집단 서원 보관고 위치 .....                 | 23 |
| 표 10 모집단 서원 비·비각 위치 .....               | 25 |
| 표 11 모집단 서원 고직사 위치 .....                | 27 |
| 표 12 모집단 서원 전사청 위치 .....                | 29 |
| 표 13 경주지역 서원 배향인물 본관별 현황 .....          | 67 |
| 표 14 경주지역 서원 축선 지붕형태 .....              | 69 |
| 표 15 경주지역 서원 축선 지붕형태 분류 .....           | 70 |
| 표 16 경주지역 서원 보관고 위치 .....               | 72 |
| 표 17 경주지역 서원 비·비각 위치 .....              | 74 |
| 표 18 경주지역 서원 고직사 위치 .....               | 74 |
| 표 19 경주지역 서원 전사청 위치 .....               | 77 |
| 표 20 모집단 서원과 경주지역 서원 부속건물 위치 비교 .....   | 79 |

## <그림목차>

|                                           |    |
|-------------------------------------------|----|
| 그림 1 연구 흐름도 .....                         | 7  |
| 그림 2 서원영역 4분할 .....                       | 22 |
| 그림 3 모집단 서원 보관고 위치 .....                  | 24 |
| 그림 4 모집단 서원 비·비각 위치 .....                 | 26 |
| 그림 5 모집단 서원 고직사 위치 .....                  | 28 |
| 그림 6 모집단 서원 전사청 위치 .....                  | 30 |
| 그림 7 서악서원 배치변화 .....                      | 45 |
| 그림 8 옥산서원 배치변화 .....                      | 46 |
| 그림 9 옥산서원 청분각 해체 전 모습 .....               | 47 |
| 그림 10 옥산서원 남쪽 해체된 청분각 자리 .....            | 47 |
| 그림 11 구강서원 배치변화 .....                     | 48 |
| 그림 12 탁청루 복원 전 유도문 .....                  | 49 |
| 그림 13 복원 후 1층 유도문 2층 탁청루 .....            | 49 |
| 그림 14 동강서원 배치변화 .....                     | 50 |
| 그림 15 동강서원 경각 .....                       | 50 |
| 그림 16 동강서원 神道碑閣 .....                     | 50 |
| 그림 17 용산서원 배치변화 .....                     | 52 |
| 그림 18 직천서원 배치변화 .....                     | 53 |
| 그림 19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851번지 장산서원 옛터 유허비 ..... | 54 |
| 그림 20 장산서원 옛터 1780년 식재한 향나무 .....         | 54 |
| 그림 21 장산서원 옛터 1780년 식재한 은행나무 .....        | 54 |
| 그림 22 운곡서원 배치변화 .....                     | 56 |
| 그림 23 구산서원 배치변화 .....                     | 57 |
| 그림 24 경산서원 배치변화 .....                     | 58 |
| 그림 25 단구서원 배치변화 .....                     | 58 |

|                                        |    |
|----------------------------------------|----|
| 그림 25 단구서원 강당 앞 碑 .....                | 59 |
| 그림 26 단구서원 강당 앞, 2019 .....            | 59 |
| 그림 28 단구서원 전경 .....                    | 59 |
| 그림 28 단구서원 외삼문 앞 전경, 2019 .....        | 59 |
| 그림 30 경주지역 서원 보관고 위치 .....             | 73 |
| 그림 31 경주지역 서원 비 또는 비각 위치 .....         | 75 |
| 그림 32 경주지역 서원 고직사 위치 .....             | 76 |
| 그림 33 경주지역 서원 전사청 위치 .....             | 78 |
| 그림 34 ‘서원서책불출문외’ .....                 | 82 |
| 그림 35 경주지역 서원 초창기·발전기와 남설기 이후 배치 ..... | 86 |

# 경주지역 서원의 전개과정과 특징

김 은 희

경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오 세 덕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지역 서원의 현황을 정리하고, 전개과정과 특징을 파악하여, 시기별 서원 배치의 정형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먼저 우리나라 서원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비롯한 초기에 세워진 13개 서원을 선정하여 배향인물의 성격과 건축 배치를 알아본다. 건축 배치는 크게 전체 배치, 축선에 따른 지붕 형태 분류, 강학영역 배치, 부속건물의 배치 등을 살펴본다. 경주지역 서원의 전개과정은 현황 및 중수와 복원된 건물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로 배치변화를 정리한다. 경주지역 서원의 특징은 초기 건립한 서원과 같이 배향인물 및 건축 배치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경주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에서 그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주지역 서원 배향인물의 성격은 이언적과 관련되어 있거나 경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인물이며 문중중심의 사람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신라시대의 인물이다.

둘째, 경주지역 서원 건축 배치의 특징은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에서

루의 개념이 도입되고, 외삼문과 루가 분리된 단독의 루가 등장한다. 서원의 부속건물에서 옥산서원의 경각과 문집판각은 상대적으로 위계를 높게 배치하고, 전사청은 제향영역 안쪽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지역 다른 서원에 영향을 끼쳐 경주지역 서원에서 나타나는 건축 배치의 특징이 된다.

셋째, 경주지역 서원 배치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통해 시기별로 두 가지 건축 배치의 정형을 알 수 있다. 경주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은 외삼문을 지나 단독의 루가 있고, 강학영역은 강당 앞쪽 좌우에 동·서재가 대칭으로 있으며 내삼문과 사당 사이 공간에 전사청이 있다. 보관고는 제향영역 좌측 또는 우측에 있고, 담장으로 영역이 구획되어 있는 배치이다. 옥산서원 이후의 배치 정형은 강당과 사당이 한 축선상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제향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므로 루와 재사건물, 보관고가 필수 건축에서 제외되고, 제향을 위한 전사청은 제향영역 안으로 배치한다.

---

주제어 : 경주서원, 서원배치, 루, 서악서원,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용산서원

#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Seowon in Gyeongju

Kim Eunhee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Se deok

##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on time-periodic development of building arrangement patterns of Seowon -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 in Gyeongju. The research will derive from organizing Seowon's condition and identifying developments and features of it.

First of all, this thesis looks at the overall flow of Seowon in Korea. Then, the study will select 13 Seowons including the first built Sosu-seowon and other early Seowons to find out characters of enshrined figures and architectural arrangement. The layout of architecture part in this thesis will be examined its whole arrangement, classification of roof types in terms of a vertical shaft line, arrangement of study areas and attached buildings. This thesis will research on development of Seowon through its arrangement changes according to current conditions, restored buildings and related records. Characteristics of Seowon in Gyeongju will be found from identified and compared enshrined features and architectural arrangements. Then, this research is going to investigate prototypes from Seoak-seowon and Oksan-seowon, which were first built in Gyeongju.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haracters of enshrined features of Seowon in Gyeongju is that the

person was related with Lee Eunjeok or was a permanent resident in Gyeongju and it was a person from Silla dynasty who had the special characters of their region and was the nucleus of their clan.

Secondly,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Seowon's architecture arrangement in Gyeongju is that they adopted concept of lu - a pavilion. The lu was separated from Oesammun - a three-door outside gate - and appeared as a separated lu in the Seowon. In attached buildings, Gyeonggak - storing books - and Munjippangak - storing woodblocks of literary collection - of Oksan-seowon were relatively located upper part in the Seowon. In addition, Jeonsacheong - actual place for religious rites - was located inner part of ritual area. Those features affected other seowons in Gyeongju and became a characteristic in architectural arrangement in Gyeongju.

Lastly, through the progress of Seowon's building layout and its features, it could be ascertained two types of building arrangement in different time periods. In the building arrangement of Seoak-seowon and Oksan-seowon in Gyeongju, there has a free-standing lu past the Oesammun. The east and west buildings are symmetrical on the front of Gangdang - an auditorium - in the Ganghak - study - area. The Jeonsacheong is in between Naesammun - an inner three-door gate - and Sadang - the shrine. Bogwango - storing books and woodblock - is located on the left or right side of the Jeihyang - ritual - area. Walls divided each section in the Seowon. After Oksan-seowon, the arrangement of the Gangdang and Sadang is continuously located in one side of the axis line. However, the places, where have ritual function, are held a dominant position. Therefore, the lu, Jaesa building - a dormitory - and Bogwango are excluded from the essential buildings and Jeonsacheong for ritual is located in the ritual area.